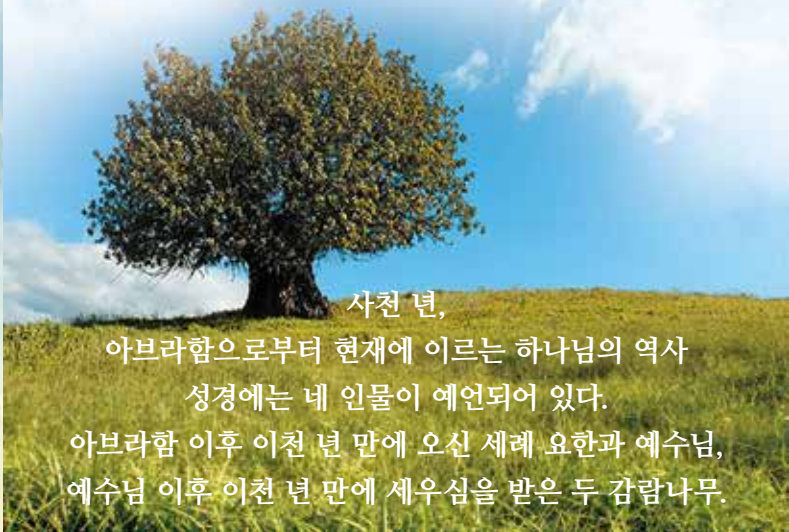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계시록 강해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계시록 강해

발행일 | 2012년 10월 20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456-3

ISBN 978-89-6449-223-9 (세트)

계시록 강해



저자 (1975년 당시)

Prologue

“책머리에”

- 성경으로 돌아가자 -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승들은 한결같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찾고, 살아가는 도리를 구해 왔으며, 이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못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적지 않은 마음의 양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거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참되고 보람 있는 한 세상을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석가가 그렇고, 공자가 그러하며, 소크라테스나 칸트, 그 밖의 또 누구누구의 여러 가지 가르침도 다 이 테두리를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때로는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을 논해 보기는 했으나, 이것은 몸으로 우리에게 똑똑히 보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머리로 짜낸 아리송한 속짐작이요, 따라서 우리가 기대어 설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는 문제를 다시금 올바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끈기 있게 추구해야겠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가장 큰 궁금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앞의 물음은 이왕 지나간 일이라 덮어 두더라도, 나중 물음은 우리가 조만간 당해야 할 일이므로 덮어 둘 수 없다. 즉, 죽음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자, 최대의 적이다. 그리고 이 불청객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평소에 죽음을 줄곧 의식하고 살아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까맣게 잊어버리고 희희낙락, 오늘을 요리하고 내일을 설계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작들은 크든 작든 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1:2)는 솔로몬의 말 그대로, 때가 되면 죽음이 송두리째 삼켜버려, 금세 무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절망과 불안, 고뇌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부터 얻어 놓고, 그 터전 위에서 70이나 80의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무’에서 놓여나는 길은 없을까?

이것은 우리의 지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자고로 인류의 우수한 두뇌가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이 문제를 줄기차게 추구해 왔으나, 철학적으로는 아직 이렇다 할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신앙 안에 들어와 직접 체험해서 말씀과 부합시켜 깨달아야지, 인간의 머리로 이론을 따져

풀이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글이며, 이 글에 의해서만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기 죽음을 이기는 길도 열려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 체험 - 영적인 변화, 즉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생각과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영계와의 교류를 비롯한 모든 초인간적인 신비의 체험 - 이 그 타당성을 밑받침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과 자기가 남이 아니라는 자의식을 갖는 동시에, 그 크신 손길을 피부로 느끼고 또한 의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손길이 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고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이 체험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 기독교이며,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상과 성경의 가르침의 다른 점이다. 또 성경의 성경다운 권위가 여기서 비롯된다. 이 성경에서 우주와 역사를 배우고 여호와와의 큰 뜻을 헤아려, 그 은총 가운데 영원한 생명줄을 분명히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대도를 걷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지닌 또 하나의 권위는 거기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들이 그대로 적중된 데 있다. 우리는 예언서라면 요새

신문 지상에 꽤 떠드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나 ‘정감록’ 같은 것도 연상하게 되지만, 이것은 물론 성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한 성경과는 무관한 일종의 위서이다. 즉, 그 주관하는 본체, 다시 말해서 저자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방의 능력이 뛰어난 마귀의 계시에 의해 쓰인 것으로 그 예언의 적중률이 부실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성경의 경우는 그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구약 시대의 앗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고레스의 바벨론 제패가 그러하며, 또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그대로 들어맞아, 크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일에서, 작게는 그 속옷을 사람들이 제비뽑아 나눠 갖는 것에 이르기까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몇 백 년 전에 기록한 수십 가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독립이며, 우리나라에서 4대강국의 이해가 뒤엎혀 각축을 벌이는 것도 성경 말씀 그대로이다. 뿐만 아니라 근자에 식자들 -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 의 입에 흔히 오르내리는 이른바 말세의 현상을 두고 보더라도 그렇다. 가령 핵무기의 위협이나 각종 공해, 인륜의 타락, 하늘의 이상, 교통의 발달, 배도자, 즉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속출이 그렇고, 무엇보다도 큰 권능을 들고 이 땅에 나타난 ‘이긴자’의 출현이 그렇다. 이 모든 현상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성경이 여느 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성경은 인간이 머리를 짜내어 쓴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쓴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라기보다 성령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알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며, 그 성령을 받은 정도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성경 해석이 구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의 고전을 대하듯 머리로만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면, 성경은 신화나 전설 또는 기껏해야 ‘베다’나 불경과 같은 옛 수양 서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영의 양식은 얻을 수 없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즉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종교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선하게 살려는 수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요구는 내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증거에 의해 충족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경전부터가 특이하다. 즉, 성경에는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령의 조화로, 이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배우고 못 배운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에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학자들보다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할머니들이 성경을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설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세기의 대신학자 칼 바트가 아무리 유식하

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하루에 3,000명이나 주 앞으로 이끈 무식한 어부 베드로의 설교를 따르지 못하는 법이다.

이 책의 저자의 경우도 그렇다. 그는 배운 것도 없는 새파랗게 젊은 분이지만, 그 입술을 통해 여호와의 심오한 말씀이 터져 나오고, 그 손길을 통해 못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큰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총은 기독교 역사상 초대 교회 당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며, 그 위력은 당시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즉, 당시에는 불의 성령이 내렸지만, 지금은 불, 생수, 이슬의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행2:3, 호14:5-6, 속14:8 참조) 하긴, 그래야 한다. 마귀도 상대적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류의 앞날에 대한 예언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은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책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거기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워낙 난해하여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무던히 애써 왔으나 번번이 허사였다. 그것을 풀 때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다.(단12:9, 계 2:17 참조) 그러니까 계시록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은 뚜껑을 덮어 놓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된다.

무릇 예언서치고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애매모호한 표현과 심지어 일부러 문맥을 엇갈리게 한 대목도 없지 않다. 특히 계시록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는 주관하는 여호와와 이에 대항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술상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해석은 각인각색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계시록 강해는 여러 가지가 간행되었지만, 저자마다 탄소리를 하므로 독자들을 꽤 어리둥절케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권을 더 펴내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따로 있다.

즉, 이 강해는 여타의 책들과 그 성질이 다르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부름을 받아 양떼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는 현직 교역자이다. 그가 성령을 넘치도록 받아 수시로 주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어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과 관련시켜 1년 남짓 강의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기록하여 여기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그는 강의하면서, 좀 더 깊은 말을 하고 싶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터이므로 이 정도로 해 둔다고 가끔 우리에게 말하곤 했다. 그 못 다한 말은 앞으로 계속 간행되는 그의 설교집(이미 ‘에덴의 메아리’ 1, 2집이 나왔음)에 반영될 줄 안다.

이 강해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속제로 남아 있던 어려운 대목들도 체계 있게 잘 풀이되어 있다. 그리하여 오래 가려져 있던 계시록의 짙은 안개가 걷히고, 그 정체를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인다. 이것은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비로소 첩첩이 뒤엎힌 계시록의 울과 날이 제짝을 찾아 동서남북을 환히 헤아리게 된 것이다. 모두가 저자 안에 충만한 성령의 조화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밀

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 계시록을 영적으로 풀이한 것이 바로 이 강해이다. 이제 때가 되어 계시록의 뚜껑을 떼는 것이다.

사실 이 책에는 어느 강해처럼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나, 이미 간행된 유서(類書)에서 인용한 구절 - 우연히 일치된 대목은 있을지 모르지만 - 은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이 우선 이 책의 됴됨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영수 그는 본래 성경도 깊이 따지고 캐는 차분한 성격이 못된다. 그가 이 책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그의 입술을 기계로 써 달라고 아뢰는 몇 마디의 기도나 인용한 성경 구절의 장과 절을 적은 메모 정도이다.

독자들에게는 더러 낯선 말이 눈에 뜨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책이 지닌 성격 탓이다. 아무튼 보는 눈을 가진 분들은 이 책에서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또 나로서도 그러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1975년 11월 최현

Prologue

“재판을 준비하며”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지도 근 20세기가 흘렀다. 그러나 계시록은 감추어진 비밀이 많아서 해석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또 잘못된 해석이 교계에 통용되고 있다. 이제 계시록의 비밀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인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났기에, 주께서 그에게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그는 40년 가까이 하늘에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영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펼쳐지는지를 보여 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때 계시로 알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계시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 주의 일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라야 해야 할 일을 지시하기 위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큰일을 할 시대를 예정해 놓고 있다. 그것은 메시아 시대와 감람나무 시대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 예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만드셨다. 두 감람나무는 그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사람들의 죄를 씻어 하늘 군병을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계21:6-7) 이런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의 사소한 부분에 얽매어 길을 잃기 마련이다.

왜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운가?

첫째,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의 순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서를 알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비밀이기 때문이다. 계시록의 사건들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로잡기 위한 계획인데, 마귀가 알도록 적나라하게 내용을 알려 주실 수가 없다.

둘째, 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의 원 의미는 그 비유를 만든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계시록의 경우는 예수께서 비유를 만드셨으므로, 예수께 직접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계1:20 참고)

그렇다면 인류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에게 알려 주실 의도가 없으셨다면 계시를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차대한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 주시지는 않는다. 계시록에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가 이긴 자요, 감람나무다.

이긴자는 흰 돌을 받는데, 그 돌 위에는 받는 자만 아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계2:17) 일반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를 잘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해당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정말 이긴자라면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새 이름’은 주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계획을 말한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는데,(계5:7) 그 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책을 볼 자격을 갖게 되셨다.(계5:5)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던 창조주이시지만,(요1:3, 17:5) 그때까지 하나님의 책에 담긴 비밀을 알지 못하셨다. 그러니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런 내용을 아무나 해석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주님은 그 책을 보시고 그 뜻을 이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새 이름이다.

그 이름은 그 일을 이를 자에게만 알려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이긴자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로 예정하신 인물이며, 예수께서 감람나무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는 시험을 이겨야 그 칭호를 받는 존재다. 그래서 그를 이긴자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마귀는 죄와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군대를 필요로 하신다. 그 군대의 수가 14만 4천이다.(계14:1) 일반 교회에서는 이 수가 상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주님의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고 순교한 영들에게 말씀하셨다.(계6:11) 따라서 그것은 정해진 수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마귀에게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계20:4) 이때 구원 받는 자들이 무수히 많으며, 이들은 천국에서 백성이 된다. 이들을 심판한 군병들은 왕 권세를 받아 세세토록 다스린다.(계22:5) 따라서 14만 4천 개의 왕국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그 수가 상징적이겠는가? 창세 이후로 태어난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14만 4천 개의 나라로 나누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수를 채우도록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스가랴를 통해 알려 주셨다. 주님도 하나님의 책을 받으시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시

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마24:34)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따로 있다는 것을 하늘에 오르신 후에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알게 되셨다. 그 내용을 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중차대한 책이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로 감추셨기에 그동안 알 수 없었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늘 군병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다. 그 군병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이 하늘에 없었다. 주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만드신 것이다. 그전에는 모든 선지자들도, 순교자들도 마귀의 세계인 음부에 끌려가 있었다.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진 후에 주께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신 것이다.(시68:18, 마27:52-53, 계5:9-10)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씻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군병의 복장인 세마포를 주신 것이다.(계6:11)

아직 그 수는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감람나무 역사를 예정하셨고, 그 뜻을 아시게 된 주님은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를 당신의 두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며 예언케 하겠다고 하셨다.(계11:3-6)

계시록의 이해를 위해 중요 사건의 순서를 정리하였다.

1. 이긴자 감람나무의 출현 (계2:7, 11, 17, 26, 3:5, 12, 21, 11:3-4, 21:6-7)
2. 이긴자 감람나무의 사명 완수 (계7:3-4, 14:16)
3. 재앙 (계11:6, 8:7-12, 9:4, 15)
4. 주의 재림 (계14:1)
5.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감 (계6:14)
6. 천사가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둠 (계12:9, 20:2-3)
7. 천 년의 기간 (영의 세계, 계20:3, 5)
8. 용을 풀어줌 (계20:7)
9. 용이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줌 (계13:4)
10.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함 (계11:7)
11. 성도들이 짐승에게 패함 (계13:7)
12. 감람나무가 부활함 (계11:11)
13. 성도들이 회복됨 (계15:2)
14. 어린 양과 그의 군대가 짐승과 그의 군대를 섬멸함 (계17:14, 19:14, 19-20)
15.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짐 (계19:20)
16. 용과 그의 군대가 거룩한 성을 공격함 (계12:17, 20:7-9)
17.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용의 세력을 멸함 (계20:9)
18. 용을 불못에 던짐 (계20:10)
19. 최후의 심판 (계20:11-15)
20.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19:7, 9)
21. 새 하늘, 새 땅의 창조 (계21:1)

이 책의 재판을 준비하면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초판이 발간된 지 37년이 지났으므로 그동안 더 드러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최대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혹 실수가 있다면 전적으로 편저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이 책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주의 복을 받기 바란다.

2012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5
재판을 준비하며 ... 13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며 22

- 01 주님의 계시 28
- 02 이긴자의 권능과 사명(1) 42
- 03 이긴자의 권능과 사명(2) 79
- 04 하나님의 보좌 96
- 05 봉인한 책 103
- 06 인을 떼다 109
- 07 이스라엘의 12지파 120
- 08 재앙과 환란(1) 127
- 09 재앙과 환란(2) 133
- 10 일곱째 나팔을 불 때 139
- 11 두 감람나무 147



- 12 마귀의 추방 171
- 13 두 짐승 185
- 14 어린 양의 아내 203
- 15 마지막 재앙 221
- 16 아마겟돈 전쟁 225
- 17 음녀(淫女)의 행패 238
- 18 역사의 종말 250
- 19 하늘의 군대 260
- 20 천년왕국 274
- 21 새 하늘과 새 땅 286
- 22 에덴의 회복 299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며



오늘날 이 지구 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 무척 많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치를 잘 모르고 무작정, 또는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신앙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되새기게 된다.

어찌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허점(虛點)이 따르게 되는가? 그것은 주로 여호와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기록한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푸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역사적인 고증(考證)이나 신학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풀어 나가도 아귀가 잘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성경을 올바르게 푸는 열쇠는 그 당사자가 성령을 얼마나 충만히

받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얼마나 저명한 신학자로, 또는 부흥사로 연구를 많이 하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특히 계시록과 같은 영적인 말씀의 경우에 그러하다. 계시록은 실로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거기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과 암시와 예고(豫告) 등이 짜임새 있게 유기적으로 엮여져, 한 편의 웅장한 서사시(敍事詩)를 이루고 있다.

계시록에 대하여는 오늘날까지 이설(異說)이 분분(紛紛)하여, 어떤 주석자는 “계시록에는 거기 기록된 말의 수효만큼이나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루터 같은 분도, “계시록에는 그리스도교가 교시(敎示)되지 않았으며, 또 성령의 감동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경 속에 이 책이 삽입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루터의 오해이며, 특히 오늘에 와서는 이 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다.

계시록은 요컨대 인류 역사의 말로에 대한 예언으로,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려운 여호와의 비밀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였으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계1:3)고 하였다.

계시록을 읽을 때 특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는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름다운 옛 에덴동산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과정이며, (행3:21) 이 싸움은 싸움인 만큼 결판을 내게 마련이지만, 이 싸움에도 크고 작은 — 세상 싸

움에 일정한 ‘룰’(규례)이 있는 것처럼 — 피차에 범할 수 없는 룰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영생을 얻고, 마귀의 편에 선 자는 멸망을 면치 못하며, 인간의 죄는 주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씻을 수 없다는 등등이 그것이다. 이런 룰이 없이 마귀의 편에 서도 구원을 얻는다거나, 강물로도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이런 싸움부터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세 차례에 걸쳐 하게 되며, 여기에 인간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육체를 중간에 놓고 싸우는 구약 시대의 첫째 싸움과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혼을 두고 싸우는 신약 시대의 둘째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직접 겨루는 마지막 셋째 싸움이 그것이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후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고,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어 마귀의 손에 들어간 이 땅을 회복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자 역사할 때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마귀와 싸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내세워 일으킨 전쟁에 있어서도 육적으로 죽이고 살리기를 일삼았으며,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이적, 기사도 모두가 육적인 것이었다. 가령 이스라엘 군과 아말렉군의 싸움에서 적의 모든 소유, 즉 남녀노소는 물론 그 가축까지도 다 몰살해 버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이나, 모세가 지팡이

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경우가 그렇다. 물론 신약 시대에 주님도 5병 2어의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먹인 일이 있지만, 이것은 저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 즉,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삼상17:47)으로, 적을 육적으로 살육하여 전멸시키는 것이 위주였다. 이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을 등 뒤에서 밀어주신 것은 여호와요, 이방인을 도와준 것은 마귀였다.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인다.”(렘25:31)고 하였으며,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렘32:26)이라고 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민16:22)이라고 부르고, 다윗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떠다.”(시119:120)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역사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마귀도 인간의 육체를 가운데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혼을 가운데 두고 싸우게 된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인간의 혼이 개재하므로, 인간은 자유의지(自由意志)에 따라 스스로 여호와와 편에 설 수도 있고 마귀의 편에 설 수도 있어, 믿음이 반석 위에 서기까지는 마음에 번민이 그치지 않는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로다.”(롬7:24)라고 탄식한 것은 이런 영적인 투쟁 과정에서 승리와 패배가 한결같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째 싸움을 하는 시대에 이르면, 인간의 육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모든 계명과 율법이 달라진다. 예컨대, 구약 시대에 송아지나 비둘기의 피로 여호와에게 제사 드리던 법도는 폐지되고, 신도들은 직접 하나님에게 제사(예배) 드리게 되고, 돌에 새긴 모세의 율법은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자유의 율법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싸움은 구약 시대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 즉 이방인을 육적으로 무찌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약4:7)이요,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딤후4:7)이다.

다음에 셋째 싸움은 천년왕국의 통치가 끝나고 성령과 악령, 다시 말해서 무저갱 속에 가두어 뒀던 마귀를 다 내어놓고,(계11:7) 저들과 하나님의 편에 선 의로운 성도들 사이에 전개되는 마지막 일대 결전으로, 영체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다. 천년세계는 성도들이 홀연히 변하여(고전15:51-52) 영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 이 싸움은 천년이 지나서 있는 것이다. 소위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계12:17) 전쟁이요,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아마겟돈에 모아서 하게 되는 전쟁이다.(계16:14-15) 그리하여 이 싸움에서 ‘어린 양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계17:24)은 이기게 마련이다.

이 세 차례의 싸움을 거쳐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해야만 비로소 '사망이 삼킴을 당하여'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감춰진 경륜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문맥상으로도 감추어진 대목이 많다. 마귀가 알면 꾀방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런 대목은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 두었다가”(단12:9) 때가 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떼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여, 특히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마귀의 첫째 싸움과 둘째 싸움, 셋째 싸움에 각각 해당하는 내용이 동시에 기록됨으로써 앞뒤의 문맥이 일부러 엇갈리도록 가려놓은 데가 적지 않으므로, 이것을 잘 구분 짓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 계시록은 오늘날까지 많은 신학 연구가들에 의해 풀이되어 왔으나, 아직 아무도 후련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비밀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주님과 영적으로 교류하여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일1:1)가 아니고는 이 책의 어려운 대목을 풀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이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계시를 중심으로 이 책을 풀어 나가려고 한다.

Chapter 01.

주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1:1)

이 첫 장은 이 책의 머리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책은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계시란 희랍어로 아포칼뤼시스(αποκαλυψις)라고 하며,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다. 즉, 감춰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으로, 신이 인간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 계시에 대하여서는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가서 보는 계시와 둘째로 여호

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인간에게 보여주게 하시는 계시가 있고, 셋째로 하나님이나 주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 보여주시는 계시가 그것이다.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본 계시(고후12:2)가 이 첫째 것이며, 역시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自高)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使者)를 주셨으니”(고후12:7)의 경우는 천사가 내려와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본문 말씀대로 “천사를 중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셋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非夢似夢)간에 주의 성령이 순식간에 임하여 지시를 내리는 경우이다. 가령 베드로가 “욥바의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의 네 귀를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까지 드리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행11:5-7) 하는 경우도 그렇다.

비몽사몽간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부정한 짐승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먹으면 부정하여지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부정한 물질을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는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계시에 따라 할례 받지 않은 백부장 고넬료를 맞이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부터 율법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이다. 즉, 무할례자들에게

도 거리낌 없이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라는 계시였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쓰여 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마귀를 멸망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며,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여호와와의 뜻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강한 마귀의 세력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선지자(왕하2:10, 암3:7)나 사도들(딤후1:1, 고후4:5)을 가리킨다. 예컨대 아브라함, 모세, 야곱, 베드로, 바울 등이 다 하나님의 종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1:2-3)

이 본문에 보면, 요한이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이 책에 실린 계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풀이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듣는 자의 경우도 그렇다. 즉, 반드시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나 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말씀을 귀가 따갑게 전해 주어도 그것은 ‘쇠귀에 경 읽기’와 마찬가지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막8:18)는 주의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읽고 듣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며, 따라서 말씀이 먼저 나가게 마련이다.(암3:8) 또한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벧후1:20)는 말씀대로, 모든 예언은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여기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는 것이며, 이루는 자가 나타나야 때가 가깝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루는 자가 나타나면 먼저 말씀이 터져 나가기 마련이다.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전하는 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전하기 전에 보여주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권능과 함께 그 입술에서 신령한 말씀이 나가 스스로 그 존재를 입증하게 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

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총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
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平
康)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4-5)

여기 아시아란 당시에 로마의 관할 아래 있던 지중해 연안의 소
아시아의 일부를 가리키며, 일곱 교회란 11절에 기록한 대로 에
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서, 당시에 이 교회들만 아시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골로새(골1:2), 히에라볼리(골4:13), 드로아(고후2:12) 등을 비롯한 많
은 교회가 있었으나, 그중에서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택하여 편
지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을 가리
킨다.(계1:8) 하나님께서 장차 만들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친
히 다스리시려면 먼저 당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피권세로 이긴자가 나타나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여건을 마련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십자가의 군병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가인, 아벨로부터 인류와 교류를 시작하신
이후 장장 6천 년 동안 역사해 오셨으며, 지금은 이 크신 하나님
의 경륜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긴자가 나타나 다시 오실 주의 길

을 예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시대이며,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고, 마귀를 그 발아래 무찌르는 성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내가 이상 중에 본 것을 말하겠다. 나도 바울처럼 하늘에 올라갔을 때 두 궁창을 지나서 비로소 여호와 앞에 이르렀다.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고후12:2) 그곳은 광채가 눈부셔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황찬란했으며, 하나님의 상반신은 달구어진 용광로와 같은 불로 가려져 있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본 보좌의 광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본 것과 같았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일곱 영’이란 무엇일까? 우선 영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영은 같으나 여호와와의 은사(恩赦)는 사람에 따라 각각이다.(고전12:4-7) 사도시대에 오순절(五旬節) 날 120문도들에게 임한 불 같은 성령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강도가 각각 다르다. 그것은 각자 영적으로 이루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 일곱 영도 마찬가지이다. 일곱 영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영으로, 각 교회의 처지와 형편이 각각 다르다. 영은 같지만 성도의 신앙 정도도 다르므로 주는 은사와 지시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일곱 영으로 역사하게 된다. 이 일곱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로 상징되어 있다.(계4:5)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

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일곱 가지 달린 순금 등대로, 일곱 등대, 곧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계1:20) 여기서 일곱이란 완전성을 의미한다. 즉, 일곱 교회는 완전한 성도들이며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일곱 영도 살피는 역할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충성된 증인’이란 다름 아닌 주님을 말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는 말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킨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일이 끝장이 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오묘한 진리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며, 십자가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바울도 “내가 사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갈6:14)고 말했던 것이다.

여기 “죄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은 주께서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하였다.’는 뜻이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은 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이며, 우리도 주의 피권세로 죄를 벗어나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¹⁾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
하여 애곡(哀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
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
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1:6-8)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기원하고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 주의 재림은 큰 언약의 하나였다.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 그의 허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 병정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으니, 요한은 당대에 곧 주님이 오실 줄로 믿었던 것이다. 주께서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마.”(마24:34)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신 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순서, 절차를 알게 되셨고, 당신의 증인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계5:7, 11:3-4 참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 알파(alpha)는 희랍어의 처음 글자이고 오메가(omega)는 마지막 글자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는 말은 완성을 뜻한다. 다음에 ‘이제도 있고 … 장차 올 자’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거듭 강조하고, 하나님을 ‘전능한 자’라고 못 박아 말하였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나 그 대적인 마귀와의 투쟁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아 여러 모로 전략을 짜기도 한다. 상대방이 강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주의 재림

1) 영체로 오시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

이 늦어지는 것도 그 한 예이다. 마귀는 능력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으나(출8:18, 고전2:8, 요일4:4) 하나님의 강력한 적이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9-11)

여기서 요한은 자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되어 있다. 세상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다. 어디까지나 믿음에 입각하여 주님과 관련시켜 몇 마디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자고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적대 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란이 따랐으며, 그들은 신앙 동지들과 고락을 나누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왔다. 그들은 결코 혼자 편안히 먹고 마시며, 꽃방석에 앉아서 남에게 인내의 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에스겔이 “내가 델아빤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중에서 민답(悶沓)히 7 일을 지내니라”(겔3:15)고 말한 것도 그 한 보기이다.

‘밧모 섬’은 스포라데(sporades)라는 군도(群島)에 속하는 작

은 섬으로, 암석으로 된 불모(不毛)의 땅이며, 초승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좋은 항구를 이루고, 로마에서 에베소로 향하는 배의 마지막 기항지로, 요한은 이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 섬에 유배시키는 것은 당시의 로마에서 흔히 있었던 일로 형벌로서는 중한 것이 아니었다.

‘주의 날’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며,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나’는 물론 요한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고전6:17)이라고 한 말씀 그대로, 인간의 혼이 주의 성령과 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늘나라에도 가볼 수가 있는 것이다. 바울은 셋째 하늘, 곧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였다.(고후12:2) 그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는 바울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간 영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물론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와 한 영이 이루어진 자에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감동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인간이 눈을 뜨고 있을 때 그 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잠들어 있을 때 감동을 받는 경우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3:16)이라고 한 이 감동은 여호와께서 성경 집필자들의 혼을 당신의 성령으로 감동시킨 전자의 경우며,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설교로 한꺼번에 3천 명을 전도한 것도 여기 속한다. 그

리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異像)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민12:6)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여기 ‘이상’이란 잠을 자든, 안 자든 하늘에서 영으로 보여주는 광경을 말한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1:12-16)

여기에는 초림(初臨) 때의 주님과는 판이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즉, 목수의 집에 태어난 초라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권세를 받으신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이며, 그 옷이나 띠 등은 당시의 대제사장의 모습과 유사한 데가 있다.

‘일곱 금촛대’란 일곱 교회를 상징하며, 이 교회들은 세상을 환히 비추기 위한 촛대이다. 이 촛대에 대하여 내가 이상 중에 본 바를 이야기하겠다. 하늘나라의 촛대를 자세히 보고 만든 사람은

모세지만, 나도 비교적 똑똑히 보았다. 그 촛대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강대상에 그려진 촛대와 비슷하였다. 즉, 밑에 둥근 받침이 있고, 그 위에 가지들을 세워놓고 감람나무 기름이 담긴 등잔들이 놓였는데, 거기 심지가 달려 불을 밝히게 되어 있었다.

이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은, 그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하여 분명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계1:20)를 가리킨다. 또한 ‘좌우에 날선 검’은 당시에 로마 병정들의 가장 예리한 무기로, 그들은 이것을 좌우로 휘두르면서 적을 무찔렀던 것이다. 여기서는 죄를 무찌르는 최고의 무기를 상징한다. 만일 오늘의 최대의 무기인 핵폭탄을 보여줬다면 요한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예리한 무기로서 로마 시대의 양쪽에 날선 검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그것은 권총 한 방도 당하지 못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1:17-20)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된 것은 빛이 너무 휘황하여서이다. 바울도 주의 빛이 둘러싸자 땅에 엎드렸으며, 그 여파로 다메섹에 가서도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행 9:3-4)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을 때, 해, 달, 지구, 별 등 모든 천체를 둥글게 지으셨다. 이 둥근 원은 처음도 끝도 없다. 즉, 처음이자 나중이고, 나중이자 처음이다. 그것은 하나의 완성체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으니, 주님은 완성체라는 뜻이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라는 말에서 당신이 곧 예수임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 사망은 죄에서 오고,(롬5:12) 죄는 욕심을 품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을 주관하는 것은 죄요, 죄를 주관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리고 ‘음부’는 죄 가운데 죽은 자가 갇혀 있는 어둠의 세계를 가리키며, 마귀가 주관한다. 거기는 빛이 없고 갇힌 영들이 벗어나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 음부에서 죄인을 건져내는 열쇠, 곧 권세를 갖고 있다.

‘일곱 별의 비밀’ — 여호와와 그 적대 세력과의 싸움에서, 서로 간에 비밀이 없을 수 없다. 그 가장 큰 비밀은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이지

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란 천사가 아니라 일곱 교회를 이끄는 목자를 뜻한다. 학개 선지자를 가리켜 ‘여호와와 사자’ (학1:13)라고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세례 요한을 ‘사자’라고 지칭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Chapter 02.

이긴자의 권능과 사명(1)



에베소 교회의 사자(使者)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受苦)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2:1-3)

2장에서 3장까지는 이긴자에 대한 특권과 사명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요, 또한 제일 큰 항구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모든 도로는 이 도시에 연결되어 교통의 요지로 소아시아에 오는 사람들의 관문이 되어 있었

다.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자유시(自由市)로 인정받아 자치(自治)가 허용되었으며, 인구 분포를 보면 원주민을 비롯하여 아테네의 이주민과 유대인, 그리고 희랍계 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죄자들도 상당히 들끓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 있었으며(행20:31) 디모데는 에베소의 초대 감독의 칭호를 얻었다.(딤후1:2)

이와 같은 에베소는 신앙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였으나, 오늘의 에베소는 폐허만 남아 갈대가 무성한 늪지대로 되어 버렸다. 가이스타 강에서 밀려오는 진흙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무위로 돌아가, 에베소의 옛 항구는 해변에서 10킬로미터나 밀려나 황무지가 된 것이다.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다. 즉, ‘네 행위’가 무던하다고 칭찬한 것이다. 여기서 ‘너’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가리키며, 그 행위는 주의 법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 움직인 모든 언동을 의미한다. 당시에 에베소는 자유시로서 로마 병정이 주둔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로마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부흥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목회자는 자기 신앙을 잘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에게 하늘의 도를 전파하여 믿음 가운데 이끌어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는 수고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

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다만 고생을 꼭 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핍박을 용감하게 감당해, 그것을 은혜와 영광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그 쓰라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것을 본받아, 무슨 일을 당하여도 참고 이겨 나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불 같은 성령을 받고 흠어져 전도하는 동안에 그들 앞에 가로놓인 애로와 고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때로는 토굴 속에서, 때로는 움막 안에서, 또 때로는 허허벌판에서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모든 고난을 이긴 보람이 있어, 각처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무리가,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던 서기관과 바리새교인 및 그 밖의 유대교인들까지도 입교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악한 자들’도 생겨났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란 적그리스도나 낡은 율법을 주장하는 이단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무리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가차 없이 잘라 버렸던 것이다. 또한 이런 무리들 중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도 섞여 있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베풀어 이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했으나, 나중에 한두 사람씩 순교를 당하여 지상에서 사라지자, 스스로 사도라고 나서서 떠들어 대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에게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

들을 시험하여 가짜 사도임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신도들이 그만큼 믿음이 두텁고 은혜가 많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사실들을 알고 칭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²⁾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4-5)

다음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으로, 그것은 다름 아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寓居)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레19:33-34) 이것이 곧 구약 시대의 사랑이다. 예컨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함께 사이좋게 살면 그를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와서 함께 사이좋게 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구약 시대의 법도를 대표하는 모세의 율법은 이런 조건부의 육적인 사랑을 가르쳤다. 즉, 자기편이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2) 처음 신앙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과 열정이 있는 순수한 사랑을 말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따르는 철부지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성숙한 신앙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사랑은 이와 다르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3-44) 다시 말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레24:20) 이것이 구약 시대의 법도이며, 자기편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의 사랑은 자기편은 물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왜 이와 같이 사랑의 차원(次元)이 달라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마귀와 싸우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구약 시대는 육과 육의 싸움이 전개되지만, 신약 시대는 인간의 혼을 놓고 양자가 겨루는 것이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적에게 한번 얻어맞으면 두 번쯤 때려야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적에게 얻어맞고도 가만있으면 하나님의 위신이 깎이는 것이다. 이렇듯 여호와와 마귀의 싸움에서 육이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되고, 육이 지면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원수를 사랑하면 지옥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을 어떤 이방 민족과 싸움을 시킬 때 적의 몰살을 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는 원수에 대하여 무자비하기 짝이 없고, 이웃에 대해서만 자애로웠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사랑의 차원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진다. “내가 사람의 방언(方言)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

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고전13:1-2) 이것이 곧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곧 성령을 놓친 것을 의미한다.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행2:1-3) 그 후 수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저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그 신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께서 에베소 교회의 목자를 칭찬한 것은 대수롭지 않은 외적인 일ियो, 그가 가장 소중한 사랑, 즉 성령을 잃었으므로 책망을 했던 것이다. 신약 시대에는 외형적인 행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이 성령과 무관한 인간의 소행이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초대 교회 때에 성도들끼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쓴 것(행2:44-45)은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된 사랑의 발로였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신도들은 이런 참사랑을 잃고,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능사로 삼아, 잘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으나,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떨어져 나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고 타일렀다.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신도들은 행위로는 닦할 것이 없을 뿐더러, 칭찬할 만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그토록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가 아무리 온전하여도 새 율법, 즉 자유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소리 나는 팽과리’에 불과하다. 일찍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자유의 율법을 저버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세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보다도, 성령, 곧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문제이다. 아무리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제까지는 나쁜 짓을 했어도 오늘 성령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어제까지 모든 규례를 잘 지켜 왔더라도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행했느냐 못 행했느냐 하는 회개가 아니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회개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도 놓치면 다시 받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

주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행위”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2장에는 ‘행위’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 즉, “내가 네 행위를 알고,”의 행위는, 모세 율법에 입각한 행위를 가리키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의 행위는, 자유 율법에 입각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서 착하게 움직이는 것이 모세 율법에 의한 행위라면,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 율법의 행위이다. 신약 시대에는 이 후

자가 소중하다. 그러므로 주께서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줄 알고 행동하라.”(약2:12)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주께서는 만일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다.(계2:5) 주님은 인간이 성령의 힘으로 사랑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성령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즉, 성령이 곧 사랑이요, 사랑이 곧 성령이다. 바꿔 말하면 참사랑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으면 참사랑을 하기 마련이다.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촛대는 제사 때에 필요한 것으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촛대를 교회의 대명사로 삼았다. 이 촛대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요1:5)는 말씀의 ‘빛’이 곧 주님이며, 어둠은 세상이다. 그러므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빛을 옮긴다는 뜻으로, 주께서 떠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黨)³⁾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⁴⁾에게는 내

3) 니골라당: 헬라어 니콜라는 ‘백성을 이기다’는 뜻의 히브리어 ‘발람’과 뜻이 같다.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기는 자: 주께서 감람나무로 쓰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을 말한다. 감람나무가 둘이므로 이기는 자도 둘이다. 주의 말씀에 의하면, 첫 감람나무는 열성을 보고 택하셨으며, 둘째 감람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섬기는 자세가 변치 않음을 보고 인정하셨다.

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2:6-7)

주께서는 당을 짓는 무리에 대하여 미워한다고 말씀하였다. 부활하신 주님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미움을 품었다. 당이란 교회에서의 모든 분파 작용을 가리킨다. 교회에는 자고로 이와 같은 폐단이 종종 있었으며,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었다.

니콜라당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그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계2:15)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니콜라당 사람들이 발람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같은 부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계2:14) 니콜라당이란 니콜라우스의 추종자들을 말하며, 사도행전에 보면 니콜라우스는 안디옥의 개종자(改宗者)로서 집사였으며(행6:5) 정통적인 신앙을 떠나 이단자가 되었던 것이다. 버가모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들 무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을 하게 했다.”(계2:14)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니콜라당은 신성한 교회 안에서 세상과 짝하여, 다른 신도들을 걸길로 이끄는 역사를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미워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도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는 자’의 재앙에 대하여 경고하고(롬2:8) ‘당을 짓고 … 수군수군하는 것’을 배격하였다.(고후12:20)

여기 분명히 주님은 이런 가로막는 역사를 미워한다고 잘라서 말씀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미워하는 일을, 인간이 좋아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당을 짓는 무리도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께서 싫어하는 일이라면, 큰 범죄가 되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설령 인간의 견해로는 주님에게 합당한 일같이 생각되어도, 주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기 대에는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애를 써도, 주께서 외면하면 헛수고가 될 뿐더러, 큰 범죄가 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서 니콜라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런 이치를 알았을까? 몰랐던 것이다. 알았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알 수 없었을까?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은혜는 연결시켜 줘도, 바울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늘나라의 사정을 직접 가서 목격할 만한 주의 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총독 스룹바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호와께서 이 두 분을 특별히 기억하기는 했으나, 결코 동행하시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경우에는 선지자 학개나 스가랴를 통하기 마련이었다. 에베소 교회에 주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만한 주의 종이 있었다면, 구태여 사도 요한을 들어 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속4:6)

그러니까 인간이 1년 36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지시가 간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아무리 왈가왈부해 보았자, 보고 듣고 받은 자 이외에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하늘의 일은 땅의 일과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주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했는데, 여기 이 ‘귀’는 물론 땅의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리킨다. 즉, 그것은 육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이다. 율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異像)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욥33:15-16) 이 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이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욥34:2)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나 ‘지식 있는 자’란 세상 지혜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을 헤아리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여호와께 기울이는 귀가 그 매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성령)을 받은 자라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정도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진다. 유명한 대학자도 영의 세계를 모

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음에 ‘이긴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1:7) 여기 ‘이긴다’는 말은 영, 육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긴 경우이다.(창32:28) 하나님과 마귀가 육적인 싸움을 전개하던 구약 시대에 야곱이 천사와 겨뤄 이겨 여호와와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피땀 어린 노고가 계속되었던 것이며, 이를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노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여간 힘에 겨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으로 이긴 것이다.

또 하나 이긴 경우의 대표적인 것은 주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요16:33)는 승리이다. 이때 이긴다는 것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일에 일체 물들지 않고 당신의 사명을 다한 것을 말한다. 만일 세상일에 조금이라도 져면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다. 주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쁨을 잃지 않았으며, 끝까지 당신의 큰 사명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승리이다.

주님의 경우와 같이, 계시록의 ‘이긴다’는 의미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경우를 말한다. 즉, 지상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단계에 이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긴자는 발은 비록 땅을 밟고 다녀도 하나님의 법도

와 율례를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생각과 말과 움직임이 여호와 뜻에 매어 하늘의 것으로 화할 때 비로소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로써 난 자라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요일5:4-8) 이 성령과 물과 피 중에서 오늘은 주의 피권세가 역사하며, 여기에 불과 생수(속14:8)와 이슬(호14:5)의 은사를 내리는 자가 곧 이긴자이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낙원’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이 낙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살던 에덴동산이고, 또 하나는 주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는 낙원이다. 전자는 흠과 티가 없는 인간, 즉 영체(靈體)가 사는 곳이고, 후자는 죄인이 죄를 씻고 사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생명나무 과실’은 무엇인가? 이 생명나무 과실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에덴동산의 생명나무 과실이요, 또 하나는 천국의 그것이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땅에서 여호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창2:8) 이 당시의 아담과 하와는 형체를 입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존재였다.(창2:7)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피조물로서 조물주인 하나님과는

같을 수가 없다. 형상은 같았으나, 질적으로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즉 먹고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지으신 것이다. 즉,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만드신 것이다. 이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과실은 요컨대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적(靈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과실이 아니라, 영체로서의 인간이 먹는 양식으로, 여호와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과실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며, 이 과실은 결코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그런 과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체인 아담, 하와가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과실이다.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온량(溫良)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잠15:4) 온순하고 선량한 혀, 즉 말에 실수가 없게 되면, 영생을 누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잠3:18) 지혜가 힘이 되어 영원히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가 생명나무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이 과실은 어떻게 먹는가? 그 과실은 맛만 느낄 뿐, 소화시켰다가 배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의 진액이 될 뿐, 배가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먹는다기보다 마신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생명나무 과실’은 죄짓기 이전의 아담, 하와가 먹던 그런 과실이 아니라, 죄인이 죄 씻음을 받고 사는 낙원에서 먹는 과실이다. 이 과실 역시 우리가 흔히 입으로 먹는 그런 과실이 아니라, 영적(靈的)인 양식으로, 이것을 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므로,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48-53)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긴자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 즉 생명 과실이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2천 년 전에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승천한 주님을 불러다가 각을 떠 그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먹인다는 말인가? 이걸 두 말할 것 없이 외람된 망발이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나는 앞에서 이긴자에게 주는 생명나무 과실도 영적인 양식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 이 과실, 곧 주님의 살과 피는 영적인 양식,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이긴자에게 주어서 못 사람에게 부어주고 씻어 주게 되어 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손길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실제로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긴자에게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으며, 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 줄 수 있다. 이걸 물론 내

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요14:16-17) 이긴자에게 주는 생명나무 과실이 곧 주의 살과 피로 말미암은 영적인 양식일진대, 그것은 이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다. 그럼 왜 이긴자에게 이런 진리의 영을 갖게 하시는가? 그건 이긴자에게 그 영을 독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못 사람에게 나눠 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영은 그냥 힘써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긴자를 통하게 되어 있다.(계 21:6-7 참조) 그에게 여호와께서 물 분듯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이 은혜의 양식을 필요로 한다. 죄 씻음을 받아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낙원이면서도 에덴동산과 천국은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양식도 다르게 마련이다. 그럼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생명나무 과실과 죄인이 먹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 과실은 어느 것이 더 강한 위력을 갖고 있겠는가? 물론 죄인이 먹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 과실이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횡단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인 적이 있다. 이 하늘의 양식은 먹고 소화하여 배설하는 그런 양식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에덴동산의 과실과 천국의 과실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 다만 전자는 육이

죽는 대신에, 후자는 영이 죽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죄 씻음을 받은 자는 물론,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다. 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善惡果)를 먹으면 죽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귀의 짓이기 때문이다. 영생하는 요소가 들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는 마귀가 만들어 놓았다. 마귀는 창조력은 없지만 모방력이 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 술객들도 곧 모방하여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출7:10-12)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요소와는 정반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먹으면 곧 죽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독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던 것이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2:8-9)

서머나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아시아의 꽃’이라고까지 불렸다. 이 도시는 항구로, 전쟁이 벌어지면 입

구가 작아 성문 빗장만 가로질러 놓으면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으며, 시 뒤쪽 파고스 언덕에는 신전을 비롯하여 웅장한 건물들로 덮여 있었다.

이 도시는 기원전 천 년경에 희랍의 식민지로 건설되었으며, 기원전 6백 년경에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파멸되어, 약 4백 년 동안 쓸쓸한 촌락으로 남아 있다가, 기원전 2백 년경에 루시마쿠스가 이 도시를 재건하였다. 그 후 이 도시는 어느 다른 도시보다도 로마에 충성을 하여, 로마 군인들이 일선에서 추위에 떨 때 서머나 시민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보낼 정도였다. 그리하여 주후 26년 디베리우스 신전을 짓는 영예를 얻으려고 여러 도시가 경쟁할 때 서머나가 선정되었다. 이 도시에는 이 디베리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제우스, 아폴로를 비롯하여 많은 신전들이 꼭 들어찼으며 정치, 경제, 문화도 크게 발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 도시의 시민들은 언제나 서머나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환란과 궁핍’ —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에는 언제나 검이 노리고 있었다. 총독이나 폭도들이 언제든지 기독교도들을 해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이들 폭도는 관권을 등에 업어 기독교도를 탄압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당시에 다신교도(多神敎徒)인 이방인들의 일부는 유대교를 믿기 시작하여, 그 가르침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여도, 유일신(唯一神)의 교리에 적지 않은 매력을 느꼈으며, 유대인들이 윤리를 숭상하는 데 은연중에 감화를

받게 되었다. 특히 일부다처(一夫多妻)가 오랜 습성으로 답습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문란한 성도덕에 비하여, 유대교의 가르침은 상당히 엄격한 데가 있었다. 그래서 부녀자들, 특히 정부의 고관이나 부유층의 부녀자들은 유대교를 많이 신봉하게 되었으며, 유대교도들은 이 부녀자들을 통하여 정부 관헌들과 선이 닿아 기독교도들을 탄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궁핍’에 대하여는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당시의 기독교도 중에는 사회적으로 제일 하류층에 속하는 노예가 많았다. 또 하나는 때때로 교인들은 폭도의 습격을 받아 재산을 빼앗기곤 하였다. 이것은 당시 서머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본문에 이와 같이 궁핍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부요하다.”고 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육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하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라는 말 그대로이다. 독일의 어느 문학자(릴케)는 “시인은 가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 가난하다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자칭 유대인’ —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기독교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었다. 서머나 교회가 유대교인을 많이 개종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 즉

자기네가 정통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내세우고 여호와와의 회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민16:3)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사단의 무리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핍박을 주는 쪽이 언제나 마귀의 편이요, 당하는 쪽이 여호와와의 편이기 마련이다.

유대인들은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일삼았다. 즉, ①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가르침을 꼬집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食人種)과 같은 무리라는 것이고, ② 기독교도들이 장차 지구가 불로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믿으니, 방화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며, ③ 가이사를 ‘주’라고 하지 않으니, 요경계인물(要警戒人物)이라는 것이고, ④ 아무 신상(神像)도 세우지 않고 예배를 보니 무신론자(無神論者)라는 것이며, ⑤ 사랑을 주장하니 방탕아라는 것이고, ⑥ 기독교인의 가족 중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니 가정 파괴자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불찰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좀 더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알아보았던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⁵⁾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5) 시험과 관련된 숫자다. 또 죽임을 당한 감람나무가 부활한 후에 그 성 10분의 1이 무너

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하리라.(2:10-11)

여호와께서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예고하고 있다. 10일 동안 옥에 갇히게 되리라는 ‘10일’은, 구약 시대부터 전해 오는 일반적인 생활 습성에서 나온 말이다. “다니엘이 말하되, ‘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菜食)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珍味)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고 종들을 처분하소서.’”(단1:12-13)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 신하로 있을 때,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 사이에 10일 동안 내기할 것을 환관장에게 제의한 말이다. 이와 같이 10은 시험을 의미하는 수로 쓰이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 — 이 면류관도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육의 세계에서 머리에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늘에서 왕 권세를 받게 될 자들에게 주시는 의(義)로운 면류관이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4:8)와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다니엘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단12:3)고 말한 바와 같이 지혜로 의로워져서 생명, 곧 영생을 얻은 자가 쓰는 면류관으로, 그

진다거나,(계11:13)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열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계13:1)은 10이 시험, 환란, 적의 권세 등에 쓰였음을 보여준다.

로 인해 영광이 별처럼 빛나는 것이다.

‘둘째 사망’ — 인간은 혼과 육신을 갖고 있으며, 주님은 “육신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씀은 죽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그것이며, 전자는 육신의 멸망이요, 후자는 영혼의 멸망이다. 우리가 늙거나 병들어 죽는 것은 육신의 사망, 곧 첫째 사망으로,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 (사51:13)에서 ‘너를 멸하는’ 경우가 그것이며, ‘몸을 죽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사망은 마귀가 자기 권세 아래 두는 사망이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영을 해치지 못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다. 그럼 하나님은 첫째 사망을 주관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비근한 예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첫째 사망은, 하나님이 마귀를 앞세워 예정하신 뜻을 주관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첫째, 둘째 사망을 다 주관하는 반면에, 마귀는 첫째 사망만 주관한다. 그래서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였다.(마10:28)

그리고 첫째 사망을 당한 자는 다시 둘째 사망을 받게 될지 아닐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른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서 제외된다.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계20:10)의 경우가 둘째 사망이며,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에 던지우니라.”(계20:13-14)의 경우가 그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고전15:16-17)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位)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을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2:12-13)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상당히 유명하였다. 기원전 282년에 이미 셀레우씨드 왕국의 수도였으며, 후에 아탈루스 3세가 죽기 전에 자기 왕국을 로마에 합병하라는 유언에 따라, 로마는 버가모를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삼아 왔다. 그리하여 행정적(行政的)으로는 물론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버가모는 희랍 신을 숭배하여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신전들이 들어서고, 또한 아시아에서 로마의 가이사(황제)를 가장 잘 경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란 주님을 가리키며 ‘사단의 위’란 버가모의 가이사 경배 열도가 대단한 데서 나온 말이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황제 경배의 중심지로,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즉 기원전 29년에 가이사 신을 위한 신전이 이곳에 건립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가이사 숭배를 강요하여, 이들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런 환경을 지칭하는 것이다.

안디바 — 성령을 받아 신앙이 독실한 믿음의 형제로, 터툴리안의 전설에 의하면, 그는 늦쇠 가마 속에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을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2:14-16)

극히 어려운 여건 아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버가모 교인들에 대한 책망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은 모세 시대의 자칭 예

언자로서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이다. 그는 모압의 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간음을 묵인하도록 왕 발락에게 제안하였는데, 이 두 가지 범죄는 버가 모 교회에 여전히 자행되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요컨대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풍습과 예절을 숭상하라고 권장한 것이다. 즉, 세상을 기독교의 정결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세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신앙의 곧은길을 가려는 성도들을 곁길로 오도하는 무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 이들 적대 세력을 무찌르는 싸움에 사용되는 무기가 곧 주의 ‘입의 검’이다.

그럼 ‘입의 검’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4:12) 하고 기록되어 있으며,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6:17)고 하였다. 그러니까 ‘입의 검’이란, 입의 말씀을 가리키며, 이 말씀, 곧 검에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시키고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⁶⁾를 주고, 또한 흰 돌⁷⁾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2:17)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이 말은 주께서 성경에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 또 이와 표리(表裏)가 되는 말씀으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인간이 이성(理性)의 힘만으로는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 하더라도 단지 지성(知性)에만 의지하여 성경을 읽을 때 거기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요컨대 과장된 신화나 전설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수박 겉핥기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에 성령의 힘이 더해져야 한다. 이런 경우를 “눈이 열린다.”고 한다. 이것이 여타의 책과 성경이 다른 점이다.

그리고 ‘듣는 귀’도 마찬가지이다. 신령한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들으려고 해도 역시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리 유식하고 이해력이 빨라도 신령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성령의 힘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귀

6) 첫 감람나무인 박태선 장로는 성도들에게 감추었던 만나, 즉 주의 보혈을 부여하는 역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흰 돌을 받지는 못하였다. 새 이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7) 두 번째 감람나무인 이영수 총회장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

가 뚫렸다.”고 한다. 하긴 예술 같은 것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옳은 말이다. 피카소를 이해하려면 그만한 눈이 열려야 하고, 베토벤을 알아들으려면 역시 그만한 귀가 뚫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령한 말씀의 경우와는 다르다. 어지간히 소양이 있으면 훈련에 의해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령한 말씀을 보고 듣는 데는 이런 소양이나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령이 어떤 계기로 위에서 임하는 즉시 영의 세계를 알게 되어 있다.

다음에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였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내린 하늘의 양식으로서의 만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먹듯이 먹고 배가 부르며 소화를 시키는 육의 양식이지만, 이 계시록의 만나는 먹는 것을 느끼지는 하는데, 배가 부르지 않고 따라서 소화도 시키는 일이 없는 영의 양식을 가리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48-54)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하나로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다른 아닌 ‘감추었던 만나’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도 이 감추었던 만나를 상징하여 주께서 세

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즉 제자들과 저녁을 나누면서 떡을 떼어 주고 포도주를 따라 놓고는 이것이 ‘내 피와 살’이라고 하시며 나눠 주신 전례를 따라, 이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에 불과하다. 감추었던 만나는 이긴자가 나타나야 주게 되어 있으므로,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세 단계로 내린다. 즉, 불과 생수와 이슬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에게 임한 불 같은 성령은 그 한 단계이다.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요7:38)고 하였으며, 호세아서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호14:5)라고 했다. 감추었던 만나는 이긴자를 통하여 많은 성도가 이 만나의 맛을 실제로 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실제로 되어야 이긴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종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만나의 맛을 느끼는 데도 순서가 있다. 우선 불 같은 성령이 임한 연후에 이 만나의 은총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의 영적인 체험은 만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지작업(整地作業)이다. 이 경우에 머리, 배, 가슴 할 것 없이 뜨거워 오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악의 세력이 물러갈 때, 신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에 물의 성령이 임하는 단계로,(요7:38) 머리와 몸에서 생수가 흘러 시원한 느낌을 주는가 하면, 백합꽃 냄새와 같은 향취를

맡기도 하며, 목구멍이 달콤해 오기도 한다. 여기까지 이르면 믿음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된다. 사람이 괴로움이나 고민을 당하여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입안에 독소가 생겨나서 씹씹함을 느끼게 되며, 소화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의 의학이 입증하고 있다. 영의 역사라고 해서 정신이나 육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끝으로 피권세로 말미암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로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호14:5) 이 은혜 단계에 이르면 처음에 머리에서 시작하여 얼굴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때 눈에 제일 강하게 임하게 마련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슬비가 내리는 것을 느끼고, 온몸을 씻어 내리는 듯한 감각이 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영의 귀가 열리면 이슬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와 같은 은혜 체험은 각자의 기질과 성격, 그리고 애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감추인 만나가 자기 몸에 내리는 것을 여기 모인 여러분은 거의 다 체험하였을 것이다. 이 만남의 은총으로 입안이 달콤해지면 50%의 은혜 단계에 이른 셈이며, 좀 더 노력하여 70%의 은혜 단계에 이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어 나를 주께 맵소서.”라는 찬송가는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되려면, 여기 비례해서 마귀의 훼방도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일단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

지 못하고 쏟아 버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즉시 회개하여 빨리 은혜줄을 되찾도록 힘쓰는 일이다. 이것이 곧 ‘선한 싸움’이다. 그리하여 은혜가 떠나면 되도록 공백 기간을 단축시켜 바로 회복해야 한다. ‘이기는 생활’이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에 이긴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흰 돌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돌에 대한 기록이 많다. 즉,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흠으리라.”(마21:44)의 돌이나, 사도행전의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행4:11)에 나오는 돌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서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며,(슌4:7) 다니엘서의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돌은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가리킨다.(단2:44)

그 다음 스가랴가 말한 돌, 즉 일곱 눈이 박힌 돌(슌3:9)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릴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역할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계5:6 참조)

그리고 여기 계시록에 앞으로 이긴자에게 주는 흰 돌을, 이들 돌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흰 돌도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광의 주님을 가리키며, 새 이름을 선명히 기록하게 되므로 흰 돌이라 하였다.

그럼 새 이름은 또 무엇인가? 이 새 이름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즉,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義)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히7:2-3) 멜기세덱은 실제로는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 왕이지만, 그 이름을 번역하면 그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명칭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기록한 새 이름도 김 서방, 박 서방 하는 이름이 아니라, 만세 전에 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숨은 경륜을 의미하는 것이다.(고전2:7 참조)

앞에서 말씀드린 흰 돌이란, 주님께서 이긴자에게 맡겨 주시는 또 다른 돌이며, 이 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은 여호와께서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리하여 이 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못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는 동시에, 감추었던 만나도 아울러 부어주게 되어 있다. 요한이 계시를 받고 가장 중요한 일곱 우레에 관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것만은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계10:4) 그 내용은 기록할 데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흰 돌에 기록하여 못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전하게 마련이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2:18-19)

두아디라는 교통의 요지로 버가모와 사데를 잇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소아시아와 동방 여러 나라 산물의 집산지이므로,
상업 도시로 발달하였고, 특히 모직물의 거래가 많았다. 이 도시
에서는 희랍 신을 극진히 섬기지 않아 교회에는 큰 박해의 위험
이 따르지 않았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모습은 위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
오는 천사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거기 보면 천사를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다.”(단10:6)고 기록
되어 있다. 불꽃같은 눈은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만상을 꿰뚫
어 보는 날카로운 능력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불꽃은 타오
르는 불꽃이 아니라, 모세가 호렙 산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불꽃
으로,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눅3:1-3) 아니, 이 불꽃에 마귀가 녹
아 없어지는 것이 마치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눈 녹듯 한다. 그리
고 주석 같은 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신도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열심이
였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20-23)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였더니,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였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거명한 이세벨은 구약 시대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연상케 한다. 성경은 여자 선지자가 여럿 있었다는 것을 전해 주고 있다. 구약 시대의 미리암(출 15:20)이 그렇고, 드보라,(삿4:4) 홀다(왕하22:15)가 그러하며, 신약 시대의 안나(눅2:36)와 빌립의 네 딸들(행21:9)이 그렇다.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미모에 구변도 상당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녀는 이렇듯 성도들을 꾀어 세상과 짝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서 행음은 남녀의 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생각된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주님은 (이것은 예레미야서 11:20의 인용으로 하나님의 특권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그대로 이양되어 있다.) 그녀와 곁길에 들어선 무리들에게 일단 회개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각자의 행위대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2:24-25)

‘사단의 깊은 사정을 모르는 너희’라는 말은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명심해야 할 구절이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절대 권능에 비해, 사단의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간주하기 쉽다. 이것은 큰 오산으로,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는 안이한 신앙 자세는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꾀술과 권세가 막강하여 하나님의 만만치 않은 적수(敵手)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 ‘이 교훈’ 곧, 이단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고 있는 교인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간직해 나갈 것을 유일한 ‘짐’(과제)으로 알라고 당부하고 있다.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한다.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요일 4:1)고 하였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鐵杖)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2:26-29)

이 장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으로 끝맺고 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이긴자라고 해서 반드시 주의 일을 다 이룬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이기고 또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이긴자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성질의 것이다.

그럼 이긴자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킨다, 즉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긴자가 14만 4천이라는 의로운 자들의 수를 채워 주님이 오실 여건을 마련하는 사명을 의미한다. 이긴자란 죄를 벗은 자이며,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도 이긴자임에 틀림없으나, 그럴 경우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주어지지 않다. 만국은 마귀가 멸망 받은 후에 14만 4천의 왕이 다

8) 원어는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이다. 이겨야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이다.

스리는 왕국을 말한다. 그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게 되어 있다.(계19:6, 고전15:24)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서 단번에 당신을 산 제물로 드려 인류를 구속하는 길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승천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그 경우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고,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특권이 부여되지 않을 뿐이다.

죄에서 벗어나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룬 그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 철장으로 ‘저희’ 즉,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게 마련이다. 이 철장은 곧 ‘보혈의 철장’으로 하나님과 마귀의 3차 전쟁 때 요긴한 것이다.(계19:15)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역사해 오신 것은 오직 이 철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전쟁 때 모세는 나무로 된 지팡이로 다스렸지만, 3차 전쟁 때에는 쇠로 된 지팡이로 다스리게 된다. 그만큼 영적인 권능이 강화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3차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 무저갱에 있는 만국의 마귀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소탕시켜야만 비로소 영원한 하늘나라가 탄생된다. 만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한다면 하늘나라를 세워 봤자 소용이 없다. 마귀에게 다시 먹히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긴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주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 기이한 별이 나타나 그 위대한 탄생을 증거하고 사라졌다.(마2:9)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에도 하늘에 그런 징조가 있으며, 또한 그것을 주께서 당사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받은 자 밖에는 알 수 없다.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단12:3)고 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벽별은 주님을 가리킨다.(계22:16) 시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시2:8-9)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너’란 주님을 가리킨다. 이기고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룬 자에게도 주께서 같은 권세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 새벽별, 곧 주님이 당신의 권능을 맡겨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하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듣는 귀가 마련되지 못하면 들어도 모르게 되어 있다.

그런고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주님과 같이, 주님에게서 이러한 권세를 받는 자가 이긴자인 것이다. 따라서 이긴자는 주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Chapter 03.

이긴자의 권능과 사명(2)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1-2)

사데는 루디아 왕국의 동방, 허무스 강 계곡 평야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모직물 교역으로 부유해진 도시이며, 양쪽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가로막아 적의 침공을 막기에 천연의 좋은 지세(地勢)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도시는 페르시아의 싸이러스의 침략으로 2백 년 동안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다가 알렉산더의 지

배를 받고, 이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아, 그 순회 재판의 도시가 되었다. 그리하여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여전히 부유한 도시 이기는 했으나, 유명하던 성벽은 퇴락하여 하나의 고적에 지나지 않았다. 사데 시민들은 두 번이나 자기들의 성을 적에게 빼앗기고 타락한 가운데 살아갔으며, 교회 역시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갈 정도였다.

이 교회는 일곱 영, 즉 일곱 가지 은사를 가진 성령과 일곱 별, 곧 일곱 교회의 사자를 거느린 그리스도가 사데 교회에 하는 말이, 명색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하고,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니까 겨우 남아 깜박거리는 믿음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3:3-4)

주께서는 사데 교회 권속들에게 믿음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일찍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잘 반성해 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갑자기 임하여 저주의 채찍을 내리겠다고 아울러 경고하기를 잊지 않았다. 빛의 아들에게는 주가 미리 알게 임하지만, 주의 말을 순종치 않는 어둠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데 교회는 이단의 휘방도 외세의 공격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교회가 외부의 박해나 비방을 받지 않고 조용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무기력하여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살아 있는 교회는 항상 마귀가 주목하며, 따라서 이를 휘방하려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데 교회의 몇몇 교인은 아직 ‘흰 옷’을 입고 동행(同行)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 흰 옷은 주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은 자가 입는 옷으로,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세마포 옷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계 19:13)라는 세마포 옷 말이다. 그러나 같은 세마포 옷이라도 구약 시대의 그것은 영의 옷이 아니라 육의 옷을 가리킨다.

“자기 인장(印章)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창41:42) 여기 ‘자기’란 바로를 가리키며,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 총리로 삼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세마포 옷은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여기서는 총리 요셉이 실제로 육신에 걸친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

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3:5-6)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생명책’이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의로운 자의 명단이 기록된 하늘의 문서로, 이 문서에 의로운 자를 기록하고 안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권한에 속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승천하신 후,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는 세 번째 전쟁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은 주님이 하시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주를 자주 부르고 찾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지나 영원한 그 나라가 임하면, 주님은 여호와에게 그 영광을 다시 돌려 드리게 되어 있다.(고전15:25 참조)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시 69:28) 여기 보면 생명책에는 의로운 자의 이름이 오르게 되어 있으며, 의인도 죄에 빠지면 이 책에서 도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세도 괴로움에 못 이겨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출32:32)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 주셨을 것이다. 저간의 소식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異像)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민12:6-8) 이것은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을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책망했을 때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婦女)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同役者)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4:3) 이 말씀에 의하면 주의 종과 함께 힘써 주의 일을 한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시40:7-8) 내가 이상 중에 본 바에 의하면, 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 기록한 이름이 제일 크고 뚜렷하며, 나중에 갈수록 작고 희미하였다. 하나님의 종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의 위치와 크기에 의해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생명책은 이를테면 하늘나라의 호적과 같은 것으로, 세상에서 호적에 일단 이름이 오르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아 납세와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참정권(參政權)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보유하며, 나라의 보호를 받아 외적과 도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것처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 동시에, 만일 결길로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벌을 준 후에 생명책에서 지워 버린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일정한 형벌이 내려지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그 이름이 탈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는 주의 혼인잔치에 초청될 자가 많지만, 곧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년세계가 다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일단 심판을 받은 후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내가 이상 중에 본 바에 의하면, 이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장소는, 비유해 말하면, 마치 큰 체육관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양옆에 보좌가 놓였으며, 그 아래 좌우가 각각 12개씩 24명의 장로들의 좌석이 마련되고, 그 아래 14만 4천의 왕의 자리가 죽 놓여 있다.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공로를 칭찬하시고 천사가 안내하여 자기 보좌에 앉는다. 바울이 자기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뿐이라고 말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기까지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도 이런 광경을 이상 중에 목격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

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노라.”(3:7-8)

빌라델비아는 기원전 150년경에 버가모를 통치한 아탈루스 2세의 치하에, 버가모에서 식민지 통치자들의 손으로 세워진 변방 국경 도시로, 무시아, 루디아, 그리고 브루기아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었으며, 이 도시를 세운 목적은 루디아와 브루기아에 희랍 문명을 전파하려는 데 있었다. 이 도시는 유명한 포도주의 생산지이기도 하여, 후일에 큰 도시가 되었으며, 터키인들과 마호멧교가 소아시아를 휩쓸 때에도 이 빌라델비아만은 곳곳이 버티었다. 이 도시는 아시아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로, 그 믿음의 열의로 보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하기도 하였다. 이 교회에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11:1) 여기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즉 다윗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곧 후손이 나서 구속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이를테면 주님의 육적인 가계를 예언한 말이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사22:22) 다윗의 집, 즉 하나님의 권속들을 구속하는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멘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루는 자가 다윗집의 열쇠를 받게 되는

데, 이 열쇠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와는 다른 주님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의 전용 열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요14:6)는 중보의 열쇠이다. 따라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8-19)고 한 열쇠와는 다르다. 이 열쇠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이 거둘 수도 있는 것이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 곧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문, 따라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이 교회의 신도들이 적은 능력을 받고도 주의 말씀을 지켜 그 계명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여호와께서 은사를 적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독실하게 지켜 나갔던 것이다. 이것은 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 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3:9-11)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 중에서 몇 명을, 믿음이 독실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어 무릎을 꿇게 하는 동시에,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한 것과는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 즉 세상 사람들이 당할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심 말고 네가 가진 작은 은혜를 굳게 간수하여, 네가 받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주께서 속히 임하겠다고 약속은, 마귀를 발등상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마귀는 여호와와의 만만치 않는 적수(敵手)인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城),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3:12-13)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출24:4)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지파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하였다.(딤펢전3:15) 여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즉 중심인물이 되게 하고, 언제까지나 이 성전에서 나가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즉,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말한 것처럼, 언제나 거룩한 곳에 거하게끔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였다. 여기 이름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이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성경에 알려진 대로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한 크신 경륜과 사단이 알지 못하게 감춰진 하늘의 도(道)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즉, 새 예루살렘도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예루살렘은 이사야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사52:1) 하고 외친 그 예루살렘이요, 바울이 “이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갈4:25-27)고 말한 자유의 예루살렘이다.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밝히고 있다.(계21:9-10) “이긴자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려 주신다는 뜻으로, 이것은 그의 사명이 곧 하늘 군병인 어린 양의 아내를 배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주님의 새 이름’

도 하나님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새 세계 창조의 깊은 내막을 이긴자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 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3:14-16)

이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250년에 수리아의 안디오쿠스가 세우고, 아내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도시는 동양에 이르는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어, 상업이 발달되고 또 전략상으로도 매우 중요시되었다. 그 후 기원전 61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대파되었는데, 시민들은 워낙 부유한데다 독립심이 강하여, 로마의 원조도 거부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재건하였다.

주님은 일곱 교회에 당신 자신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교회마다 믿음의 정도와 놓인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께서 당신을 먼저 ‘아멘’으로 표현하였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사65:16)

이라고 하였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며 그 언약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다.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주님을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다.”고 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요 1:1-3)고 기록함으로써, 주께서 창조의 대업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였지만, 여기서는 주께서 직접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칭찬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 그리고 이 교회 신도들의 신앙의 열도가 ‘차지도 않고 덤지도 않은’ 미온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 차지도 덤지도 않다는 것은, 요컨대 신앙 상태가 매우 무기력한 것을 말한다. 즉,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잘못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렇다 할 죄에 빠진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상태이다. 오늘날에도 돈푼이나 있고 근심 걱정이 없는 신도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가는 점잖은 태도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신앙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태도란 가장 배격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런 자들을 당신의 입에서 “토해 내겠다.”고 경고하였다. 토해 내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후부터는

은혜가 가지 않고 말씀이 끊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주리고 기갈” (암8:11)이라고 하였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별
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3:17)

이 말씀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 즉,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전자에 속하고, 그 후의 말씀은 후자에 속한다.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시민들은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이것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멀리하였다. 그러므로 육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영적으로는 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즉, 그 영은 매우 곤고하고, 생명길에서 떠났으니 가련하며, 은혜가 없으니 가난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 눈이 멀었으며, 몸은 비단옷과 금은보화로 장식했으나 영적으로 별거숭이나 마찬가지로, 딱한 일은 자기 자신이 그런 비참한 꼴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형편이다. 이것은 무지 중의 무지이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金)을 사서 부요

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 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3:18-20)

이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되어,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연단하는 이 ‘불’은 성령의 불이며, 사들이는 ‘금’은 빛나는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몸에 걸쳐야 하는 ‘흰 옷’은 주의 보혈로 씻긴 영의 옷이요, 보게 하는 ‘안약’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와 같이 권면하고 경고한 다음에, 회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회개란 진심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 시대에 자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신도들은 본의 아닌 죄과를 눈물 뿌려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주께서 동행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회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3:21-22)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말씀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만일 이 말씀을 육적으로, 즉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 의자에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이긴자까지 겹쳐 앉는다는 뜻이 되어 어색하기 짝이 없는 해석이 나온다. 하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으며,(행7:56) 또 성경의 다른 데도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한 것이 있다.(막16:19, 눅22:69) 이것은 주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계시며, 두 분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말로서, 예컨대 학교에서 교감 옆자리에 교무 주임이 앉듯이, 실제로 주님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 쪽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보좌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란 하나님이나 주님이 앉는 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의자를 포함한 하나의 그룹, 즉 체제 전체를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물론 앉아서 집무하는 의자가 있지만, 그 아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많은 부처 장관과 비서진을 거느리고 있으며, 국무총리도 대통령 곁에 붙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을 따로 가지고 그 아래 역시 각 부처 장관과 비서진을 거느리고 있다. 세상 나라의 체제도 이렇거늘, 하물며

영광스럽기 짝이 없는 하늘나라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하나님이나 주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무수한 천사들이 대령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보좌란 이 그룹 전체, 즉 그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다.

천년세계에서 왕 노릇하는 14만 4천의 의인의 보좌도 마찬가지이다. 각자 문 하나씩 들어가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한 그룹을 이룬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이들의 보좌가 큰 극장의 의자처럼 죽 놓여 있다면, 것처럼 따분한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이긴자에 대해서는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하셨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일찍이 피 흘려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아 새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불가불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전15:25) 우리가 오늘날 입 버릇처럼 주님을 찾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아 왕 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 되돌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게끔 되어 있다.(계4:10, 고전15:28)

여기 주께서 이긴자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긴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어 주님의 권세를 행사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계21:7 참고) 그렇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긴자가 주님이 될 수 없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긴자는 요컨대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하는
의인의 대표자 격이다.

Chapter 04.

하나님의 보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4:1-3)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께서 각 모양으로 일곱 교회들 사이에서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 장면은 하늘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 즉, 이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영음(靈音)이

들리더니, 장차 될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였다 .

‘하늘문’ — 주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으며,(막1:10) 에스겔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즉,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겔1:3)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니 보좌 위에 앉은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라.(4:4)

보좌 앞에 금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장로들 앞에서 통치한다고 하였으며,(사24:33) 열왕기에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왕상22:19)고 하였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위에 어떤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들에 대해서는 견해가 구구하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본 광경은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한꺼번에 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24반차로 나누었으며,(대

상24:7-18) 레위 지파들도 성전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24반차로 나누었다.(대상25:9-31)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24명의 장로는 이런 반차에 속한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세상 교회에서 장로라면, 그 교회의 운영을 맡아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는 하늘나라를 이끌어 나갈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천년세계에서 왕 노릇할 14만 4천의 의인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며, 큰 영예가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이긴자의 그것보다는 못하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7-28)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보좌는 12사도들이 차지하게끔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피로 맺어진 첫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이루어지며, 유다 지파인 다윗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리라는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을 길 예비자로 내세움으로써 초림주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일단 끝을 맺게 된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맺어진 둘째 언약은 이긴자가 의로운 자의 수를 채워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형성함으로써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일단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율례와 법도는 주님이 처음 오심으로 써 끝나고, 신약 시대의 모든 율례와 법도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써 끝나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어 역사하신 것은 아기 예수를 탄생시켜 구원의 길을 트기 위해서였으며, 신약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늘 군병, 곧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시킨 것도 이긴자가 나타나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전히 형성하여 낡은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초림주의 길 예비자 세레 요한이 성경적인 인물인 것처럼, 재림주의 길 예비자도 성경적인 인물로, 그는 예언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세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도 차원이 다르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水晶)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
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
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4:5-9)

요한이 이상 중에 본 하늘나라의 광경이 좀 더 선명히 나타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렛소리로 비유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늘 이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깊숙한 산골짜기를 고평히 흐르는 잔물결 같기고 하고, 부드러운 바람결을 타고 멀리서 은은히 들려오는 무슨 심포니 같기도 하다.

일곱 등불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우리는 이 일곱 영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계1:4) 일곱 교회에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같은 여호와와의 영도 이와 같이 일곱 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성령은 같으나 은사는 각각 다르다고 하였으며,(고전12:4-11)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요일5:8)라는 말씀도 성령의 이와 같은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란 하나님의 고귀성과 순결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에덴동산에 흐르던 생명수 샘과 같은 것으로, 맑기가 수정 같다. 시편에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시 48:8)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도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네 생물’이다. 이 네 생물은 계시록에서 언제나 보좌 근처와 어린 양 가까이 있으며(계4:6, 5:6, 14:3) 이들은 날개가 여섯이고 눈이 가득하며(계4:6-8)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여기 이 날개는 자유의 권세를 상징하고,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신령한 영안(靈眼)이다.(계4:8, 5:6)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겔1:10)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모두 자연계를 대표하고 있다. 즉,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사자는 짐승의 왕이요, 소는 가축의 우두머리요, 독수리는 새의 강자로, 이를테면 모든 피조물(被造物)이 한결 같이 그날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이다. 만유(萬有)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지음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음을 받은 만물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유를 상징하는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을 의미한다. 이들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며 하나님, 예수님, 이긴자는 3수를, 그 아래 네 생물은 4수를 나타낸다. 이 3수와 4수가 합하여 완전수 7을 이룬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

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
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
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4:10-11)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서 불가불 왕 노릇하던 주께서, 이 거룩한 도성에서는 영
광의 보좌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려, 이십사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게 되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는데, 이것은
환희와 감격의 절정을 표시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응원하다가 자기편이 이겼을 때 너무 기뻐서 모자를 던지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이 옷옷을 벗
어 길에 던진 것도 마찬가지이다.

Chapter 05.

봉인한 책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印)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獅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5:1-5)

이 장면은 4장의 계속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

리킨다. 요한 당시에는 많은 책이 두루마리 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을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매우 소중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귀가 알아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한 것이다. 여기서 ‘인으로 봉한다’는 말은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막는다,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적힌 책이요,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책이요,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아무나 뚫 수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기밀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 즉 전쟁을 위해 예비한 미가엘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펴고 그 인을 뚫 수 있겠느냐?” 하고 큰소리로 외치니, 하늘 위(여호와 보좌가 있는 궁창)나 땅 위 및 땅 아래에 그 책을 떼고 펼 만한 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감히 그 책에 손을 댈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원통해서 울었더니, 이십사 장로 중의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뚫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다 지파의 ‘사자’란 영적인 큰 인물을 가리키며, 일찍이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마지막을 축복할 때, 유다를 ‘사자의 새끼’(창49:9)라고 불렀다.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며, 주님 자신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계22:16)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사11:1)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는데, 여기 이긴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심을 의미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5:6)

여호와와 보좌 앞에 어린 양, 즉 주님이 등장한다. 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여러 번 ‘어린 양’이라 부르고 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요1:29)이라고 했으며, 이사야는 주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해 말하였다.(사 53:7) 이 어린 양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주님이요,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신 후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주님이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영광을 의미한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해친 나라들을 대표하는 네 뿔의 이상을 보았으며,(슌1:18) 모세는 요셉을 축복하여 뿔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신33:17) 그리고 선한 사람의 뿔은 명예로 높아지며,(시112:9) 한나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의 뿔이 높이 들려졌다고 하였다.(삼상2:1)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보내어진 성령을 가리킨다. 이것은 성경에 “여호와와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시34:15)의 눈이며, “온 세상에 두

루 행하는 여호와와의 눈”(속4:10)으로, 모든 것을 세밀히 통찰(洞察)하시는 영(靈)이다. 어린 양이 일곱 눈을 가지신 것은 스가랴를 통한 예언의 성취, 즉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것을 보여준다.(속3:9)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5:7-10)

여호와와 보좌 앞의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다. 즉, 모든 자연계와 신, 구약 시대를 망라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대표가 승리하신 주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세하여 주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때 이십사 장로는 각각 거문고를 치며, 금대접을 손에 들고 있다. 이 거문고는 사도 요한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이므로, 이것을 보여주

신 것이다.

만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광경을 이상 중에 보여주신다면, 그 약기는 거문고가 아닌 현대의 관현악기일 것이다. 그리고 금대접에는 하늘에 상달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호응해서 새 노래, 즉 구약 시대의 천군 천사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한 이후의 노래를 부른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계시록에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말들이 많이 나온다. 새 이름,(2:17, 3:12) 새 예루살렘,(3:12, 21:2) 새 하늘과 새 땅,(21:1) 그리고 새 노래 등이 그것이다.

이 노래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도, 육적 이스라엘의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을 말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사110:3-4) 하신 제사장이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히7:16-17) 하신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

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 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5:11-14)

이번에는 보좌와 네 생물들과 이십사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일찍이 다윗이 여호와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막대한 금은보화를 연보로 거둬들이고,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한 기도의 일부를 연상케 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대상29:10-12)

그리고 천지 만물의 합창의 소리가 들려왔다. 만유를 회복하여 새 하늘나라를 이뤘을 때의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생물들이 말하는 ‘아멘’이라는 찬미는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상은 하늘나라를 완성한 광경이며, 하나님과 주님에게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곁들여 있다.

Chapter 06.

인을 떼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6:1-2)

일곱 인으로 단단히 봉한 책을, 주께서 떼시는 장면이 앞으로 죽 나오는데, 이 장에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서 그 첫째 인을 떼었을 때의 광경이 나타난다. 인을 떼다는 것은 개봉한다, 즉 책장을 넘긴다는 뜻으로,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주께서 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네 짐승(계4:6)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처럼 우렁차게 오라고 하기에 요한이 가본즉,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 여기서 흰 말이란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흰 말로, 거룩함을 표시한다.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였다. 활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의 대표적인 무기의 하나이며, 만일 오늘날 이런 계시를 주신다면, 활이 아니라 다른 최신 무기를 보여주셨을 것이다. 이 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전쟁, 곧 성령과 악령의 싸움을 예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흰 말에 탄 이는 활과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였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은 것이다. 이 면류관은 두 번째 전쟁에서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인을 뺄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이길 마련을 한다, 즉 싸움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이 첫째 인을 뺄 때의 광경은 주님의 모습이 겹쳐 있다. 즉, 인을 떼시는 주님과 흰 말을 타고 ‘이기고 이기려는’ 주님이 그것이다. 인을 뺄 때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후의 주님이시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주님은 다시 전쟁을 해야 하는 주님을 말한다. 전쟁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

을 받아 땅에서 화평(和平)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6:3-4)

다음은 주께서 둘째 인을 떨 때의 광경으로, 첫째 인을 떨 때와는 판이하다. 즉, 둘째 생물과 붉은 말이 나타나며, 그 하는 일도 전혀 다르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계4:7) ‘붉은 말’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이 붉은 말의 움직임은 전쟁, 곧 두 번째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약4:7)고 말한 마귀와의 싸움을 말한다. 구약 시대의 싸움(사3:1, 대하20:15, 신4:34)이 첫째 싸움이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딤후4:7) 하는 싸움이 곧 이 두 번째 싸움이며, 천년왕국이 지나 무저갱의 마귀를 다 끌어내어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계16:16)이 곧 세 번째 싸움이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천사이며, 성경에도 “천사들을 부리는 영”(히1:14)이라고 하고, 미가엘 천사가 여호와를 도왔다고 하였다.(단10:13)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환란을 일으켜 큰칼을 휘둘러 대는 바람에 대살육전이 일어난다.

마태복음에는 이 환란에 대하여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마24:6)고 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

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6:5-6)

셋째 인을 뿔 때에는 셋째 생물, 즉 사람의 형상을 한 생물이 나타나며, 검은 말을 보여주었다. 검은 말은 흰 말과는 정반대로 어둠과 죄악을 상징하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사 9:2)는 ‘흑암’이 곧 이 어둠이다. 그리고 이 말에 올라탄 자도 역시 천사인데, 손에 저울을 갖고 있다. 이것은 ‘마음을 저울질하는’(잠 24:12) 저울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義)와 믿음의 척도를 헤아리는 것이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고 하였는데, 한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 은화의 단위이며, 당시에 일꾼 하루의 품삯이었다.(마20:2)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 하루 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겨우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돈 가치가 떨어지며, 식량이 귀해진다는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밀 열다섯 되쯤 살 수 있었으며, 보리는 값이 싸므로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었다.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主食)으로 먹는 곡식이며, 말세에 환란이 일어나 돈으로 곡식을 구하기가 어려워, 백성들이 몹시 곤경에 빠지겠으나 아직 끝장은 아니다.

그런데 이 환란 중에서도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였다. 감람나무는 모양이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으므로,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있는 자’(눅4:14) 곧 의인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 기름은, 의인 감람나무를 통하여 내리는 성령의 은총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께서 비유해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피로서,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요6:53)고 하셨다. 그런데 이 주의 피는 의인 감람나무를 통하여 이슬과 같은 은혜로 내리게 되어 있다.(호14:5) 이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사이다.(요16:7) 그러므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은 의인 감람나무를 통하여 주의 피, 곧 이슬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아 간직한 사람들을 환란 때에 보호한다는 뜻이다.

넷째 인을 뿔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6:7-8)

넷째 인을 뿔 때에는 넷째 짐승, 즉 독수리 같은 동물이 나타나서 요한을 오라고 부르기에, 가보니 청황색 말이 나타났다. 이 청

황색은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빛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망을 상징한다. 그리하여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에 곧 따르는 것이다.

음부(陰府)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지성소’와 대립되는 곳이다. 즉, 생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목 베임을 당한 자는 지성소에 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일단 음부에 가서 심판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주님이 ‘말씀’의 존재로 계실 때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모세, 그 밖의 아무리 큰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일단 죽으면 음부에 가 있다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 영혼이 지성소로 올라갔던 것이다.(마27:52, 계5:9

참조)

구약 시대에 영의 세계에 제일 깊숙이 들어간 다윗은 이런 깊은 이치를 진작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심이로다.”(시16:8-11) ‘주의 거룩한 자’란 예수님이시다.(막1:24) 그리고 주님은 이 음부에 대하여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1:18)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환란에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의 권세'로 살육전이 벌어지는데, 땅의 1/4의 권세를 얻어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부의 인명만 해치게 되는 것이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瘟疫)의 네 가지 형벌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겔14:21)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伸冤)⁹⁾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6:9-11)

넷째 인을 떼기까지는 네 생물과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다섯째 인을 떼 때부터는 생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 있는 영혼들이 대주재, 곧 주님께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증거’라는 말이다. 즉, 단

9) ‘원한을 풀다’, ‘보복하다’는 뜻이다.

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뿐만 아니라, 가진 바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자들이라고 하였다. 구약 시대에는 말씀과 계시(삼하 7:17)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의 거의 전부이고 성령의 역사는 희미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와 같은 증거를 더욱 분명히 받게 되었던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요일 5:10)고 하였으며, “성령이 각 성(城)에서 내게 증거하여”(행20:23)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 값을 받아 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호소하였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하나님을 극진히 공경하는 사람일수록 핍박이 심하여 신도들은 계속해서 곤욕과 목 베임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참다 못해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호소는 반드시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라기보다 새 나라가 어서 임하기를 바라는 심정을 더욱 많이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이들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흰 두루마기는 상징적인 말씀이며, 주의 아내가 입는 흰 세마포 옷을 가리킨다.(계19:8)

그런데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정부의 탄압 정책으로 날마다 순교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던 때이므로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반드시 순교해야만 그 반열에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주님을 맞을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살전4:17)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¹⁰⁾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無花果)나무가 대풍(大風)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軸)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¹¹⁾,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自主者)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6:12-17)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의 환란에 대하여 요한이 본 계시를 그림처럼 환히 묘사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다. 새 세계가 펼쳐지기 전에 낡은 세계는 송두리째

10) 말 털로 짠 두꺼운 담요. 검다는 의미로 쓰였다.

11) 이사야서에도 두루마리 말리듯 하늘이 사라진다고 하였다.(사34:4)

박살이 나는 것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신념이기도 하였다.

그 첫째가 큰 지진이며,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다. 가령 아모스서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땅이 진동한다고 했으며, **(암8:8)**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겔38:19)**

아무튼 지구상의 큰 지진에 이어서, 태양이 빛을 잃어 새까맣게 변모되고, 달이 핏빛을 띄며, 별들이 땅 위에 떨어지는 동시에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긴다 — 요컨대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우주는 태양을 중심으로 인력(引力) 가운데 움직이고, 지구를 비롯한 각 천체는 구형으로 되어 있으며, 우주 자체가 하나의 구 안에 들어 있다.

천문학에서는,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銀河)가 있으며, 하나의 은하는 천억 개 이상의 천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길이는 약 십만 광년(光年)이나 된다고 한다. 1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걸려서 도달하는 거리이니,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 천지 이변에 대해서도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아모스서에도 나오며, **(암8:8)** 달이 빛을 잃는다는 말은 이사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13:10)**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별들을 어둡게 하고, 태양을 구름으로

덮는다고 하였으며, (겔32:7) 마태복음에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24:29) 또한 이사야서에는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이 떠나게 한다고 기록했으며, (사13:13) 예레미야서에는 산들이 진동한다고 되어 있다. (렘4:24)

이와 같이 천지가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난리가 일어나게 되므로, 견딜 자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과 왕족, 장수, 부자, 종과 자유인 할 것 없이 공포에 떨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된다. 이런 환란은 8장에서 더욱 무서운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Chapter 07.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7:1-3)

6장에서 나타난 천지개벽의 무시무시한 광경을 요한이 본 후에 얼마 있다가, 다른 계시가 나타난다. 즉, 6장과 8장의 중간에 인 맞은 자들과 무수한 흰 옷 입은 무리에 대한 구원의 도리가 적혀

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나타난 것은, 이미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닥치는 네 바람’(단 7:2)을 가리킨다. 그리고 네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바다에서 네 큰 짐승, 즉 4대 강국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 네 나라에서 터질 무서운 환란은 천사들에 의해 일단 제지되어 있다. 즉, 천사들이 사방에서 바람(환란)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인(印)을 가진 한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종들, 즉 빛의 아들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한다. 여기서 ‘인’이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빛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기름 부음을 가리키며, ‘해 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성령을 부여하는 자를 도와 함께 인치는 역사를 한다.(마18:10, 행12:15 참조) 그러므로 성령을 부여주고 인을 치는 자가 나타나야만 이 천사도 해 돋는 데서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가’라고 한 것이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
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
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7:4-8)

여기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 곧 천년세계의 왕 노릇할 의로
운 자의 수를 각 지파별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의 수가 들어 있
는데, 그 나머지 수를 이긴자가 성령을 부어 깨끗하게 씻어서 세
우게 되어 있다.(계3:12 참조)

여기 보면, 야곱을 통하여 일찍이 이루어진 육적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단 지파가, 이긴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적 이
스라엘의 지파에서 빠지고, 그 대신 보통 요셉 지파에 포함되는
므낏세 지파가 새로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구약 시
대의 육적인 12지파와 다르다. 그러니까 육적인 야곱이 육적 이
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것처럼, 영적인 야곱, 즉 이긴자는 영
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소위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하
는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 숫자가 도합 14만 4천이다.
그럼 어찌하여 단지파가 여기서는 빠지고 므낏세 지파로 대치되
었는가?

성경에 보면 이 지파의 명칭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 즉,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된 것이
며,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12지파는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의 두령이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지파이므로 전쟁에서 제외되고, 요셉 지파 대신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요셉이 빠지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실제로는 13지파가 형성된 셈이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13지파로 형성되어서는 안 되므로, 불가불한 지파를 없애야 하며, 여기서 가장 약한 단 지파가 제외되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의 칭호가 사용되었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므로 내용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보건대, 이들 12지파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상11:13) 이것은 대체로 그 세도(勢道)에서 유래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지파로서의 세력을 형성했던 것이다.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하는 14만 4천의 수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겨루는 전쟁에서 피차에 지켜야 하는 규례이다.

그럼 이 14만 4천이라는 의로운 자의 수 중에서 선지자나 사도 및 신, 구약 시대의 순교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영적 야곱, 즉 이긴자가 어떤 자들 중에서 채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 중에서 채우게 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

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21:43)고 하였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7:9-12)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장면 이후에,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보았다. 요한이 볼 때에 그 수가 너무 많아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믿음을 성실하게 지킨 무리가 구원을 받아 흰 옷(거룩함을 뜻함)을 걸치고,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요한이 일찍이 주님의 생존 시에,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환영객들이 선두에서 호산나를 부르며, 손에 쥐고 흔든 것이 역시 이 종려나무 가지였다. 이어서 천사들이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帳幕)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7:13-17)

14만 4천의 의인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마련해 준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곧 박해 가운데서 순교한 것을 나타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주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보여준다.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보혈, 곧 생수를 받은 자가 없었다.(계21:6-7 참조) 순교자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생수로 죄를 씻어 주셨던 것이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나타낸다.(계20:6 참조)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의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어린 양, 곧 주님이 이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란 천국에서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리키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5)는 생명수이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사49:10)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Chapter 08.

재앙과 환란(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侍衛)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金香爐)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金壇)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香煙)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1-5)

6장의 계속으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을 불게 된다.

오늘날은 바로 여섯째 인을 떼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이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앞날의 일이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 나팔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움직이실 때마다 거처를 알리는 나팔이므로, 역사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나오는 ‘금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으며, 이 금향로를 맡아서 간수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직접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천사가 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먼저 아는 것은 천사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히1:14) 인을 치는 천사, 나팔을 부는 천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간수하는 천사 등, 각각 임무가 다르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우리의 기도가 좀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는 우리의 기도를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엡 2:2)가 가로채어 가지 못하도록 차단한 장막을 뚫어야 한다. 은혜의 ‘다림줄’(숙4:10)을 잡은 주의 종이 귀한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으니’라는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제단에서 취해 온 숯불 같은 하나님의 불이 땅 위에 던져지더라.”(겔10:2)는 말과 흡사하며, 곧 이어서 심판의 징조인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8:6-7)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란의 모습에 대하여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사용될 새로운 무기를 상징하며, 월남전의 이른바 ‘초토화 작전’에서 이와 비슷한 전투가 일어났다. 즉, 폭탄 하나를 떨어뜨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이 폭탄은 공중에 투하되면, 중간에서 자동적으로 폭발되어 불을 뿜으면서 흡사 ‘피 섞인 우박처럼’ 땅에 떨어진다. 앞으로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고성능의 폭탄이 투하되어, 아주 쑥대밭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삼분의 일, 수목의 삼분의 일이 초토화되어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된다. 스바냐서에는 주의 날에 대한 기사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할 것이라.”(슌1:3)고 기록하고 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8:8-9)

첫째 나팔을 불 때에는 땅에서 환란이 일어났는데, 둘째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에서 재앙이 일어난다. 즉,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로 물들어 버리고, 물고기의 삼분의 일, 배들의 삼분의 일이 파멸을 당한다. 바다에 던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바로 오늘의 항공모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또 이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복음에는 이에 대하여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눅21:25)고 쓰여 있는데, 택한 자를 위해 이와 같은 큰 환란 날을 감하기로 되어 있다.(마24:22) 오늘날 핵잠수함에서 하고 있는 핵실험은 그날이 얼마나 가공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물고기들이 입을 피해도 이미 그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8:10-11)

이것도 핵전쟁이 일으킨 양상의 일부에 대한 설명이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한 이 별은 핵폭탄을 가리키며, 이 별의 이름을 ‘썩’이라고 하였다. 썩의 특질은 맛이 쓴 것이며, 핵폭탄이 터지면 물에 독소가 들어가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된다. 핵폭탄은 핵전쟁의 무기로, 다른 물질이나 생명체(生命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처럼 써서 못마시게 되며, 마시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바알 신을 섬긴 백성들에게 “썩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렘9:14)고 하였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8:12)

이 장면도 역시 여호와께서 요한을 통하여 주신 거대한 핵전쟁 때의 처참한 환상으로,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는 현상은 대기오염(大氣汚染)에서 오는 것이며, 그 일부는 오늘날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즉, 오염이 태양을 가려 기후에까지 변화를 주고 있는데, 나중의 큰 환란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며, 천지개벽의 무서운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이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8:13)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비행기를 가리키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마24:28)는 독수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 대목은 거대한 핵전쟁 때에 폭격기나 전투기가 수행할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아직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 이렇게 ‘세 천사’가 불 것이 남아 있다. 모두가 큰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들이다.

Chapter 09.

재앙과 환란(2)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蝗蟲)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全蠍)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9:1-3)

8장의 계속으로 이 장에는 천사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의 광경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빛의 천사를 뜻하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으며, 그가 무저갱(음부)의 열쇠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무저갱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연기가 솟아오르고 황충, 곧 메뚜기가 땅 위에 나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무저갱은 물론 마귀를 가두는 세계를 가리키며, 메뚜기는 구약에서 파괴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다. 요엘서 1장과 2장에, 이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메뚜기들은 포도원을 해치고 나무껍질을 벗겨 버리는 등, 그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메뚜기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강한 마력(魔力)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 메뚜기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였는데, 이 ‘전갈’은 파괴력이 강한 현대 무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령의 세력이 현대의 무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樹木)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전갈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9:4-5)

무저갱 속에서 올라온 악의 세력에게 이르되, 산천초목(山川草木)은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군병임을 의미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해치라고 하였다. 다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다섯 달’ 동안 몹시 괴롭히는 것이다. 여기 ‘다섯

달’은 메뚜기의 활동 기간이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獅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鐵胸甲)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차(兵車)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使者)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아볼루온이더라.(9:6-11)

그 환란 날에 황충으로 인한 고통이 하도 심하여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 불가불 당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로 한 말이다.

다음에 황충의 사나운 모습에 대하여 요한이 본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사람 같은 얼굴에 화살을 맞아도 박히지 않는 흉갑(胸甲)을 몸에 걸쳤으며, 날개가 돌아나고 꼬리가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악령들에게 우두머리가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使

者)”로, 히브리말로는 아바돈(Abaddon)이고, 희랍어로는 아볼루온(Apollyon)이라고 부른다.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멸망이라는 뜻이고, 아볼루온은 희랍어로 파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자가 곧 황충의 우두머리이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돌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金壇)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을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馬兵隊)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9:12-16)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 앞에 놓인 금단(金壇)의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며, 따라서 네 뿔은 네 권세를 의미한다. 이 뿔에서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둔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정한 해와 달과 날과 때에 지상의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되어 있다. 오늘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세계는 잿더미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거느린 군사의 수는 2만만, 그러니까 무수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이라는 인명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胸甲)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獅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銅)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卜術)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9:17-21)

이 군병들을 바라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胸甲)”을 입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무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군병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하였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고도로 발달된 가스를 가리키며, 이 가스로 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군병들의 힘을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입과 뱀 같은 꼬리에 달린 머리, 즉 권세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환란을 당하여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마음이 완악하여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고, 악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Chapter 10.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10:1-2)

여섯째 인(6장)과 일곱째 인(8장)을 떼는 중간에 다른 광경이 펼쳐진 것과 같이, 이 10장에는 여섯째 나팔이 울린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의 그 중간에 일어난 무서운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여기 우선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는 여섯째 천사나 일곱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로, 온몸이 구름에 싸여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

는 구름은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으니”(시104:3)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수레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는 원광(圓光)을 상징하며,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롯되는 영광의 빛이 둘러 있음을 의미한다.

성경에도 이런 영광을 가리켜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겔1:28)고 하였다. 또한 그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주님의 얼굴을 방불케 한다. 즉,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햇빛같이 빛났다.”(마17:2)고 하였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들려 있다. 이 책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일곱 인으로 봉한 책과는 경우가 다르다. 그때에는 책이 봉해져 있으므로 누가 그 인을 떼까 하고 걱정했으나, 지금의 책은 펼쳐진 것이다. 펼쳐 있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것, 즉 실행할 때가 가까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은 책’이라고 말한 것은,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거기에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비밀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많지 않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獅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雨雷)가 발한 것을 인봉(印封)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10:3-4)

천사의 발이 땅과 바다를 지배할 권세를 갖고, 사자가 부르짖는 듯한 큰소리로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울리는 소리가 났다. 땅과 바다, 즉 이 천사는 땅의 네 임금과 바다의 네 바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단7:2-3 참조)

이 천사가 울부짖는 소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로 비유되어 있다. 호세아서에는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호 11:10)는 말이 있으며, 아모스서에도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암3:8)고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 부분은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곧 주님인가? 그렇지 않다. 천사란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로, 그 격이 성도들보다 낮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춘 자는 천사보다도 더욱 복이 있는 자이다. 그러기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 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였다.(히1:14) 이런 천사가 주님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닮을 정도의 권세를 가진 천사란 누구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긴자에 대한 주님의 언약을 상기하게 된다. 주께

서는 이긴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고 하였다. 즉,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이긴자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주께서 씻어 세운 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천사가 사자와 같이 외칠 때에 일곱 우렛소리가 들려왔다. 이 일곱 우렛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발하니”(시29:3)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한은 이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왜 기록하지 말고 인봉해 두라고 했을까? 그것은 요한 및 그 시대와 관계가 없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귀를 멸할 하나님의 비책으로, 그 일을 시행할 당사자가 아니면 알려 주실 수 없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터뜨릴 자를 따로 예정하시고, 감추어 둔 당신의 경륜에 대하여는 다니엘에게도 인봉해 두라고 말한 적이 있다.(단12:9) 또한 이 비밀은 마태복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는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다.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은 이 계시는, 받기만 하고 타인에게 전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전해서는 안 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계시를 바울도 받았던 것이다. 즉,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

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후12:4)고 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알려 주시거나, 당대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계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을 봉해야 하는 것이다. 요한이 들은 우렛소리의 내용도 그런 것이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10:5-7)

‘힘센 천사’가 하늘을 우리러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맹세한다.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곧, 일곱은 완전수로 완성을 뜻하며,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비밀도 백일하에 드러나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불가불 전술상 비밀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비밀에 대하여 자주 언급되어 있다. 아모스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암3:7)고 하였으며, 에베소서에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니”(엡3:3-4)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드러나 끝장을 보게 되는 동시에 새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떠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10:8-9)

하늘에서 요한에게 “네가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책을 가지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알파벳의 자모(字母)를 가르쳐 줄 때, 밀가루를 꿀에 반죽하여 만든 서판(書板)에 그 자모를 썼다가, 아이가 그 자모를 제대로 외우면 상으로 그 판에 쓴 글자를 빨아먹게 하였다. 이 글자는 아이의 입에 꿀같이 단 것이다.

여기 책을 먹는다는 말은 이런 고사(故事)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스겔도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겔3:1)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말씀이 입에 꿀보다 더 달다.”(시119:103)고 하였다.

그런데 이 책이 요한의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하였다. 여기서 요한은 성도들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으며, 먹는다는 것도 읽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진리의 말씀은 입에서는 물론 배에서도 마땅히 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쓰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소화가 되지 않고 배탈이 날 테니 말이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方言)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10:10-11)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어, 실천이 되지 않으면 다시 예언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왜 다시 예언을 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주신 복음의 시효(時效)가 끝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다 터져 나가 마귀가 이미 알고 대책을 세우

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않는다.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마지막 나팔을 불기까지의 사이에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입에서도 달고 뱃속에서도 달 경우에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질 경우에는 그 말씀으로 뜻을 이루게 되므로, 물론 다시 예언할 필요가 없다.

Chapter 11.

두 감람나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尺量) 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11:1-2)

이 장에도 10장에 이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을 불 중간에, 두 증인에 대한 광경이 삽입되었으며, 이 11장부터는 계시록에서 가장 깊고 또 어려운 영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설사 과거형(過去形)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다.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였기에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서문에 밝힌 둘째 전쟁 때의 일과 셋째 전쟁 때의 일을 짐짓 뒤섞어 기록한 대목도 있다. 예컨대 1절-5절의 경우가 그렇다.

여기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요한에게 주어졌다. 성경에 지팡이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명한 모세의 지팡이도 그렇지만, “홀(笏)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治理者)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창49:10)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지팡이로 너희 죄과를 다스리며” (시89:32) 하는 지팡이가 그렇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말은 그만한 영적인 권한을 주었다는 뜻이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나무 줄기처럼 자란 갈대를 자로 사용하였다. 여기서도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척량(尺量)의 도구, 즉 자로 사용된다.

그런데 그 척량의 대상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다 부서지고, 이 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 후이므로, 성전을 실제로 척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성도를 척량한다는 것은 그들의 키가 얼마나 되나 하고 한 사람씩 재어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헤아림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럼 성전과 제단은 어떻게 다른가? 성전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यो, 제단은 제사장, 즉 단을 지키는 목회자가 하나님에게 제사와 경배를 드리는 곳이다. “누구든지 성전으

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서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 누구든지 제단에서 맹서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서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마23:16-18) 여기서도 성전과 제단을 분리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이 양자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즉, 성전이 거룩하면 제단이 거룩해지고, 제단이 거룩하면 성전도 거룩해지게 마련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전의 주인공은 성도들이고, 제단의 주인공은 제사장, 곧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책임이 있으며, 목회자에게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성전 밖의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척량하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서 ‘척량’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성전과 제단이 얼마나 거룩하며, 성도들의 신앙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척량한다는 뜻이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척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척량하여, 그 장광(長廣)을 보고자 하노라.’”(슌2:1-2)는 척량이 그렇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계21:15)는 척량도 그렇다.

여기 보면 성전 밖의 뜰은 이미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척량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곳은 이방인이 지배하는 곳이며 마귀가 차지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여하시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

님도 역사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았으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불신자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없다.

여기서 이방인에게 준 뜻을 척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척량해 봤자 건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속한 성전과 제단 및 성도들을 척량하라고 했는가?

이때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인 3차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의 시초로 마귀에게 속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산하에 쳐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병력 — 의로워진 정도 — 을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이나 ‘이방인’은 영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을 비유해 말한 것이다.

이방인은 거룩한 성으로 침입해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편에 의로운 자의 수가 차고 넘치면 어차피 도전을 받게 되므로, 선수를 써서 하나님의 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럼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수가 차기 전에 마귀가 전면 공세를 취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규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수가 찼으므로 자신이 생겨 마귀에게 자기 백성들을 내어준다. 그 기간이 마흔두 달 동안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마귀들을 다 피어내는 것이다. 마흔두 달은 3년 반, 곧 한 때, 두 때, 반 때이며 마귀가 지배하는 시기이다.

다니엘서에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7:25)고 했다.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단7:26)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땅에서는 4수로 이루고, 하늘에서는 3수로 이루신다. 모세가 궁궐과 광야의 생활을 한 것이 각각 40년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 돌아오게 한 것이 40일이고, 옷니엘, 드보라, 바락,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은 각각 40년 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도 각각 40년 간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또한 대홍수에는 40일간 비가 내렸고, 니느웨에는 회개하도록 40일의 유예를 주셨다. 엘리야는 호렙 산에 가는 동안에 40일 동안 금식했다.(왕상19:8)

한편 주님은 30세부터 하늘의 도를 전파하기 시작하고 33세에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부, 성자, 성신이 3수요,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과 물과 피로 3분되어 있다.(요일5:8) 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친 7을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도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소리 낸 후에야 오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숫자적으로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귀도 숫자적으로 이 역사를 가로막는다. 한 때, 두 때, 반 때란, 하늘과 땅이 잘 호응하여 하늘의 수인 3수와 땅

의 수인 4수가 연결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위해 두 수의 중간을 나타내는 수로, 하늘과 땅 사이를 차단하려는 숫자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證人)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굶은 베
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11:3)

그런데 거룩한 성이 마귀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때 등장하는 하나님 측 인물은 두 감람나무, 즉 주의 두 증인이다.(11:7)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신 두 감람나무가 곧 예수님의 두 증인이 되며,(속4:14) 주님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42달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죄를 확정할 것이며”(신19:15)라고 하였다. 죄를 정하는 데도 한 증인으로는 부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하물며 의(義)를 입증하는 데 한 증인만을 내세울 리가 없다. 그리하여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하였다. 이 권세는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즉,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며 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고후10:8) 하는 권세요, 나아가서는 어둠이 지배하는 만국을 다스리는(계2:26) 권세이다.

그런데 이들이 예언을 하는 1,260일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마귀가 지배하는 기간으로, 인간이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이다.

이들이 3년 반, 즉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해 예언하는 동안에는 흰 세마포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있다. 그 내용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서글픈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굵은 베옷’과 대조적인 것은 ‘흰 세마포 옷’이다. 그리고 전자는 주로 참혹한 처지에 놓였을 때 입고, 후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입게 마련이다.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입은 옷은 굵은 베옷이고, (삼하3:32) 여호와와의 진노로 유다의 성읍들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혔을 때에도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였으나, (렘4:8) 혼인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계19:8)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燒滅)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11:4-5)

성경에는 감람나무에 대한 기록이 많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方舟)에서 날아간 비둘기가 7일 만에 입에 물고 돌아온 것이 감람나무 잎이었으며, (창8:11) 출애굽기에는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법궤(法櫃) 앞 휘장 밖에 놓아두라고 하였다. (출27:20)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자연인(自然人)의 대명사로도 쓰이고 있다. 즉, 감람나무란 “기름 발리운 자 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속4:14)이며, 영적 이스라엘, 곧 이긴 자에게 여호와께서 “이슬과 같고 …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백합화 같고 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柏香木) 같다.” (호14:5)고 하였다.

말세에 여호와와 영을 물 붓듯 부어준다(골2:29)는 말씀 그대로, 이 ‘영’은 감람나무에게 이슬과 향취로 내린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촛대가 있어야 불을 켜 사방을 밝힐 수 있다. 여기에는 감람나무와 촛대가 다 상징적으로 쓰여 있으며, 두 증인과 그를 따르는 성도의 역할을 가리키고 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아무도 해칠 수 없다. 만일 해치려고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가 소멸 당한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 입에 있는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렘5:14) 하신 불이요, “불이 허같이 갈라지는” (행2:3) 성령의 불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원수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적대자 원수라기보다는 ‘맨 나중 원수는 사망’(고전15:26)이라고 한 것처럼, 사망 권세를 잡은 악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의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시110:1)고 하였는데,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불살라 버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악령의 세력을 무찔러 버

린다는 의미이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
리로다.(11:6)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쫓대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으므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하다. 군병에게 아무 무기도 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임금은 없다. 그는 반드시 군병들에게 무기를 마련해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막중한 사명을 맡겨 놓기만 하고 빈손으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세’를 아울러 부여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 큰 권세가 예언을 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권세는 구약 시대에 엘리야와 모세가 각각 여호와로부터 받은 권세였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와 모세는 두 증인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변화 산상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막9:2-4) 여기서 주께서는 이들 제자에게, 후세에 구약 시대의 의로운 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야와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같은 두 증거자가 나타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의 그림자인 것이다. 이 토록 양자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왕상17:1) 엘리야는 여호와로부터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하늘을 달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비는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여하는 성령의 비로,(골2:28) 마지막 때의 두 증인에게 이 성령을 못 심령들에게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다.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큰 권능의 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은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었으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자기 신들도 할 수 있다 하여 믿지 않을 경우에,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 피가 되게 하라고 말 씀하였다.(출4:5-9)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였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17:11) 이리하여 구약 시대에는 짐승(송아지, 양, 비둘기)의 피로 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요6:55)는 주의 피며, 이것은 마지막 때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게 되어 있다.(계21:6-7, 호14:5) 이 경우에 물이 피요, 피가 물이다. ‘물을 피되게 하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긴자가 물에 주의 보혈을 부어 만든 생수의 축복을 들 수 있다. 생수에는 주의 피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생수를 마시면 영이 새로워진다. 이것은 굳고 썩은 시체가 이 생수에 의해 산 사람처럼 부드럽게 변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 땅에서 여호와와 뜻에 거스를 때에는 경우에 따라 환란과 지진, 기근 등을 일으켜 징계할 수 있는 권세가 감람나무에게 주어져 있다. 즉, 여호와께서 두 증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11:7-8)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증거를 마친다는 말은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마친다는 의미이다. 성경에는 증거

한다는 말이 여러 군데 보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의 도가니에 빠진 것을 보시고 홍수로 멸한 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언약의 증거로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창9:14) 또 출애굽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후에, 항상 저들과 함께 있겠다는 증거로서, 호렙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출3:12) 그리고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하였다.

우리는 흔히 바라는 것이 꼭 실현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실상, 즉 실제로 있는 모습으로 간주한다. 가령 우리가 천국을 가기를 바라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 봐야 알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어 보지 않아도 바라는 천국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려면, 적어도 보기라도 해야 하지만,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증거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소? 당신 하나님을 봤소?” 하는 항의 비슷한 말을 가끔 듣는다. 또 많은 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허사였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 안에서 실감해야지, 머리를 아무리 짜도 그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

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일 5:7-8) 증거하는 이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로 나타나며, 오늘날 역사하는 성령은 곧 피의 성령이다. 이 피의 성령은 두 증인을 통하여 불(행2:2)과 생수(속14:8)와 이슬(호14:5)로 내리며, 두 증인은 이 모든 은사에 대하여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러내어 증거해야 한다.

이 증거를 마치면 장면이 바뀌어 무저갱 속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무저갱의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를테면 마귀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다. 그리하여 “천 년이 차면 그 옥에서 놓여난다.” (계20:7) 예수께서 귀신들린 자의 마귀를 내쫓을 때, 마귀는 자기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 달라고 예수에게 간구하였다.(눅8:31) 하나님이 무저갱을 막아 버리면 나올 수 없으며, 활동을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무저갱에 갇힌 ‘짐승’, 곧 마귀는 하나님이 무저갱을 열어 주어야 놓여날 수 있다.

하나님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하는 것은 마귀를 모조리 소탕해 버리기 위해서이며, 여기서 셋째 전쟁(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의로운 자와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동원하여 두 증인을 선두에 내세우며, 마귀도 역시 그 쫓개들을 모두 총집결시켜 싸운다.(계13:5) 그리하여 마흔두 달 동안,(계13:5) 곧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권세를 잡아 전세가 마귀에게 유리하게 전

개되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마귀가 마음껏 활동하는 기간으로, 역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룰(규례)의 하나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도 그렇다. 하나님은 자비하고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 주시면 좋겠지만, 규례상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불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겟돈 전쟁도 필요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을 것이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여 천하의 마귀가 찢찢매매게 되었으며,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의로운 자가 생겨나는 것을 마귀는 무엇보다도 싫어한다.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갖은 꾀방을 하는 것이다. 이 의로운 자들은 여호와의 군병이 되어 마귀를 굴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무덤(음부) 속에서 자는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직 마귀가 발등상 되지 않고 여전히 사망 권세를 잡고 있어 그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이 전쟁에서 마귀가 승리하여 성도가 지배를 받는데, 그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요, 이때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성 길에 있으며,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여기 ‘시체’니, ‘성’이니 하는 말들은 읽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쓴 상징적인 표현이며, 이때는 이미 천년세계 이후의 일이므로, 영체로 있는 두 증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의 죽음은 있을 수 없다. 여기 나오는 성은 11장 2절의 ‘거룩한 성’이요,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지만 마귀에게 한동안 짓밟히게 되므로 음란의 도성인 소돔(창19:28)과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애굽과 최악의 살인 죄를 범한 골고다의 언덕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 세 곳에 한때 온 세계의 마귀가 총집결했던 것처럼, 모든 악령이 이 성에 총동원되어 일대 격전을 전개하게 된다. 마귀는 이 전쟁에서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이겼다고 자부했던 것처럼, 두 증인을 죽이고 승리를 거둔 줄 알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자 두 증인이 살아났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계17:14)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11:9)

두 증인이 마귀에게 죽임을 당한 곳은 영적으로 말하면 악이 크게 역사한 소돔과 애굽과 골고다이며, 거기에는 여러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게 된다. 여기 ‘방언’이란 문자 그대로 사투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말을 의미하며, ‘시체’란 사람이 죽은 송장으로 해석할 수 없다.

천년세계가 지난 후의 일이므로, 두 증인은 이미 영체(靈體)로 화해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영체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영체도 어떤 형태는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투명체로, 찢러 죽이거나 쏘아 죽일 수는 없다. ‘사흘 반’은 7의 반으로, 세 때 반을 가리킨다.

우리 몸이 이런 영체로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다.(고전15:51-52) 그렇게 되지 않고 육신을 입고서는 천년세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 이 ‘시체’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두 증인의 권세가 한동안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깨어진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사흘 반, 즉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기간인 한 때, 두 때, 반 때이며, 여기 사흘 반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찍이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단12:7)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지내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체까지도 사흘 반 동안 완전히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하나님의 신과 악령이 서로 자기 손에 넣으려고 다툰(유1:9) 고사(故事)를 상기하게 된다.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선 사람이고 보면, 시체도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윗은 말하였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

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장사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시79:2-3)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11:10)

두 증인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던 자들이다. 이들이 두 증인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물을 주고받는다. 이 예물 역시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을 죽이고 비로소 누리게 된 영화를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처럼 두 증인의 권세가 잠시나마 깨어지는데 그치고, 다른 성도들은 무사하냐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 성도도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다.(단 12:7) 다만 여기서 두 증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언급한 것뿐이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11:11-12)

마귀가 기뻐한 것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사태가 돌변된다. 마귀의 때(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자 하나님의 생기가 두 증인 속에 들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즉, 깨어진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때 기뻐하던 저들의 놀라움이 어떠할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일찍이 저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해하고, 승리를 거둔 줄로 착각하였는데, 여기서 또 다시 그런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에덴동산에서 생기로 아담, 하와를 생령(生靈)이 되게 하였는데, 이번에는 두 증인의 시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파괴된 두 증인의 권세를 회복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겔37:5) ‘생기’, 즉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체는 흙이나 뼈다귀에도 들어가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로 그 영체를 회복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영음(靈音)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게 된다. 마치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광경을 연상케 한다.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것은 물론 두 증인의 합당한 역사를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두 증인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기는 다른 성도들에

계도 함께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소생시키는 것이다.

주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불사(永生不死)의 길을 터놓았으므로,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마지막 원수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즉 둘째 사망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여기서 비로소 잃어버린 옛 에덴동산을 다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오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마귀와 싸운 것은 이와 같이 새 하늘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11:13)

그때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지진도, 실제로 땅이 갈라지고 불을 뿜어내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상징적인 환란을 가리키는 말이다. 1/10, 7천이 다 마찬가지로 용법이다. 그 1/10이란 성의 적은 일부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 성의 넓이가 10헥타르라면, 그 1/10인 1헥타르가 파괴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 10은 원래 환란을 상징하는 숫자이다.(단1:10, 계2:12) 7천도 그렇다. 성경에 보면 원수 값을 때, 7수로 갚는 것이

상례이다.(삼하21:6, 21:9) 하나님께서 마귀 편에 선 자들을 멸하여, 두 증인을 죽인 보복을 하였다는 뜻이며, 7천이라는 수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7천이라는 숫자에 구애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두 증인이 하늘에 오를 때의 환란은 그 규모에 있어서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11:14-15)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에 화(禍)가 세 번 닥치게 되는데,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에 걸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가 첫째 화요,(계9:12) 그 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가 둘째 화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가 셋째 화이다. 이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을 불고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의 서곡과 같은 것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원히 왕 노릇한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새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그 이전에는 주님이 불가불 왕 노릇하는 것이다. “저가 모든 정사(政事)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고전15:24)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이 하늘나라

를 이룩한 때를 말하며, 성경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신다.”(고전15:25)고 기록하고 있다.

이 경우에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며”(고전15:26) 만물이 하나님에게 복종한 때에는 주님도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지금까지 행사하던 왕권을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의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11:16-18)

하늘나라가 시작되어 심판이 벌어질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놓인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5:8 참조) 이들 구약 시대의 육적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의 각 족장들이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심판에 대하여 아뢴다.

여기 하나님을 향해 새삼 “전능하신 이여!” 하고 칭송하는 것은 오랫동안, 실로 6천 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마귀와 대적하여 많은

제약을 받아 오다가 원수를 받아들여 두고 사망 권세를 꺾고 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초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건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짓밟힌 에덴동산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6천 년 동안 무던히 애쓰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세워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선정하고,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와 사사를 이 땅에 보내어 역사하셨고, 급기야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게 한 후에, 2천 년 동안 성령으로 수많은 인간들에게 역사해 오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 이긴자를 통하여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요컨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잃은 에덴동산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것이 다른 아닌 인류 역사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능하여,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척척 해 나가신다면, 위에서 한 모든 노력이 불필요하게 되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떨어진 즉시 마귀의 수중에서 잃었던 에덴을 금세 회복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년 동안 그토록 애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많은 도전을 받아 왔다는 산 증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 곧 반대 세력을 일소하고 당신의 나라를 되찾아야만 ‘전능’하게 되어 모든 것을 뜻대로 거침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의 서열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맨 처음은 사도와 선지자요, 다음은 성도, 즉 지상에서 주의 피로 온전히 씻음 받은 자로, 맨 나중에 온전히 씻음을 받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도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상이 아니라, 요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며, 다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땅을 온통 짓밟은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은 멸망을 받게 마련이다. 이 환상의 내용들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11:19)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였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영적으로 서술된 것이며, 땅에 있는 제사장의 성전과는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땅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만 들어가며, 그 안은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히9:1-7)

그런데 하늘의 성전은 개방되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한에게 보인 것이다. 하늘의 성전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 (사60:11)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본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언약하였는데, 그들이 수차 범죄하므로 불가불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옮기기로 했다. (삼상4:22, 호1:10, 마21:43) 그리하여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여기 언약궤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하신 언약을 충실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 우뢰, 지진, 우박과 같은 하늘의 징조는 모두가 계시록 4장 5절, 8장 5절, 16장 18절과 비슷한 표현으로, 서로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은 중대한 심판이 곧 있으리라는 하늘의 신호로, 일곱째 나팔을 불자 이와 같이 하늘에서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재앙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사용했던 것이다. (렘10:13, 출9:23-28, 시29:6, 속14:5 참조)

Chapter 12.

마귀의 추방



하늘에 큰 이적(異蹟)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
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
르짖더라. (12:1-2)

요한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대로 적어 놓
았다. 이적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통하
여 하시는 것이며, 성경에는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주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며, 모세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
였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믿지 않아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강물을 좀 떠다가 육지에 부어라. 그 물이 피가 되리라”(출 4:9)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어, 모세가 당신의 사자임을 증거하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손을 자기 품에 넣어 문둥병이 생기게 하였다가, 다시 품에 넣어 말짱하게 고쳐지는 이적을 행하게 하고 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이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는 무척 신기하게 생각된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 이런 희한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얼마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리기가 일쑤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여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보낸 탐정꾼이 돌아와 그곳에 장사가 많더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겁이 나서 모세를 원망하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꾸짖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민14:11)

요한이 본 이적, 즉 기이한 현상은 한 여자가 해를 입고, 그 발아래 달이 있고, 머리엔 열두 개의 별이 면류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해를 입는다.” 즉, 해를 옷 입듯 했다는 말은 이 여자의 광휘가 눈부시게 찬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달과 별까지 거느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천체를 몸에 두르고 하늘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빛을 옷 입듯 하였다고 노래

하였으며,(시104:2) 아가서의 저자는 여인을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아6:10)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 ‘열두 별’은 열두 사도, 열두 지파, 열두 장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에 관련되어 있다.

이 하늘의 권세를 잡은 여자가 해산을 한다고 하였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의 사명을 일단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을 좀 더 상고해 보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던지더라.(12:3-4)

여기 ‘붉은 용’은 마귀의 괴수를 가리키며, 그 권세를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면류관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성경에는 머리카락을 뿔로 비유해 기록하고 있다. 다윗은 여호와를 ‘만유의 머리’(대상29:11)라고 했으며, 바울은 주님을 ‘모든 정사(政事)와 권세의 머리’(골2:10)라고 하였고, 다니엘은 말세에 대두될 강한 나라를 짐승으로 상징하고 머리카락이 넷이라고 하였다.(단7:6)

또한 주님을 가리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두었다고 하였고, (눅16:9) 다니엘은 역시 큰 나라와 왕의 권세를 열 뿔로 표시하였다. (단7:7, 8:21) 이 붉은 용의 머리는 일곱 개요, 뿔은 열 개나 되며, 일곱 머리마다 면류관까지 얹혀 있다. 마치 여호와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의 꼬리로 별의 삼분의 일을 땅 위에 던져 버린다. 즉, 하늘의 권세에 도전하여 그 삼분의 일을 해치는 것이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鐵杖)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2:5)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주님을 의미한다. (시2:7-9) 여자는 분명히 주님을 낳았다. 육적으로는 주님을 낳은 어머니가 마리아이지만, 여기서의 ‘해산’이라는 말은 여자가 자기 사명을 다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사명이란 하늘 군병 14만 4천을 배출하는 일이다. 군병이 완성되어야 마귀와 전쟁을 할 수 있으며, 마귀를 멸해야 새 하늘, 새 땅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새로 임하게 하는 일이 곧 만국을 다스릴 ‘남자’(주님)의 해산이다. 여자란 이 성도들을 완성하는 이긴자를 상징적으로 지칭한다. 이 하늘나라, 즉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곧 주님이며,(21:22)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처럼, 주님을 보호하는 군병들이 어린 양의 아내이다.(21:17 참조) 붉은 용은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 즉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주님을 삼키려고 하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데려가 보호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12:6)

성도들, 즉 천년세계의 왕의 반열에 속하는 의(義)의 군병들을 배출한 감람나무는 하늘에 오른 아이, 곧 주님과 달리 광야로 도망을 친다.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은 싸우다가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한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1,260일, 즉 짐승이 권세를 받아 감람나무와 그의 군대를 이기는 42달이다.

감람나무와 성도들이 도망치는 곳은 ‘광야’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피난처이다. 광야는 신, 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한 곳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모세와 세레 요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마4:1, 눅4:1) 이 경우에 광야는 강하게 연단을 받는 훈련의 광장으로서, 성도들이 광야로 피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배하는 1,260일 동안 이들을 더욱 튼튼히 재무장을 시

켜 후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성경은 ‘양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하여 까마귀의 양육을 받은 경우나, (왕상17:1-7) 이세벨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을 때 광야로 도망하여 천사의 손에 양육을 받은 경우(왕상19:1-8)와 같이 ‘양육’이라도,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1,260일은 3년 반, 즉 한 때, 두 때, 반 때로,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를 합친 완전수(完全數)의 반을 갈라, 하늘과 땅을 차단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수로, 마귀가 지배하는 기간이다.(단12:7, 7:25, 계11:2-3) 이 기간 동안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피신하여 연단을 받게 된다. 매사에 용의주도(用意周到)하시고 빈틈이 없는 여호와께서는 마귀와의 마지막 셋째 싸움에서 이와 같이 당신의 예정 가운데 미리 예비하시는 것이다. 성경에는 ‘예비’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간다.”(요 14:2)고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엡2:10)이라고 말하였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

를 꺾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12:7-9)

전에는 요한에게 하늘에 이적이 나타나 보였는데,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셋째 하늘, 곧 하나님과 보좌가 있는 곳으로 천사장 미가엘과 용, 곧 사단의 두목이 각각 그 ‘사자’(부하)들을 거느리고 싸우며, 이 마귀의 사자는 짐승으로 불리기도 한다.(계11:7, 13:1, 14:6)

우리는 여기서 영의 세계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여호와와 부리는 영(靈)인 천사는 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큰 집단(集團)을 이루고 있으며, 마귀는 마귀대로 많은 쫓개(사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큰 병력(兵力)을 연상케 한다.

성경에는 천사장이 둘로 기록되어 있다. 그 한 천사장은 가브리엘이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직분을 맡고 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예고하고,(눅1:13-19) 다니엘에게 두 번씩 이상을 보여준(단8:16, 9:21)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였다.

그런데 여기 나온 미가엘 천사는 흡사 야전 사령관(野戰 司令官)과 같은 위치에서 용(龍)과 싸우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부리는 천사들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그것은 마귀를 소탕하여 마지막 심판을 베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단 12:1-4)

심판을 받는 것은 천 년이 차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이 일어난 후의 이야기다. 다니엘에게 봉함하라는 내용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지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교통이 빈번하여 빨리 왕래하게 되는 오늘날을 가리킨다. 현재를 말세라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며, 다니엘에게 간수하라고 일러 준 여호와의 비밀은 당신의 종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쓸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의 의로운 성도들뿐이며, 그 밖에 마귀의 밥이 되어 죽어간 이방인들, 그리고 온전한 영체를 이루지 못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로 흠과 티가 없이 정결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은 무덤 속에서 천년세계가 끝날 때까지 자고 있어야 한다. (계20:5)

14만 4천의 의로운 수는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한 후에 천 년이 찬 다음에는 무저갱으로부터 농임을 받은 악령과 일대 접전을 벌이며, 이와 같은 큰 전쟁이 있는 다음에 심판이 베풀어진다. 이때에 무덤 속에서 자던 자들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로운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요5:29)

이 싸움에서 용은 패배하여 공중 권세를 내놓게 된다. 만일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천군 천사들의 배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침범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마귀가 패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데, 이 용의 다른 이름은 옛 뱀, 마귀, 사단 등이다. 옛 뱀이란, 일찍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어낸 원흉인 뱀을 가리키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꼬리 긴 징그러운 뱀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 옛 뱀의 형체가 변모된 것이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창3:14)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뱀이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저주로 모습이 달라진 것이다.

이 사단은 여호와의 대적이요, ‘천하를 꾀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이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꾀어 자기편으로 이끌며, 우리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뭉개 버리기도 하기 때문

이다. 유다로 하여금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이며, 베드로를 약하게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이 마귀의 농간이었던 것이다.(눅22:31) 이와 같이 인간들 사이에서 마귀가 자기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고도 한다.(요 12:31, 14:30, 16:11)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땅’이 상징적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다. 천년세계 이후의 일이므로 천지개벽이 일어난 후이며,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땅이라고 했을 뿐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12:10-12)

하늘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용, 즉 성령과 악령의 셋째 싸움에서 용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나자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남자’(주님)를 따라 마귀가 하늘에 올라가 일

으킨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서 일단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된다.

그러나 여기서 마귀의 세력은 크게 꺾이고 만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난 것이다. ‘참소’란 함부로 남을 헐뜯는 것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밤낮으로 이와 같이 참소를 하면서 가로막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를 차단하고 있으며, 그것은 쉽사리 뚫리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다.(사59:2) 우리가 지상에서 아무리 애절히 간구하여도 좀처럼 상달이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뜸한 것은 이와 같이 마귀가 공중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 장막을 뚫는 것이 시급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요컨대 이것을 뚫고 주님과 직통할 수 있는 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마귀를 내쫓는 데 공이 큰 것은 미가엘 천사장이지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도 이 싸움에 참가하여 이기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 형제’들이 마귀와 싸워 이긴 것은, 주의 보혈과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증거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곧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도 즐거워하게 된다. 이들이 곧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이다.

싸움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땅과 바다에서 성도들과 복수전을 전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대판 싸움을 벌인 끝에, 자기가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게 된다. 즉, 여기서 총공세를 펴서 반격을 꾀하는 것이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2:13-17)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한 용은 땅의 성도들에게 도전한다. 그럼 미가엘 천사는 왜 지금 당장 용을 내쫓지 않고 이때에 가서야 내쫓는가? 이것은 땅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미가엘 천사는 14만 4천의 하늘 군

병이 완성되고, 심판 때가 가까워야 칼을 빼게 되어 있다.

이때 아들을 낳은 여자, 곧 감람나무는 ‘광야’에 피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힘을 기르는 것이다.(12:5) 즉,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 광야에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시 말해서 1,260일 동안 연단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40:31)라고 했다.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는 마귀가 감람나무의 권세를 짓밟는 기간이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이 강화되는 준비기간을 갖는다. 그러므로 용, 즉 옛 뱀인 마귀요, 사단은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을 받는 동안 줄곧 해를 가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마귀(옛 뱀)는 입에서 물을 토하여 성도들을 배출한 여자를 홍수로 멸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도와 땅이 강물을 다 삼켜 버리게 한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강물과 땅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강물은 마귀의 세력을, 땅은 하나님의 지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삼킨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뜻이다. “주 여호와께서 불로 징계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지라.”(암7:4) 불이 물과 겨루어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도전해서 일대 반격전을 전개하려던 마귀의 흥계는 완전히 실

패로 돌아가지만, 마귀는 아직도 싸움을 단념하지 않고 이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앞에서 말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다.(계7:9)

하나님과 마귀의 세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는 처음에 미가엘 천사와 싸워 패하고, 14만 4천의 성도를 완성시켜 남자(주님)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다가, 다음에 의로운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서 이들을 해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Chapter 13.

두 짐승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13:1)

이 13장도 전장(前章)에 이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천년세계를 지나 영적인 셋째 싸움이 벌어질 때의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다. 여기 '짐승'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물려받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 짐승은 어둠의 세계에서 제2인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계13:4) 그러므로 이 짐승을 역사상의 어느 특정한 국가, 가령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 일곱 황제를 일곱 머리로 간주하여, 여기에 다른 세

통치자를 합쳐서 열 뿔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시대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서 뿔이니 머리니 하는 것은 권세를 가리키며, 열과 일곱은 큰 권세, 강한 지배력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눅1:69) 하는 말씀에 나오는 뿔도 그렇고, 계시록의 ‘어린 양의 일곱 뿔’(5:6)이나 다니엘서의 열 뿔(7:7)도 그러하다.

그리고 ‘머리’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았다고 했으며,(삼상15:17)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였다.(엡5:23) 그런데 마귀의 줄개에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을 뿐더러, 그 열 뿔에 각각 하나씩 도합 열 개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것이다.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3:11)고 당부하였으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계4:4) 면류관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영광을 상징하며, 최대의 명예가 된다. 그런데 여기 짐승이 면류관을 썼다고 하였다. 이견 어찌된 영문인가? 이 면류관은 용에게 충성한 그 부하가 용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른바 ‘씩을 면류관’(교전9:25)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에게 충성을 다하여 얻는 면류관과는 정반대되는 저주의 선물이지만, 마귀의 세계에서는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마귀를 잘 섬겨도 당장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용한 무당이 돈

을 잘 버는 경우가 그렇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와 마귀가 서로 상극이 되어 대결하고 있는 두 세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양자는 방대한 세력권을 형성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짐승’은 이긴자의 적수로, 그 머리에 ‘참람된 이름’이 적혀 있다. 참람되다는 말은 주제넘고 건방지다는 뜻으로, 주께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가리켜 ‘참람된 말을 하는 자’(눅5:21)라고 비난하였다. 여기 짐승의 머리에 쓰인 ‘참람된 이름’이란, 이긴자에게 주어진 흰 돌에 기록한 ‘새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새 이름’이 여호와의 숨은 경륜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참람된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숨은 계교를 가리킨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13:2)

‘짐승’을 표범과 곰과 사자로 비유하여, 그 능력과 권세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가운데 첫째 짐승을 사자로, 둘째 짐승을 곰, 셋째 짐승을 표범으로 비유하여 그 위력을 표시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단7:4-6)

그런데 이와 같은 짐승의 위력은, 용에게 충성을 다하여 용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즉, 용이 그에게 자기의 큰 ‘능력’과 자

기가 차지한 ‘보좌’와 여호와에게 감히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이긴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계2:26) 보좌에 함께 앉게 하며, (계3:21) 그 밖에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여기서 보좌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계시록에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17:13)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마귀, 곧 용이나 짐승에게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좌란 본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마귀도 그 세계에서는 자기를 섬기는 무리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이상 중에 본 바에 의하면, 여러 면에서 이 마귀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와는 대조적이었다. 즉, 하나님의 보좌는 궁창들을 지나, 이른바 ‘셋째 하늘’에 자리 잡고 있으나, 마귀의 보좌는 공중 권세를 잡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차단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일곱 가지 휘황찬란한 빛이 눈부시고 그림자가 없으며,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데, 마귀의 보좌에서는 빛이 없고 어둡침침하고 짙은 안개로 가려 있으며, 그 줄개들이 호위하고 있다.

본문에 보면 용이 줄개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하였다. 능력과 권세는 똑같이 힘을 의미하지만, 능력은 예컨대 이적이나 기사 같은 것을 가리키며, 권세는 지배력을 의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이 권세는 크게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

의 권세를 나눌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계시록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계2:26)가 전자의 것이요, ‘흑암의 권세’(골1:13)가 후자의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 “큰 권세를 주었더라.” 하고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과거지사(過去之事)로 기록했을 뿐, 실은 앞으로, 즉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미래에 있을 이상이나 계시를 보고 나서, 과거로 표현한 대목이 적지 않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13:3-4)

세 번째 영의 싸움에서, 짐승의 머리 일곱 개 중에서 하나만 상하고,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즉, 승리는 우선 마귀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창세기에 이 싸움에 대하여 일찌감치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 즉,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피어낸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용이 상처를 받아 죽게 된 짐승의 머리를 곧 낮게 해주자, 땅에 있던 무리들은 신기하게 여겨 승리자(마귀)의 편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 즉, 땅의 무리가 이처럼 미혹되는 것이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 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 하되, 그의 이름과 장막(帳幕),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 하더라.(13:5-6)

짐승이 싸움에 이겼으므로, 큰소리를 치며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람된 말, 즉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며 마흔두 달 동안, 그러니까 1,260일, 곧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게 된다. 마귀가 승리하여 역사하는 이 기간은 성도의 권세가 한동안 깨어지게끔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그대로 지키게 되어 있으며, 결코 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기간은 우리가 알기 쉽게 숫자적으로 표시하여 뜻을 박았을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승리한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즉 주의 피로 구속을 입고 지성소에 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 비난을 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13:7-8)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그 손아귀에 넣는다. 여기 성도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어’(계17:14) 주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로서, 일반 신도와는 구별된다. 신도란 엄격히 말해서 믿으려고 힘쓰는 자이며, 명실공히 믿는 자, 곧 성도는 아니다. 믿는 자란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주께서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하늘에 올라갔으며,(마27:52) 스테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려 그에게 힘을 주었으니, 무릇 성도의 생사가 이러하며, 이쯤 되면 그 생사의 한계가 모호하게 된다. 이 성도가 곧 셋째 싸움에서 하늘의 군병(계19:14)이 되며, 그렇지 못한 자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족속’과 ‘백성’도 개념상 차이가 있다. 족속이란 한 족속을 말하며, 백성은 여러 족속의 집합체이다. 즉, 한 족속이 그대로 한 백성을 이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여러 족속이 모여서 한 백성을 이루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본문의 ‘방언’은 여러 나라 말을 의미한다.

아무튼 한때나마 마귀의 권세가 크게 확장됨에 따라, 창세 이후로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자는 다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마련이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10:20)고 말씀하였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와의 기억과 보호를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며(말3:16, 단12:1, 계3:5) 죄를 지어 그 이름이 이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이다.(출32:32)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얻으려면, 흠 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벧전1:1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13:9-10)

성경은 여느 책과 다르다. 다른 책은 주로 읽는 사람의 지적(知的)인 수준과 인생 체험에 따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게 마련이지만, 성경은 성령을 받은 정도와 신앙 체험에 따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신학 박사나 교수보다도 불학무식한 할머니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요

7:38)는 말씀을 가리켜 요한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7:39)고 친절히 해설까지 해 놓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설에 의해 머리로만 그런가 보다, 또는 그럴 테지, 하고 이해하는 신학자와 실제로 성령을 받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무식한(?) 할머니 사이에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후자가 전자보다 한결 실감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알 수 있다.

본문 말씀에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는 대목은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귀를 가진 사람은 들으라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들려줘도 끝내 마이동풍(馬耳東風) 격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런 의미가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라고 하지 않고 ‘귀’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개화되어, 사람들이 글을 해독하고, 인쇄 기술의 발달로 책이 보급되어 있는 시대라면 ‘귀’가 아니라 ‘눈’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여, 성경 말씀도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 주로 제사장이 읽어서 들려주었기 때문에 듣는 ‘귀’라고 한 것이다.

무릇 오묘한 진리는 대체로 세상의 통념(通念)과 위배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그러하다. 주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제자들

까지도 로마에 억눌려 있는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줄 알고 또 기대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인식 부족이었다. 주께서 해방시키려는 것은, 마귀에게 매어 있는 모든 인간의 영이지, 지상의 한 국가는 아니었다. 그래서 주께서는 당시의 못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갔다. 저들의 눈에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패배로 보였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십자가는 최고의 진리를 상징하며, 죽음이 아니라 삶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라.” (마16:24)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길에 동참하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이 생명길을 위해서는 죽음도 사양치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이다. 이 경우의 죽음은 벌써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음이 곧 삶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항하여 이길 것을 원치 않고, 끝내 사랑으로 이길 것을 요구한다. 남을 사로잡으면 자기도 사로잡히고, 남을 칼로 죽이면 자기도 칼로 죽임을 당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결코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생각을 말아야 하며, 인내와 믿음을 무기와 방패로 삼아야 한다. 이 인내는 소극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를 위한 수난을 기꺼이 받아들여 영광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지상의 삶 전체를 바쳐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진실한 기독교도의 생활은, 오직 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도 이 행동원칙(行動原則)에 따라 신축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¹²⁾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13:11-12)

여기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한다. 앞에서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나 되며, 그 열 뿔에 각각 면류관이 있고, 모습이 표범을 닮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을 방불케 하는 매우 사나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계13:2) 이번에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달리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것이다. 이 짐승이 먼저 짐승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권세를 행하고, 먼저 짐승에게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를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두 짐승 가운데서 권세가 약한 놈이 강한 상전(上典)을 받들고, 남들도 그렇게 받들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생

12) 이 짐승이 먼저 짐승과 함께 불뭇에 던져지는 거짓 선지자이다.(계19:20 참조)

명책에 기록이 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13:13-14)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서 받은바 권세로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큰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한다.

일찍이 여호와와는 유향과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였으며, (창19:24) 또한 갈멜 산상에서 드린 엘리야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는데, (왕상18:38) 마귀도 똑같은 흉내를 내어, 권능을 과시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는 경우를 출애굽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모세가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더니, 바로는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으며, (출7:11) 아론이 팔을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애굽의 술객들도 그와 같이 하였던 것이다. (출8:6-7)

저가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13:15)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적은 여기 와서 절정에 도달한 느낌이다. 즉, 이 짐승은 우상에게 생기까지 불어넣어 여호와와 창조자의 권능도 모방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창2:7) 마귀가 이런 흉내를 내고 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으로,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출20:4-5)고 하였다. 옛날 가나안 지방에서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왕하13:6, 대하15:16, 신7:5 등 참조)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한 동방 여러 나라에서는 옛날 바알세뵘을 섬겼던 것이다.(왕하1:2-6, 마10:25, 막3:22, 눅11:15)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은 지상의 그것처럼 가만히 있는 우상, 즉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렘10:14) 그런 우상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귀는 일종의 창조력까지도 모방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는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생기’는 생명력으로 영의 세계에서만 통용된다.(겔37:5)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하였으며, 두 증거자인 두 감람나무의 죽음도, 이 생기가 다시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생령이 된 것은 죄짓기 전의 영의 세계에서 된 일이고, (창2:7)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살게 된다는 것은 두 증거자가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짐승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후의 일로, (계11:7) 그것 역시 영의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반드시 천년세계가 끝나야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의 최후의 싸움인 3차 전쟁 때에 볼 수 있는 일이다. 3차 전쟁이란 이미 말한 것처럼 성령과 악령이 피차에 마지막 판가름을 하기 위해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다. 그리고 생기란 영적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짐승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 버린다. 그런데 여기 ‘죽인다’는 말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하는 죽음은 있을 수 없으며, 이 말은 요컨대 크게 해친다는 뜻이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13:16-17)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즉, 이 짐승이, 다시 말해서 용의 직속 부하가 모든 사람 — 지위의 고하나, 빈부의 차이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 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서 당신의 성도로 삼는 것을 모방하는 마귀의 계교를 볼 수 있다.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치는 것까지도 그대로 흉내 낸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당신의 종을 들어 쓰실 때 으레 오른손을 통해서였다. 즉,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고,(출15:6)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으며,(행2:33) 모세도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랐던 것이다.(출14:16)

이마는 성도들에게 인치는 곳으로,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천사에게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나서, 이들의 목숨을 건지라고 지시하였으며,(겔9:4-6) 계시록에는 천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계9:4)고 하였다. 이 사람의 이마는 집으로 비유해 말하면 문설주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표시를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모면하게 했던 것이다.(출12:7) 이것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보여주신 상징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마에 친 성령의 인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나 영체로 화한 성도들이나 또는 영체인 마귀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다. 일찍이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본 것이 마귀였고, 또 귀신들린 사람, 곧 미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곧잘 알아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사나 ‘짐승’은 사람들의 이마를 보면 여호와와 의 편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속해 있는지 곧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印)을 맞은 자가 있으면 용이 부리는 짐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고 하며, 이마에 마귀의 인을 맞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 천사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는 각각 자기의 표를 이마에 찍으려고 한다. 아무튼 영적인 셋째 싸움에 와서는 이 표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의 편과 마귀의 편으로 크게 나뉘지게 마련이며,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 이른바 중립을 지킬 수는 없게 된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표’란 쉽게 말해서 일종의 표지(標識)로, 여호와와 의 표를 받으면 여호와와 의 보호를 받고, 마귀의 표를 받으면 마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가인을 내 쫓을 때 다른 자의 해침을 받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 죽음을 모면하게 했던 것이다.(창4:15) 본문에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흔히 김 서방, 박 서방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짐승의 머리에 쓰여 있는 ‘참람된 이름’을 가리킨다.(계13:1)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않은 자는, 일제히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매매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가리킨다기보다 모든 거래를 금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지상에서도 전쟁 때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군수물자의 수송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 적은 며칠 못 가서 군량이 떨어지고 탄환이 동이 나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데, 이와 비슷한 수법이다. 마귀의 때이므로, 즉 마귀가 권세를 잡는 1,260일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때이므로 성도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13:18)

여기서 말하는 지혜나 총명은 인간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헤아리는 지혜요, 총명이다. 바울이 말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전2:7) 말이다.

그리고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하였다. 사람의 수란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그런 의미의 수가 아니라, 사람이 계산하는 수라는 뜻이다. 그 짐승의 수가 곧 666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666이라는 수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수 666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다. 즉, 마귀 자신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수 7보다 하나가 작은 6이며, 마귀는 이 정도의 권세로 세 번에 걸쳐(첫째 싸움, 둘째 싸움, 셋째 싸움) 하나님과 겨룬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갖고 있는 힘(전투력)의 비율이 7:6인 것이다. 따라서 마귀는 능히 하나님의 적수(敵手)가 될 수 있다. 그런 고로 6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분주하고 다툼이 있을 때 사용된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실 때도 6일간만 분주하셨고 7일째는 평화를 누리셨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도 6천 년간 싸우시고 7천 년이 되는 때에는 천년안식을 예정하고 계신다. 분주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뜻이다. 상대 없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갖고 있는 6수까지는 다툼을 피할 길이 없지만, 7수에 도달할 때는 마귀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신과 신의 섭리이다. 다시 말해서 규례인 것이다.

그리하여 마귀는 자기의 6수인 여섯까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든 술수를 능히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완전수인 7수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7이면 마귀는 6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마귀는 하늘 보좌를 향해서 참람된 말로서 하나님께 훼방하며(계12:10) 하나님의 에덴동산에 침투하여 인간을 영생에서 사망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Chapter 14.

어린 양의 아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雷聲)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14:1-2)

12장과 13장은 성도에 대한 사단의 박해를 기록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하늘 군병인 어린 양의 아내의 배출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즉, 앞에서는 주로 마귀의 사자인 두 짐승, 곧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장에는 여호와와의 군병인

14만 4천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13장과 14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한꺼번에 짝 펼쳐 보이면, 혼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공백은 ‘또 내가 보니’라는 말씀에서도 암시되어 있다.

이때 요한이 본 이상은 시온 산을 무대로 하여 나타났다. 성경에는 “너희가 이른 곳이 시온 산” (히12:22)이라고 했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2:6)고 했다.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에 탄생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시온 산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을 가리키며, 사도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고장이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실 때, 언제나 당시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신다. 만일 이 경우에 요한에게 시온 산이 아니라, 서울의 남산을 보여주신다면, 요한은 낯선 곳이라 상당히 어리둥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온 산을 보여주신 것이며,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

이 시온 산에 주님(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들이 서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높은 꼭대기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의 성도들이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과 가까운 높은 곳에 서 있는 성도가 있고, 제일 아래 기슭에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는 성도가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서열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리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들 14만 4천 속에는 물론 사도 요한도 끼어 있다.

14만 4천의 의로운 성도들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천년성에서 주와 더불어 왕 노릇하며, 심판하는 권세가 부여되는데, (계20:4) 이들 중에는 선지자와 사도 및 신, 구약 시대의 순교자들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마에는 주의 이름과 하나님(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 이름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성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3장에서도 짐승의 이름이 사자나 말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듯이,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달리 풀이되듯이, (히7:2-3) 그 이름은 여호와의 뜻, 즉 그 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께서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여(고전15:25) 다스리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주를 먼저 찾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신, 구약 시대를 통틀어 참여하게 되는 14만 4천 명의 성도 중에서 신약 시대의 성도가 구약 시대의 성도보다 서열이 앞서게 되어 있다. (계20:4 참조) “죽이는 자의 직분보다 살리는 자의 직분이 더 크다.” (고후3:7-8)는 바울의 말은 이를 밑받침하고 있다. “지나간 것은 새로운 것의 그림자” (히9:24, 히10:1)라는 말씀 그대로, 구약

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시작한 것을 신약에서 마무리 짓게 되어 있다. 본문 말씀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인 사람이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인 사람이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다. 그리고 이름을 쓴다는 ‘이마’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육적인 의미의 이마가 아니다. 이마에 이름을 쓴다는 말은 요컨대 인을 친다, 즉 주의 아내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출 28:36, 계7:3, 9:4, 22:4 참조)

요한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광경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귀로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처음에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계1:15, 겔43:2 참조) 시내 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들린 우렛소리 같기도 하더니(출20:18) 이윽고 거문고 소리처럼 들려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14:3)

‘보좌와 네 생물 및 장로’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다. ‘새 노래’는 옛 노래와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옛 노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옛 노래란, 곧 구약 시대에

여호와를 찬양하던 노래이다. 예컨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미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 라.”(출15:1) 하는 노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새 노래는 이와는 달리 주의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모신 성도들만이 배울 수 있다. 이 ‘배운다’는 말과 ‘부른다’는 말은 다르다. 노래를 부르려면 우선 배워야 하며, 배우려면 그 자격부터 갖춰야 한다. 세상에서도 가령 베토벤의 심포니 9번을 연주하기 위해 연습을 하려면, 그만큼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 배우려면 하루하루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 14만 4천의 의로운 성도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의 아내로,(계22:17)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다른 무리들은 구원은 얻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14:4-5)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란 육적인 의미의 동정(童

眞)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혼자나 미혼자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말로서 음란죄에서 벗어남을 가리킨다. 설사 여자를 모르고 일생을 살아도, 마음속으로 항상 불미한 음욕을 품으면, 그는 결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혼하여도 눈길이나 생각으로도 딴 여자를 탐내지 않았다면 그는 적어도 이 방면에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란 이와 같이 그 마음가짐을 중요시하며, 결코 외모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음란죄는 인간에게 가장 뿌리 깊은 암(癌)이며, 가장 고약한 마귀의 농간으로, 성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언제나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잠언서에도 “지혜가 너를 음녀(淫女)에게서 구원한다.”(잠2:16)고 하였으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썩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死地)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잠5:3-5)고 하였다.

이 본문의 ‘여자’란 요컨대 음녀를 가리키며,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계17:6)고 하였으며, 또한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계17:18)이라고 하였다. 여기 말하는 ‘여자’란 음녀, 곧 영육 간에 저지르는 모든 죄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주와 더불어 천년세계에서 왕 노릇할 이 14만 4천의 의로운 성도, 곧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며, 또한 ‘정결’이 있어야 한다. 즉, 주의 아

내 된 자로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본위로 살아야 하며, 주(어린 양)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갈5:18)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물론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면 모세의 율법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다.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단계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나 지키는 정도에 그쳐서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14만 4천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상징하여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라고 하셨다.(출4:22)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군병들이 14만 4천으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은 그 그림자이다.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구약 시대에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에게 바친 것처럼,(출33:19, 34:26, 잠3:9) 성령의 처음 열매인 ‘흠이 없는 자’가 된 이들은 하나님과 주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렘2:3)고 했으며, 야고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약1:18)고 하였다.

이들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을 받아, 이와 같이 첫 열매로 주

의 아내가 되었으며,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부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 말이 오히려 부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 가령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된 계기가 되게 한 것은 오히려 여호와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수2:4-6) 반대로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했던들, 여호와와의 영광을 가려 그 징계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마10:16)는 주님의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모세 율법과 자유 율법의 차이는 이런 데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정죄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지혜롭게 판단을 내린다. 그러기에 바울도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히7:19)고 하였던 것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4:6-7)

요한은 얼마 후에 천사가 날아가는 또 다른 계시를 보았다. 이

천사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복음이 제한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그와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은 지상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난다. 가령 주께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면, 일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며, 따라서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없다. 영원한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언제나 존속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큰소리로,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친다. 하늘에서 심판을 하게 되므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성경에 이 책은 단수로 기록된 경우와(단12:1) 복수로 기록된 경우(단7:10)가 있는데, 단수의 책에는 구원받을 자의 행적이, 복수의 책에는 멸망 받을 자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계20:12-15) 구원을 얻는 자는 수가 적어서 한 권의 책에 기록할 수 있지만, 멸망을 받을 자의 수는 많아 한 권에 다 기록할 수 없어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던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고 말씀하였다. 즉, 주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보좌에 앉을 때에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불가불 임시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므로(고전

15:25) ‘나의 보좌’라고 할 수 없다. 주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정식으로 앉는 것은, 천년세계가 끝나고 원수가 발등상 된 후, 심판이 베풀어질 때이다.

천사는 이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친다. 13장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조리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천사와 ‘짐승’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14:8)

둘째 천사가 하늘을 나는 천사의 뒤를 이어 바벨론성이 무너졌다고 요한에게 외친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모든 백성들에게 음란죄를 짓게 만들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하였다. 바벨론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옛날 수도로 느부갓네살 왕 때에 크게 번성하였으며, 왕의 신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의 전(殿)과 왕궁과 귀인의 집을 불살라 버리고 많은 행패를 부렸다.(왕하25:8-10) 천사가 이 도시를 인용한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쉽사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이다. 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계17:5)라고 하였으며, 예레미야

서에는 “바벨론은 여호와와 수종의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렘51:7)고 하였다. 이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요컨대 악의 뿌리가 뽑혔다는 뜻이다.

이 바벨론은 음행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당시에 포도주는 흔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즐겨 마시고 추태를 부렸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레10:9)고 당부했으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뱀의 독’(신32:33)이라고 경고하였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가르침을 어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음녀란 넓은 의미에서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9-12)

13장에 보면, 둘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큰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첫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여,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계 토틀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째 조항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형상(形象)에 절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위주로 사는 데서 벗어난 모든 언동(言動)은 넓은 의미의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주님도 “나보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마10:37, 눅14:26)고 말씀하셨다.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 제일주의(第一主義)로 사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여 마귀의 표를 받은 자는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서 표를 받는다는 말은 물론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요컨대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증거가 뚜렷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과 유향에 의해서이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 것도 이 불과 유향이었으며, (창19:24) 다윗도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고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라.”(시11:6)고 하였다.

그런데 마귀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죽여 버리며, 또 설사 살아남아도 일체의 ‘매매’(거래)를 못하게 한다.(계13:17) 그러니 이런 틈바구니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오직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키며,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신을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인내를 강조하여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마24:12-13)고 말씀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 금(自今)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14:13)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진 다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여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주님의 영음(靈音)으로, 요한은 들은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신을 모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주의 고난에 동참한 자를 가리킨다. 바울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었다.”(골2:12)고 하였으며, 주께서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살전4:16)고 말하고, 구원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을 압이로다.”(롬6:8-9)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주의 신을 모시고 육이 숨지는 것을 의미하며, 속사람이 주의 신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을 그대로 지니고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께서 거듭날 것을 강조하신 것은 이 때문이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마 10:38)고 하였다. 이 십자가는 주를 위해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희 행한 일’은 이윅고 응분의 보상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주님이 아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利)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14:14-16)

14절부터는 장면이 다시 바뀌어, 이긴자와 천사가 각각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는 심판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데, 천사가 그에게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둬들이라고 이른다.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주님이 아니라 이긴자로, 그가 낫을 들고 있는 것은 이긴 후 알곡을 거두는 사명을 받은 것을 보여 준다. 그 머리에 있는 금면류관은 이긴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다.(계2:10) 바울도 자기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義)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셨다.(딤후4:7-8)

손에 든 ‘낫’은, 전장에서 싸울 때 사용하는 ‘검’과는 달리 추수하는 데 사용한다. 요엘서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욘3:13)고 했으며, 주께서도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되었음이라.”(막4:29)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성전은 하늘의 지성소와 다르다. 성전이란 여호와를 경배하고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장소로, 요한이 알기 쉽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 천사는 성전을 주관하는 ‘인치는 천사’(계7:3)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상달케 하는 천사이다.(계8:4)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과 가장 긴밀한 사이에 있는 천사로, 앞선 종의 움직임을 나중 종에게 알려 주기도 한다. 천사는 각각 자기가 맡은 바 부서와 소임이 따로 있으며, 만일 자기 직분을 완수하지 않거나, 다른 천사의 임무에 간섭하면, 다시 말해서 ‘천사가 자기 처소

를 떠나면’ 처벌을 받게 된다.(유1:6, 벰후2:4) 이 천사는 성전에 관한 일을 주관하므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다. 따라서 성전에 ‘곡식’이 다 익었는지의 여부도 미리 알아서, 이긴자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다.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면, 천사의 지시에 의해 이긴자는 알곡과 쪽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하늘 창고’ 안으로 거둬들이게 된다. 여기 말하는 알곡은 다름 아닌 의로운 자, 곧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계14:4)이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일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14:17-20)

이긴자가 알곡, 곧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여호와와 마귀의 2차 전쟁 때에 일어나는 추수이고, 천사가 쪽정이, 곧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던져 피를 보게 되는 것은 영적 3차 전쟁이 끝나고 일어나는 추수, 즉 심판하는 광경으로 전자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는 심판자가 이긴자이고, 그 지시를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심판자가 천사이며, 그 지시를 하는 자는 제단에서 나온 천사이다.

성전과 제단은 다르다. 즉, 제단은 성전 안에 있으며,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단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라.”(계11:1)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어들이라는 지시를 하는데,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이다. 이 천사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왕상18:24)께서 부리는 영으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제물을 태운 것이(대하7:1) 바로 이 천사가 한 일이며,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이에 응답하여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운(왕상18:24) 것도 이 천사가 한 일이었다.

이 천사가 거두어들이라고 지시한 포도송이는 쪽정이를 가리키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자들(계14:9)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성 밖에서 틀이 밟히게 된다. 그러니까 알곡은 성안에, 쪽정이는 성 밖에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일찍이 주님도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자는 사환을 시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고 말씀했으며(마22:13) 게으른 무익

한 종도 역시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하셨는데,^(마25:30) 이 ‘바깥’은 곧 성 밖이다.

요컨대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자는 여호와와 진노를 받아, 큰 포도주 틀에 밟혀서 피가 1,600스다디온에 이르게 된다. 여기 말하는 ‘진노의 포도주 틀’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호와를 외면하고 자행자지한 자들에 대하여 심한 처형을 내리는 형틀을 의미한다.

이 죄인들의 피가 1,600스다디온까지 퍼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온 땅에 여호와와 진노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1,600스다디온은 로마자로 606척, 이를 km로 환산하면 약 320km, 우리나라 이수(里數)로는 800리가 되며, 팔레스타인 남북의 길이와 맞먹는다. 그러니까 심판이 온 땅에 퍼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당시에 여호와와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쏠렸으며, 이방인은 안중에 없으므로, 이 1,600스다디온의 거리는 이스라엘 온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Chapter 15.

마지막 재앙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15:1-4)

이 장(章)에는 14장과는 다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즉, 일곱 천사가 각자 한 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모두 일곱 재앙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죄인들에 대한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마지막 재앙’이다.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성업(聖業)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요한이 또 보니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성도의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광경은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준 것으로, 계시록 4장에 보면, 여호와와 “보좌 앞에 수정(水晶)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계 4:6) 하였는데, 이 유리 바다에 섞인 ‘불’은 심판을 상징하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히12:29)이라, 쪽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마3:12)

짐승과 그 우상, 그리고 이를 따르고 섬기는 무리와 싸워 이긴 자들은, 14장에서 보여준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된 14만 4천의 성도를 가리키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

14장에서는 ‘구속 받은 처음 익은 열매’(계14:4)인 14만 4천이 주님과 함께 시온 산에 섰는데,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은 유리 바닷가에 있다. 그럼 어찌하여 이와 같이 다르게 나타났는가? 전자는 주님과 천년세계에서 나타나는 광경이고, 후자는 짐승이 지배하던 42달이 끝난 다음에 짐승의 손에서 벗어난 군병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것이므로 장면이 달라지

는 것이다.

이때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동시에 부른다. 모세의 노래는 구약 시대에 여호와와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출15:6, 민21:17, 대상13:8, 시95:1)를 대표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시대에 여호와와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눅19:37, 롬15:9, 히2:12, 계5:9)를 각각 대표하는 것이다. 이들이 노래할 때 사용한 악기는 거문고이다.(왕하3:51, 삼상16:23)

그 노래는 여호와와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함과(시92:5, 시111:2, 시98:1) 여호와와 의로우심(시145:17)과 거룩하심,(삼상2:2, 시99:5, 시111:9) 만국이 여호와께 경배함(시86:9, 시98:2)을 찬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 구약 시대를 통틀어 땅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문고를 들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
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15:5-8)

여기 앞의 장면 후에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난다. 여호와와 계시

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한꺼번에 보여주면 혼동하기 쉬우므로, 이와 같이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앞에 언급한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다. 증거의 장막은 구약에 성막(聖幕)의 이름으로 자주 나온다.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두었으며, **(민17:7)**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민18:2)**고 하셨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일곱 천사에게, 네 생물 중의 하나가 금대접 일곱 개를 주는데, 네 생물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계4:7 참조)** 네 천사장을 가리킨다. 이때에 네 생물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것은 여호와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발동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진노가 풀리기 전에는 아무나 감히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행사하시는 권능을 연기로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세가 여호와를 시내 산에서 영접할 때 산에 연기가 자욱하였으며, **(출19:18)** 시편에는 여호와의 진노로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시18:8)**라고 하였다.

솔로몬 당시에 도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가득할 때는,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왕상8:10-11, 대하5:1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적에는 아무도 근처에 얼씬 못하는 것이다.

Chapter 16.

아마겟돈 전쟁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16:1)

이 장(章)에는 여호와의 마지막 무서운 진노에서 비롯되는 재앙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8장에서 11장에 걸쳐 일곱 나팔은 불 때 일어나는 재앙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요한에게 성전에서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것은 일곱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여기 나온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계14:17)으로, 그 영음(靈音)의 내용은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 위에 쏟으라는 것이었다. 이 ‘대접’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성전에서 사용할 그릇을 만들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대접이 들어 있다.(왕상 7:40) 그런데 여기서도 옛날에 사용하던 대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옛 것은 나중 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다.(히 10:1)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요, 옛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인 것이다. 여호와와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의 마지막 재앙은 종전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보다 한결 무시무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애굽의 바로(왕)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재앙을 내렸다.

- ① 강물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가 죽고, 애굽인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출7:21)
- ② 개구리가 애굽 땅을 덮게 하며(출8:6-7)
- ③ 땅의 티끌이 이(虱)가 되어 애굽 땅에 득실거리게 하고(출8:16)
- ④ 무수한 파리 떼가 애굽 전체를 뒤덮게 하고(출8:24)
- ⑤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고(출9:3-6)
- ⑥ 애굽인들에게 독종(毒腫)이 발하게 하고(출9:8-11)
- ⑦ 애굽 땅에 무서운 뇌성과 우박이 내리게 하고(출9:22-26)
- ⑧ 애굽 땅을 메뚜기가 뒤덮게 하며(출10:21-23)
- ⑨ 애굽 땅이 3일 동안 암흑에 싸이게 하고(출10:21-23)
- ⑩ 애굽의 모든 장자(長子)를 죽게 하였다.(출12:29-30)

이것은 물론 여호와와 마귀가 인간을 사이에 두고 겨루는 첫 번째 싸움을 하던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내린 가장 대표적인

재앙이다. 그런데 여호와와 마귀가 인간의 혼을 중간에 놓고 겨루는 둘째 싸움이 전개되는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재앙은 계시록에 장차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려와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린다.(계8:7) ②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이 내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된다.(계8:8) ③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 물이 써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계8:10-11) ④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의 삼분의 일이 침해를 받아 낮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진다.(계8:12) 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저갱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 나온다.(계9:1-2) 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나고 악한 마병대가 와서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인다.(계9:13-21) ⑦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선포된다.(계11:15)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등장한다.

위에 열거한 재앙과 비교해 보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마지막 재앙은 더욱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16:2)

우리는 13장에서, 영적인 셋째 싸움에서 마귀가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매매를 금지하는 장면을 보아 왔는데,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여호와와의 재앙을 받아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온몸에 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마귀가 이미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배한 후에 재앙이 내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의 세계가 아니며,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독한 종기는 육적인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유로 사용한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영이 크게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아야 한다. 육이 창이나 칼, 원자 폭탄 등, 육에 의해 괴로움을 받듯이 영은 영에 의해 괴로움을 받게 마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다른 무엇을 여호와보다 더 소중히 여겨 받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주님보다 더 위하거나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갈
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生物)이 죽더라.(16:3)

둘째 천사가 여호와와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갈이 붉어지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물고기)들이 죽는다는 말도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다를 주관하던 마귀의 권세가 꺾인다는 의미이다. 마귀는 그 말은 바 직분이 각각 다를 뿐더러, 그 담당할 지역도 다르다. 예컨대, 산에서 활동하는 마귀가 있고, 바다에서 활약하는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다.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리하여 성경에는 바다에 있는 악령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다. 가령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을 …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龍)을 죽이시리라.”(사27:1)고 했으며, 계시록에도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계12:12)라고 경고하였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16:4-7)

이번에는 진노의 대접을 강과 수원(水源)에 쏟으니 피가 되었

다고 하였다.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하며, 강과 수원의 악의 세력을 전멸한다는 뜻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모세는 강물이 온통 피가 되게 하여 거기 사는 물고기를 죽여 버렸으며(출7:20) 요엘 선지자는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욘2:31)고 하여, 천체의 멸함을 상징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물들게 한다.”(미3:10)고 하여 그 멸망을 예고하였다.

이와 같이 악의 세력을 소탕한 천사가 일찍이 저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피를 마시게 하여 보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였다.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멸망을 시킨다는 뜻으로, 주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마 23:35)고 하셨다. 계시록에 마귀 편에 선 자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계14:10)는 말도 같은 뜻이다.

천사가 말을 마치자, 이번에는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 여호와와의 심판이 합당하다고, 천사의 말에 화합한다. 앞에서 성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16:8-9)

넷째 대접은 지구상이 아니고 ‘해’에 쏟는다. 즉, 재앙이 지구 상에서 천체로 옮겨간 것으로, 여기서 해는 천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대접을 어떻게 해에 쏟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육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장면이다. 즉, 영적인 비유이다.

이 해가 받은 권세는 주의 빛을 가리키며, 이 빛이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비칠 때 그들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된다. 바울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행26:13) 땅에 엎드렸던 것이다. 이 빛은 불의 역할을 하여 죄인을 태워 버린다. 여호와께서는 유향과 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사르고,(창19:24)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왕이 보낸 장정 50명을 불사르고,(왕하1:10) 나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불처럼 쏟는다.”(나1:6)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큰 재앙을 당하여도,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는 자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적한다.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한 대로 살아간다(계22:11)는 말씀을 연상케 한다. 저들은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을 때, 그만큼 속속들이 악에 물들게 되는 것이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중

기(腫氣)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悔改)치 아니하더라.(16:10-11)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을 때의 장면이다. 짐승의 보좌란 용이 짐승에게 준 것으로,(계 13:2) 하나님이 이긴자에게 주는 보좌(계3:21)와 매우 대조적이다. 본래 이긴자와 짐승은 서로 적수(敵手)이며, 그 때문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계11:7)과 더불어 싸우게 마련이다.

이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즉시 어두워지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나라란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며, 이것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멸망됨을 의미한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악의 도성인 “열국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학2:22)라고 말씀한 그대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엮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무리(백성)들은 자기 혀를 깨물고,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은 알아듣기 쉽게 육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며, 따라서 온몸에 실제로 부스럼투성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종기란 있을 수 없지만, 인간의 감정이나 감각은 그대로 느끼게 된다. 즉, 그 세계에도 희, 노, 애, 락(喜怒哀樂)이 있고, 아프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쓰디쓴 모든 느낌이 있는 것이다. 다만 하늘에

속하는 세계와 땅에 속하는 세계의 여건이 다른 것이다. 주께서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어야 하고, 성도가 하늘나라에 갈 때 홀연히 변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영체로는 지상에 드러낼 수 없고, 육체로는 하늘나라에 살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대접을 쏟아, 이런 고통을 당하여도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는다. 그만큼 마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反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 마귀의 권세에서 비롯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16:12-16)

이번에는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다.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 에덴동산에서 발원한 네 번째 강으로 되어 있고,(창2:14) 또 오늘

날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흐르는 2대 강의 하나이며, 당시에 바벨론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었다. 요한은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다. 전자는 영적인 강이요, 후자는 육적인 강이다.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으니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권능에 의해 바닷물이나 강물이 마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길이 되게 한 것이라든지, (출14:21)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마른땅을 밟고 간(수3:17) 경우가 다 그렇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海股)를 말리우시고, 손으로 유브라데 하수(河水)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뉘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사11:15)고 했으며, 예레미야서에는 “내가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렘51:36) 하고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

말라 버린 유브라데 강 위를 걸어오는 ‘동방의 왕들’은,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큰 짐승’을 네 왕이라(단7:17)고 하고, 이사야가 “열방의 모든 왕을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한다.”(사14:9)고 한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상 임금, 곧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에 요한이 본 계시는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여기서 개구리는 술객(術客)들이 아론의 흉내를 내어 개구리로 애굽 땅을 덮게 한

것처럼(출8:6) 악령의 비유로 사용된 것으로, 용(계20:2)과 짐승(계13:11, 14:9)과 거짓 선지자(계19:20)는 그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루고 있다.

더러운 영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곧 영적인 셋째 싸움을 위해 그 무리들을 사방에서 모아들인다. 성경에는 이 큰 날에 대하여,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大君)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단12:1)라고 했으며, 바울은 그날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라.”(롬2:9)고 하였다. 이 큰 날의 환란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아 1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천 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 잠간 놓이게 하여”(계20:1-3)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정죄의 심판이 벌어지기 직전의 일이다. 계시록에는 이 밖에도 이 셋째 싸움에 대하여 언급한 대목이 많다.(계9:7, 11:7, 12:7 참조)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는 이 날을 위해 준비가 있어야 한다. 즉, ‘자기 옷’을 단정히 입고, 주님의 신부로서 깨끗한 차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 옷은 물론 상징적인 비유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 옷을 가리키며(계15:6)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다.(계19:8) 그러므로 ‘옷을 지키라’는 말은 요컨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다.

세 악령(용, 짐승, 거짓 선지자)은 마지막 싸움을 위해 아마겟돈

에 ‘세상 임금’들, 곧 자기편인 어둠의 세력을 모아 만반의 대비를 갖춘다. 아마겟돈은 성령과 악령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므깃도 산’을 가리키며, 므깃도 근처의 이 산은 옛날 유명한 싸움터였다.(왕상9:15 참조)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싸움을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때는 육의 세계가 이미 사라진 뒤이므로, 육의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움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重數)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雹災)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16:17-21)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째의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엡2:2)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이다. 공기 가운데 대접을 쏟으니 성전의 보좌(계1:-5)로부터

큰 영음이 들려왔다. 그 첫마디가 “되었다”였다. 일곱째 대접까지 쏟아져 이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소탕되었다는 뜻이다. 일찍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 회복의 큰길을 트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로, 이제 완전히 악의 세력을 멸하려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일곱째의 진노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및 큰 지진’(계11:19)이요, 또한 섬과 산이 없어지고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하던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본거지인 바벨론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악의 도성들도 큰 지진으로 무너진다. 이 바벨론 성의 죄악상(罪惡相)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묵인해 왔으나, 이제는 기억하신 바가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되어 있으며,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 ‘우박’도 역시 비유로 사용하여, 영적인 싸움의 양상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면 약 35kg이므로,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자들은 이런 여호와의 진노에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휘방한다.

Chapter 17.

음녀(淫女)의 행패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淫女)의 받음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17:1-2)

이 장에는 18장과 함께 일곱째 대접의 심판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절에는 음녀에 대하여 다시 기록하였다. 음녀는 음란의 원흉(元兇)으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즉, 물처럼 어디나 고루 퍼져 있어,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음녀의 침범을 받기 쉬운 것이다. 다른 죄

악, 가령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사기, 중상 등의 죄악은 가끔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음란에는 독신자와 미혼자를 가리지 않고 항상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그것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어디나 수시로 침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엄청난 악의 세력을 물로 비유하고 있다. “그 대적(對敵)이 많은 물의 요동함 같이 소란한 소리를 발하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렘 51:55) 이것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실 때의 한 장면이다. 그리고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方言)들이니라.”(계 17:15)고 하였다. 음녀의 힘은 물처럼 곳곳에 스며들어 인간을 수시로 죄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음녀로 더불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다.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少時)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잠2:16-17) 또한 이사야는 ‘음녀의 씨’가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운다.”(사57:3-5)고 하였으며,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더니,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기록하였고,(민25:1-2) 나훔서에는 기생이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한 이야기가 쓰여 있으며,(나3:4) 계시록에는 여러 군데 이 음란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계14:8, 18:3, 19:2) 음란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무서운 죄이며, 인간의 수양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차고로 주의 종들도 이 죄로 떨어진 자가 많은 것을 보아도 저간의 소식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대가 있어야 저지르게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죄와는 달리, 혼자 골방 속에서도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죄는 피한다고 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이겨야 한다. 그러나 주께서 능히 극복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전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사람들을 언제나 미혹하기 때문이다. 위정자(爲政者)들의 그늘에는 언제나 여자가 따르고, 큰 거래에 미인계(美人計)가 판을 치며, 심지어 예술 분야에도 미(美)의 간판을 달고 이 음녀가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요한을 광야에 데리고 나간 것은, 주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고,^(마4:1)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처럼,^(고후12:1)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도 “주의 신이 나를 들어 … 이상 중에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겔11:24)라고 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은 광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환상을 본 일이 많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는 것이 그렇고^(출3:1)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천사를 만났다.^(왕상19:4) 세레 요한도 광야에서 여호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눅1:80)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17:3-5)

여자가 ‘붉은 짐승’에 올라타고 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는 어린 양의 아내(계22:17)와 어린 양의 적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후자의 경우이다. 그리고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어린 양의 아내는 ‘백마’를 타고 등장한다.(계19:11) 여자가 탄 붉은 짐승은 몸에 ‘참람된 이름’, 즉 여호와를 대적하는 마귀의 꾀술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긴자에게 준 ‘흰 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과는 정반대이며,(계2:17, 13:1 참조) 호세아가 말한 ‘바알들의 이름’(호2:17)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이 짐승의 몸에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상세히 나오지만 마귀의 강한 권세를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 여자의 옷차림이 상당히 화려하여,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흰 세마포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이 여자는 ‘자주와 붉은 옷’을 걸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 이것은 지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모습을 나타낸 것

으로, 저 벨사살 왕의 고사(故事)를 연상케 한다. 왕은 연회 석상에서 나타난 벽에 쓰인 글자를 해명하기 위해, 당대의 술객(術客)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治理者)를 삼으리라.”(단5:7)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 여자는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따르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금잔은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으로 된 술잔”(렘51:7)으로, 바울도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전10:21)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비밀’로 된 참람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즉, 여호와에게만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비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호와와 마귀는 비밀을 간직하고 일정한 룰(규례) 아래서 싸우게 되어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관하던 최악의 도성 바벨론이 음녀의 모체(母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기 쉽게 육적인 바벨론으로 악의 세력을 표시한 것이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

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生命冊)에 녹명(錄名)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17:6-8)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곧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여기 성도란 구약 시대 순교자들이며, 이들은 예수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었다.(마27:53) 예수의 증인들이란 신약 시대 순교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주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계5:9) 즉,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롬1:7)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고전1:2)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이 이 음녀의 괴상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자, 천사가 짐승의 비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들려주었다. 즉, 이 짐승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한 마귀로, 요한이 이상을 보고 있는 당시에는 없지만, 천년세계가 끝나는 날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며,(계11:7, 20:3) 장차 백마 탄 자와 그를 따르는 군대에 의해 잡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계19:20)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 다니엘은 이에 대해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즉 그는 권세를 빼

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聖民)에게 붙인 바 되리니”(단7:25-27)라고 하였다.

이것은 매우 극적인 장면이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모습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 즉 짐승의 지배를 받은 자들도 매우 기이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저들은 일찍이 짐승의 편에서 움직이면서 응분의 복락도 누려왔지만, 함께 멸망의 처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호와를 등지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새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山)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17:9-11)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비밀에 대한 지혜로운 설명은 계속된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라고 하였다. 여자가 앉았다는 말은 죄를 딛고 그 위에 있다, 즉 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며, 산은 죄의 더미, 곧 하늘 높이 솟은 그 세력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세력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투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슥4:7-8)는 말씀 그대로, 불원에 부서져 나가게 되어 있다. 또한 이사야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거같이 할 것이라.”(사41:15)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일곱 산과 일곱 왕은 동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왕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임금’(단7:17)과 같이 죄의 세력을 의미한다. 또한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완벽한 죄악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이 일곱 왕 가운데서 다섯 왕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용과 함께 무저갱에 들어갔다가,(계20:3) 천 년이 지난 후 놓여나서, 그중 하나가 42달 동안 지배할 권세를 용에게 받게 된다.(13:5)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이 짐승은 일곱 왕에 속하여 무저갱 속에 갇혀서 있다가 다시 나타났으니 ‘여덟째 왕’이며, 자기 때(1,260일)가 지나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계11:7-8, 20:7-9 참조) 이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소탕하는 크신 경륜의 하나이다.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17:12-14)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열 뿔’, 곧 ‘열 왕’은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줄개(나라)를 거느리지 못하고 있다가,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1,260일) 권세를 받게 된다. 이들은 뜻을 모아 그 능력과 권세로 짐승을 도와준다. 즉, 용(龍)의 직속 부하에게 힘을 모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들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엘리야와 다니엘은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의 사람으로 서로 안면이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한뜻이 되어 힘을 합쳐서 마귀에게 대항하게 된다. 그러기에 바울도 형제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1:10)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마귀의 마지막 셋째 싸움을 앞두고 서로 세력을 규합하게 되는데, 이마에 각각 다른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파로 갈리게 되어 있다.(계7:2, 13:16-17 참조)

악의 세력이 규합되면 주의 편에 선 의(義)의 군병들과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된다. 여기서 “어린 양과 싸운다.”는 말은 주님이 앞장 서시고, 그 뒤를 따르는 의의 군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계19:14 참조)

이 싸움은 주님의 승리로 끝난다. 주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딤후6:15, 행10:36) 때문이다. 승리는 물론 주님의 승리인 동시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의 승리이다. 여기 함께 있다는 말은 주의 곁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편에서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이 함께 있는 자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부르심을 입은 자’란 주를 믿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 쉽게 말해서 교회문을 드나드는 자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엡4:1) 한 것이나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골3:15) 하는 ‘부르심’은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문을 드나드는 것 자체부터가 개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빼내심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가운데서 일정한 수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드온의 군사 300명을 빼내시는 것을 연상케 한다.(삿7:7) 이 ‘뽑힘’은 육적인 말이지만, 영적인 ‘빼내심’이라는 말과 언어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운데서 선발된 후에는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진실한 자’란 요컨대 주님 본위의 생활을 하며 그 뜻 가운데 움직이는 자를 말한다.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엡5:9)고 했으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良善)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5:22-23)라고 하였는데, 이 빛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진실한 자’이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하늘의 군대가 되려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되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죄를 이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이긴자’와 이 ‘이긴자들’은 그 권능이 다르다. 전자는 남에게 은혜를 물 붓듯 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지만, 후자는 자기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그친다. 물론 이들 중에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남에게 성령을 부어준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 권능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물 붓듯 부어주지는 못하며, 또 그것은 불 같은 성령이요, 여기에 ‘이슬’(호14:5)과 ‘생수’(속14:8)의 축복을 곁들이지 못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17:15-18)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한 천사의 설명은 계속된다. 천사는 음녀가 앓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즉, 음녀의 세력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다름이 아니라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물고 뜯고 하다가 아주 불살라 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악의 세력끼리 자중지난(自中之亂)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응하여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저희 나라’, 곧 마귀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나라를 허용해 주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지배하는 장본인(張本人)이며, 대개 임금들이 치리할 때의 본거지가 되는 ‘성’으로 상징하고 있다. 세상 임금치고 세상과 짝하여 음란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정당성을 밑받침해 주고 있다.

Chapter 18.

역사의 종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商賈)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致富)하였도다.” 하더라.(18:1-3)

이 강해(講解)의 첫머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계시록은 하나님과 마귀가 겨루는 기본 룰(규례)이라고 볼 수 있는 세 차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뒤엎혀 있는데, 이 18장에서도 우리는 계시록의 이와 같은 구조(構造)를 볼 수 있다. 계시록은 주로 말세에 이루어질 일, 즉 두 번째 싸움의 말기와 세 번째 싸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해명하여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첫째 싸움 때의 일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다. 계시는 이상(異像)을 보여주거나 영음(靈音)을 들려주는 경우와 이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영음도 들려주는 경우가 있으며, 사도 요한은 이러한 계시를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 18장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장(章)은 17장의 연속으로, 첫머리에는 사도 요한이 이상을 본 광경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영음을 들은 그대로 적어 놓았다. 즉, 그가 보니 다른 천사,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일곱 천사 아닌 ‘큰 권세를’ 잡은 천사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히 밝히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어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원자폭탄이나 인공위성을 보여주고, 전자계산기가 어떻고 고고 춤이 어떻다고 들려준다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한 말 가운데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비슷한 대목을 찾아보게 된다.(사13:19-22, 렘51:37, 습2:13-15 참조) 여기 보면, 악의 도성 바벨론이 만국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이

도성이 무너져 권세를 쥔 땅의 임금과 돈을 가진 상인들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셋째 전쟁 때의 이야기지만, 과거 형으로 표현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들은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내세운 바벨론은 고대의 문명국 바벨로니아의 서울로, 그 영화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루어져 화려한 궁전과 바벨론의 수호신이 있는 장엄한 신전 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바벨론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사치를 일삼은 죄악의 도성을 상징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이며, 결코 문자 그대로의 옛 바벨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 말씀에 바벨론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귀가 주관하는 만국까지도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바벨론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이다. 여기서 바벨론을 가리켜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으로 표현하였는데, 이사야서에는 “짐승들이 거기 었드려 부르짖고 …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 화려한 전(殿)에 들개가 온다.”(사13:21-22)고 하였다.

그리고 본문에 멸망할 자로서 땅의 임금과 상고를 지적한 것은 그들이 악에 제일 몰들어 있기 때문이며, 이들뿐만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선 자는 누구나 다 멸망을 면할 길이 없다.

자고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데 권력과 돈은 큰 지장을 준 것

이 사실이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도 이것을 경계하여 멀리한 사람이 적지 않다. 모세나 바울도 그랬다. 물론 모세가 왕궁을 뛰쳐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울이 자비량을 갖고 다니면서 곤궁한 가운데에 하늘의 도를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릇에 따라 주시는 은총도 여러 가지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女皇)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18:4-8)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또 다른 천사를 통하여 당신의 편에서 움직인 성도들에게 그 최악의 도성에서 나와 죄를 멀리하도록 명한

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여호와와의 명령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와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렘51:45)는 말씀과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사48:20)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섞은 잔’, 즉 저주의 잔에는 갑절이나 갚아 준다고 하였다. 이 갑절의 보상은 모세 율법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출22:4),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적을 당하였는데,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출22:7) 등등.

누구나 범죄하면 응분의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여호와와의 신원(伸冤)의 날’이라고 말하였으며, (단7:22) 바울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12:19)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호와를 등지고 마냥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자들(女皇)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곧잘 큰소리를 치며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은커녕,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眞鍮)와 철과 옥석(玉石)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香油)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18:9-13)

여호와께서 죄인을 던져 버릴 불못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눈으로 바라보고 나서야 저들은 울며 가슴을 치게 된다.

‘땅의 왕들’로 표시되는 권력에는 돈이 붙고, 돈에는 여자와 사치가 따르게 마련이다. 돈의 힘은 이렇게 무섭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다. 또한 성경은 상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상고여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호12:7) 자고로 장사에는 불의(不義)가 곧 잘 끼어들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주님도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19:24)고 말씀하셨으며,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다. “부한 자

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약5:1-3) 이어서 그는 말세에 재물을 쌓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본문 말씀에 “상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고 하였다. 즉, 거래가 끊긴 것이다. 이것은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는 13장 17절의 말씀과는 정반대이다.

그리고 한 가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상고들의 상품 목록에는 ‘사람의 영혼’도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의 정신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상품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 귀중품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사도 요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船人)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

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致富)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使徒)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伸冤)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18:14-20)

마지막 날에 있을 여호와의 진노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다. 이것은 물론 하늘나라, 즉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 직전의 일이다. 이와 같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망하고 나야 비로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게 되며, 그전까지는 언제나 마귀에게 시달리게 마련이다.

세 차례에 걸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보응도 그 형태가 각각 다르다.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육을 사이에 놓고 싸울 때에는 육적으로 보응한다. 이른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출21:24)라는 말씀 그대로 상대방을 직접 해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의 둘째 싸움, 곧 신약 시대에 오면 모든 법도가 달라져,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게 되어 있으며, 주께서 악의 무리를 무저갱 속에 가두게 된다. 그러나 셋째 싸움에 와서는 마귀의 편에 선 모든 악의 세력을 불 구렁텅이에 모조리 쓸어 넣게 되는 것이다. 이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여

기서 죄악 속에 허덕이던 인류 역사는 일단 끝을 맺게 되고, 새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취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商賈)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卜術)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18:21-24)

악의 도성 바벨론이 마치 천사가 바다에 큰 맷돌을 던져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며, 따라서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 세상의 악의 뿌리가 뽑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밝은 사람이므로 그 내용을 인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렘51:63-64)

악의 도성이 무너져 세상에는 거문고를 타고 통소와 나팔을 불며 흥청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모든 수공업자는 볼 수 없으며, 맷돌 가는 소리는 사라지고, 등불도 다시는 비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에스겔은 두로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했다.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고....” (겔26:13)

바벨론의 멸망은 악의 세력이 다 꺾이는 것을 의미하며, 음녀가 패망하여(계17:16) 권력과 결탁한 큰 상인들은 물론, 만인을 미혹하던 모든 ‘복술’, 즉 미신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23:35)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응해져서 선지자와 성도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의 피 값을 이 성 중에서 찾는 것이다.

Chapter 19.

하늘의 군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19:1-2)

18장에서 셋째 화, 곧 일곱째 금대점의 심판이 끝나고 마귀의 심판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바벨론 성이 물속에 빠진 이상(異像)을 본 지 얼마가 지나서, 요한은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 천사들과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14만 4천이다.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계18:20)는 소리와 내용에 비슷한 데가 있다. 본문의 ‘음녀’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장본인(張本人)이며, 큰 ‘성’으로 상징된다.(계17:16-18 참조)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生物)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無論大小)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19:3-5)

할렐루야는 할랄(찬양하다)과 야(하나님)의 두 낱말로 된 히브리어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연기가 세세토록 오르는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에 나와 있다. 즉,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사34:9-10) 주께서는 여기서도 이와 같이 요한에게 구약에 있는 것과 같은 광경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십사 장로(계4:4, 5:6 참조)와 네 생물들(계5:6-14, 6:1-7 참조)에 대해서는 전에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본문에 ‘보좌’라는 말이 두 곳에 나오는데 장로와 네 생

물이 엮드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음성이 들리는 보좌는 주께서 이긴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보좌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주님은 여호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시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는 주의 보좌에 앉을 권세를 받은 이긴자의 보좌에서 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다. 이긴자는 하나님의 제일 큰 종으로, 천년세계가 끝난 다음 짐승과 14만 4천의 선두에서 겨루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오랜 경륜이 이루어지려는 마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쳤다. 이와 비슷한 말이 구약에도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殿庭)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135:1-3)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19:6-8)

요한이 또 들으니 그 음성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같이 들리기

도 하고,(단10:6)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며,(겔43:2) 또 큰 우렛 소리 같기도 하였다.(사81:7) 즉, 그 음성은 이미 성경(구약)에 나온 그대로 들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구약과 관련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시편에 있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할지어다.”(시97:1)라는 말씀과 유사하며, 주(어린 양)께서 아내, 곧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를 맞을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영적인 혼인에 대하여도 구약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 즉,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義)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호 2:19-20)라고 하였고, 이사야서에서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사54:5)라고 했다. 그리고 주께서는 친히 이 혼인잔치에 대하여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마22:2)고 말씀하시고, 이 혼인에 대하여 여러 군데 언급하시고(마22:10-11, 막2:19, 요3:29 참조) 바울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고후11:2)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내는 광야에서 양육 받은 여자(계12:14)로 대표되는 시온산에 주와 함께 서 있는 성도로, 많은 무리를 가리키지만(계14:1) 총괄적인 의미에서 단수로 기록하였다. 마귀 측의 여자인 음녀가 단수로 표시된 것도(계17:5) 마찬가지이다. 이 아내의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것으로, 주님의 옷이기도 하고, (단10:5, 12:6) 권세가(權勢家)의 옷, (창41:42) 또는 제사장의 옷이기도 하며, (레6:9-10) 심판하는 자의 옷이기도 한 것이다. (계20:4)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옷은 “입게 하셨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하시는 일이며, 결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져서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代言)의 영이라.” 하더라. (19:9-10)

혼인잔치에 주님의 아내가 되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도 복이 있다고 하였다. 그럼 이 잔치에는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게 되는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신랑 되신 주님의 청함을 받는 자와 신부의 청함을 받는 자가 그것이다. 세상에서도 결혼할 때 신랑의 친지와 신부의 친지가 각각 예식장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 하늘나라의 혼례식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

려면, 여호와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주를 열심히 믿어 그 기억함을 받거나, 주의 아내 되는 자와 친해야 한다. 주의 아내가 되는 자는 14만 4천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초청객은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천사는 이 혼인잔치에 관한 말을 특별히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고로 백성들에게 직접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당신의 위신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세상일도 이런 경향이 있다. 대통령은 웬만한 정부 시책이나 지시 같은 것은 대변인을 통하여 발표하며, 각 정당에도 대변인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암3:7)고 하였다. 그리하여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말을 가리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레10:3)고 했으며 주께서도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마1:22)고 하였다. 또한 호세아는 자기가 전하는 말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호1:2)고 하였으며, 스가라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슥4:6)고 전제하고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이다.

요한이 천사의 오묘한 말을 듣고 그를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

는 이를 만류하고, 자기는 요한과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와 위치가 같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영의 문제를 깊이 안 바울은 “내가 한 말은 천사가 변경하여도 저주를 면치 못한다.”(갈1:8)고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직접 바울에게 지시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본문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라고 말하였다. 즉, 주께서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이 보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주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도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였는데,(겔37:12) 이 대언이 곧 성경 66권의 말씀이며,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많지 않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주님도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다.”(마13:14)고 말씀하였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忠信)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公義)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19:11-13)

요한은 이상 중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야곱도 이상 중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뻗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광경을 보았고, (창28:12) 주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으며, (마3:16) 스테반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행7:56)고 하였다.

요한이 이상 중에 하늘이 열렸을 때 보니, 백마를 탄 자가 있었다. 이 백마는 마귀가 타는 붉은 짐승(계17:3)과는 대조적이며, 그 말에 탄 주님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하였다. 앞에서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계3:7)라고 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계3:14)이라 한 것과 비슷한 표현이다.

이 주님은 공의(公義)로 심판하며 싸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한다.” (시9:8)고 하였으며, 주께서도 사람들에게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였다.(요7:24) 그리고 주님이 싸우는 이 싸움은, 하늘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모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는 영적인 3차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마지막 일대 결전에 나선 주님의 눈은 불꽃처럼 환히 빛났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주님의 눈을 그 권세를 상징하여 이와 같이 표현했다.(계1:14, 2:18) 또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면류관을 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많은 영광을 상징한 말이다. 용이 머리에 일곱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한 것과(계12:3) 마찬가지로 표현이다. 그리고 주님밖에 모르는 ‘이

름'이란, 성명이 아니라, 여호와와 감취진 '말씀'을 의미한다. 이긴 자에게 준 흰 돌에 새긴 이름도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계2:17) 이것 역시 비슷한 표현이다. 마귀를 박멸하시는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사63:3)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이다. 이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셨으며, (요1:1) 그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것" (렘23:29)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9:14)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아내(계19:8)는 바로 주의 뒤를 따르는데, 이들이 마귀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하늘의 군대(天軍)이며, 그 수가 14만 4천이다. (계14:1)

이것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잃었던 에덴동산을 회복하여 새 하늘나라를 이룩하는 필수 요건이다. 즉, 이 14만 4천이라는 하늘의 군대, 곧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수가 차야만 여호와와의 오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6천 년 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모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역사하며, 많은

선지자들을 내세우고, 끝내는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게 하고, 하늘에 오른 다음 불 같은 성령을 보내어 사도시대에 크게 역사하게 한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순교자를 내는 가운데, 이긴자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인치는 역사를 끝내고, 마귀와의 마지막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7:2-3)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잠시 마귀가 권세를 잡은 다음, 이와 같은 마귀의 일대 소탕전(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역사의 과정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19:15-16)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 곧 좌우에 날선 검(계1:16)이 나와 만국을 친다고 하였다. 이 ‘이한 검’은 당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므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무기로 마귀가 장악한 만국(마4:8)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계2:23, 12:5 참조) 포도주 틀을 밟

는다.(계14:20, 사63:3 참조)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에는 위계(位階)와 권세에 따라 관복(官服)이 달랐으므로, 옷을 보면 누구나 그 지위를 알 수 있었다.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다’는 말은 이것을 비유해 표현한 것이다. 이때는 영의 세계이므로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실제로 주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은 영의 세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새삼스러운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만국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주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할 수 없으며, 포도주 틀을 밟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어야 비로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물을 복종시키게 되면, 왕권은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게 되어 있다.(고전 15:25-28)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짐승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壯士)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19:17-18)

여기서도 주님은 요한에게 구약과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고 들려주었다. ‘천사가 해에 섰다’는 말은 그대로 풀이하면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서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계 12:1)는 표현과 비슷하며, 요컨대 천사가 해 있는 데 서 있는 광경을 요한이 본 대로 기록한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베푸는 잔치이며, 이 전쟁에는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아내들만 참여한다. 그러니까 잔치에도 두 가지가 있다. 즉, 이 ‘하나님의 큰 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날을 가리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報讐日)”(렘46:10)이라고 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겔39:19)라고 하였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마귀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왕들과 장군, 장사, 기사(騎士), 자유인, 노예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 그 고기를 먹히게 된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에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 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겔39:17-18) 여기서 주님은 요한에게 구약을 상기시켜 앞으로 될 일을 설명하고 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19:19-21)

요한은 계시에서 한 장면이 지나가면 또 한 장면을 보곤 한다. 즉, 앞에서 계시를 보고 음성을 듣고 나자 이와 관련된 다른 장면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짐승은 마지막 3차 전쟁에서 박멸시키게 된다. 다음에 나타난 ‘땅의 임금’은 땅에서 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키며, 음녀가 다스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군대’는 ‘하늘의 군대’(계19:14)가 아니라 마귀가 부리는 군대이며, 주께서 물리친 이른바 ‘군대 마귀’도 그 일종이다.(막5:9) 그러니까 전능하신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모인 모든 악령들,(계16:14) 즉 짐승과 땅의 임금과 군대들이 ‘말 탄 자’, 곧 주님과 그의 군대들과 일대 결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 ‘군대’ 물론 하늘의 군대이다.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 채로, 즉 심판 없이 유황불에 던지우고,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에 찔려 죽고, 새들이 그 고기를 배불리 먹는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주님은 구약에 나온 장면과 비슷한 광경을 보여주었다. 열왕기상에 보면 “바아사에 속한 자가 ... 들에서 죽은즉 새가 먹으리라.” (왕상16:4)고 했다. 영의 세계에는 죽임을 당하여 그 살을 뜯어먹는 일이란 있을 수 없지만, 이렇게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Chapter 20.

천년왕국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20:1-3)

19장에 이어 이 장에서도 마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괴수인 용을 처단하는 모습에 대하여 언급하고, 심판하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은 주께서 보여주는 이상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보여주신 순서에 따라 정리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또 보니’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며, ‘무저갱’이나 ‘열쇠’나 ‘쇠사슬’ 같은 말들이 모두 상징적인 비유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쇠사슬로 용을 동여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용도 영체이며, 따라서 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무저갱(계11:7 참조)의 열쇠를 갖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무저갱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천사가 용을 잡아 큰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 속에 천 년 동안 가둬 놓는다. 앞에서 멸망 받은 음녀(계17:16)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계19:20)는 다 이 용의 부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총수(總帥) 격인 용이 무저갱 속에 결박되어 들어가니, 이 용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 용은 아득한 옛날부터 있는 존재로, 땅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태몽에서 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길조(吉兆)로 여기는 것이다.

무저갱에 용이 갇히는 사건은 앞에서 용이 하늘에서 그 사자들과 함께 대군 미가엘에게 쫓겨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계12:9) 이 용이 곧 옛 뱀,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꼬여낸 뱀과 한 족속이다. 용은 이 뱀에게 자기의 진액을 부어넣어 아담, 하와를 죄로 떨어지게 했던 것이다. 그 후로 이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형체까지 변해 땅을 기어 다니게 되고(창3:14) 냉혈동물이 되었다.

또한 용의 대명사는 마귀라고도 한다. 마귀는 용에게 직결된 악의 세력으로 용의 손발이 되어 사람의 몸에도 수시로 드나든

다.(행19:16 참조) 즉, 하나님께서 그렇듯이, 그 대적인 용도 직접 움직이지 않고, 지시만 내리는 것이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눅4:5-6) 이것은 마귀가 주님에게 한 말이다. 여기 보면 마귀가 천하만국을 넘겨받았다고 하였다. 넘겨받았으면, 넘겨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가 곧 용이다. 이와 같이 마귀의 뒤에는 언제나 용이 도사리고 있다. 마귀는 천하의 만국을 자기 손에 넣고, 주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노라고 유혹했던 것이다. 이때 하나님과 용은 각각 하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기 마련이다. 용에 속하는 악의 무리들이 여호와와의 세력에 대항하는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다소 다르다. 즉, 첫째 전쟁 때에는 주로 술객(출22:18, 신18:10)이 크게 역사하고, 둘째 전쟁 때에는 음녀(계13:1)가 크게 활약하며, 셋째 전쟁 때에는 짐승(계11:7)이 큰 역할을 한다.

용은 ‘사단’이라고도 한다.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對敵)을 의미하며, 마귀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다윗을 격동케 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과대평가하게 한 것이 바로 사단이었으며,(대상21:1)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와의 사자 앞에 섰을 때 그 우편에서 대적한 것도 사단이였다.(슥3:1) 그리고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아 교만해질까 봐 주께서 자기 몸에 가시, 즉 사단의 사자(使者)를 주셨다고 했으며,(고후12:7) 베드로는 자기를 속인 아나니

아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책망했다.(행5:3)

이와 같이 옛 뱀과 마귀 및 사단은 그 역할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부 용에게 직결된 악의 무리로 용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용을 결박하여 천 년 동안 가두면, 악의 근원이 자취를 감추게 되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적어도 천 년 동안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천년세계’이다. 이 ‘천년세계’는 계시록에만 언급되어 있다. 이 천년안식의 세계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우주의 창업에 종사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인간과 교류하기 시작하여 6천 년 동안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역사를 마치고, 천년안식에 들어가도록 예정하셨으므로, 마지막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계시록에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천 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와는 다르다. 영의 세계에는 그런 날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천 년도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로 표시한 데 지나지 않는다.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가두고 인봉하므로, 그 세력이 완전히 차단되어 자기가 손아귀에 넣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 ‘인봉’이라는 말도 하나의 비유로 사용한 것이며,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영의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다.(계5:9 참조)

천 년이 차면 용이 잠깐 놓여나게 되어 있는데, 이 잠깐이 곧 한 때, 두 때, 반 때요, 1260일이요, 3년 반이다.(계11:3, 11:11, 12:14) 그러나 이 시간관념도 영의 세계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는 다르다. 다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세상 시간을 들어 표시했
을 뿐이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
세를 받았더라. (20:4)

보좌가 복수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보좌에 앉은 자도 여럿
이다. 그러므로 이 보좌는 하나님이나 주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
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19:28) 고
하였다. 여기서도 보좌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시
록의 이 보좌는 열두 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
안 왕 노릇하는’ (계20:4) 14만 4천의 인 맞은 성도, (계7:4) 즉 세마
포 옷을 입은 주의 아내, (계19:8) 곧 하늘의 군병 (계19:14) 들의 보좌
이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심판할 권세를 갖게 된
다. (계20:6) 그러므로 지금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형제이지
만, 그때 그 나라에 가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
례(事例)가 생길 수도 있다. 모두가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듯
이, (롬9:21-22) 이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가타부타 말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20:4-6)

요한이 계속해서 계시를 보는 가운데, 주님은 앞에서 본 것과 관련된 것을 보여주셨다. 즉,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는 첫째, 예수의 증거를 인해 순교한 자들로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중에 순교한 성도요, 둘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숭상하여 그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순교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눅10:20, 빌4:3 참고) 순교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 그들 중에는 이긴자 시대에 보혜사 성령의 은총으로 살아서 주님을 맞는 성도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자들로, 천 년이 지나서 있을 짐승과의 싸움에서 그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다.(계 13:8)

주를 증거하다가 아낌없이 목숨을 던진 성도는 주후 근 2천 년에 걸쳐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당시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행4:33) 스테반(행22:20)과 그 밖에 허다한 성도들이 목 베임을 당했던 것이다.

또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으며,(레10:3, 단9:2, 호1:2, 속4:6, 마3:3 참조) 선지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이로 인하여 목 베임을 당한 자들 역시 많은 것이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히11:37)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聖殿)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마23:35)고 하였으며, 주께서 운명하자 성소(聖所)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승천했던 것이다.(마27:51-53)

이들 죽임을 당한 많은 영혼들은 주님의 피권세로 이때 지성소로 올라간 것이다.(계6:9) 그리고 마지막 때 감람나무를 따르는 자들이 살아서 재림하시는 주를 맞아 천 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게 된다. 이것이 곧 지상에서 영적인 2차 전쟁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임하기까지 베풀어지는 과도기의 ‘천년세

계’이다.

이들은 천 년이 지나고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도 받지 않는다.

이 심판하는 왕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주의 아내로,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생명의 부활”,(요5:29)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즉,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11:25-26)고 하신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믿는 자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요7:38) 하신 것처럼, 요컨대 ‘주의 살과 피’로 말미암은 보혜사 성령을 받아 그 안에 주의 생명이 깃든 성도를 가리킨다.(요6:53)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천 년이 차기까지 음부에서 기다려야 하다. 음부에서 자던 자들이 천 년이 지나 일어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곧 둘째 부활이며, 이 심판을 거쳐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제사장, 곧 치리자(治理者)가 되는 것이다.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陣)
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

멀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뿔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을 받으리라.(20:7-10)

천년세계가 끝나면 무저갱에 갇혀 있던 사단은 일단 놓여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이며, 하나의 룰(규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무저갱 속에 갇혀 있던 마귀는 거기서 놓여나자 일찍이 땅에서 자기편에 섰던 모든 백성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영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일대 결전에 대비한다. 그 대표적인 족속이 ‘곡과 마곡’이다. 마곡은 노아의 손자, 즉 야벳의 아들이요,(창10:1-2) 또한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의 지명(地名)이 되기도 하며, 그 임금이 바로 곡이다.(겔38:2) 그리고 이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기도 하며, 그 지역은 ‘극한 북방’(겔38:15)이다. 그런데 야벳(백인의 조상), 즉 가장 북방 민족인 이들이 살던 곳은 바로 오늘의 러시아이다.

이들 부족은 옛날에도 이스라엘에 침범했으며, 또한 여호와의 큰 적대 세력이 될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였다.(겔38:16)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말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겔38:16)

이 여호와의 무수한 적대 세력들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다. ‘성도들의 진’이란, 성도들의 진지, 곧 요새(要塞)이며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전쟁할 때에도 이 ‘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진과 성이 이 적대 세력들에 의해 포위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와 모든 적대 세력이 완전히 소탕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20:11-15)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소탕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벌어진다. 이 보좌는 천년세계에서의 주님의 보좌(4절)와는 달리 하나님의 보좌이다. (계4:2-9, 5:1, 6:16, 7:10 등 참조) 심판을 주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베풀어진다

고 보여주었지만, 실제 심판은 14만 4천의 왕들이 한다.(20:4 참조)
그런데 요한이 이상 중에 보니 하늘과 땅이 간데없었다. 즉, 육의
세상이 사라진 것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시102:25-26)라는 말씀이 이
루어지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
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사51:6)
라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
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막13:31)고 하셨으며, 베드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벧후3:10)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천지가 없어지고, 죽어서 음부에 갇혀 있던 모든 영
혼들이, 심지어 바다에 빠져 죽은 자의 영혼들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는 이 경우에 의인화(擬人化)되
어 있는데, 이 양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떼려고 해도 뿔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일단 음부에 들어가 심판
때를, 즉 제2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음부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
계로, 마귀가 멸망 받은 후에 그곳에 갇힌 자들을 데려다 심판을
베푸는 것이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을
마귀가 주관하므로(눅4:5-7)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끌려가는 것이
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한

다고 하였다.(호13:14)

그리고 심판에 의해 죄인들은 행위대로 불뭇에 던지운다는 말 씀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불뭇에도 죄상에 따라 고통의 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죄가 씻긴 정도에 따라 은혜 단계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은 사망(롬5:12)을 영원히 멸하고, 여호와와 백성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 기고 그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게 되는 것이다.(사25:8) 이것이 곧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약5:20) 이때 비로소 “사망 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호13:14) 하고 외치는 새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다.

누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뭇에 던지어지기 마련 인데, 이것 역시 하나님과 마귀의 룰(울레)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마귀의 편 에 선 자는 책들에 기록되어 각각 다른 데로 가게 마련이다.

Chapter 21.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21:1-2)

여호와께서 마귀의 세력을 소탕하고 이루시는 마지막 장면이
계시로 요한에게 펼쳐진 광경이다. 즉,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
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도 다 없어지고, 새 우주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새로운 우주
를 다시 지으시는 것을 뜻하며, 이로써 여호와의 오랜 경륜이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사66:22)을 말씀하고 있다.

이어서 요한에게 보인 것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계3:12)으로, 영적인 세계를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와 그의 지시에 따라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후 여호와와 영광이 드러나고 그 축복이 크게 내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와 그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지면 그 백성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했을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깨어나서 들어간 ‘거룩한 성’(마27:53)이요, 스가랴가 말한 ‘진리의 성읍’(슥8:3)이다.

주께서 운명하시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깨어났다는 것은, 물론 실제 육이 살아난 일이 아니라, 이상 중에 상징적(象徴的)으로 보여준 계시이다. 만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마태만 기록하지 않고 네 복음서에 다 그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사야는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사52:1)

계시록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에 비유하고 있다. 즉,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아름답게 단장한 것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 신부는 세마포로 단장되어, 이 아내의 수가 다

예비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을 보게 마련이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21:3-4)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집)에 그 ‘백성’(신부들)이 살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인간이 동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못하여, 어디까지나 하늘(삼층천)은 여호와의 보좌요, 땅은 그 발등상이었다.(사66:1) 그러므로 땅에서 ‘하늘’에 가려면 홀연히 변하여 그 여건을 갖춰야 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려면 육신을 입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죽음과 눈물과 애통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사35:9-10)라고 하였으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사25:8)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이때에 와서 응해지는 것이다. 즉,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리고 복된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信實)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5-7)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우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셨다. 당신의 권능으로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에는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터이니 기록해 두라고 당부하시고, 이어서 “이루었도다.”라고 하셨다. 일찍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귀를 소탕할 길을 다 이루신 후로(요19:30) 그 피권세로 역사하여 잃었던 에덴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이다.

알파(alpha)와 오메가(omega)는 1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희랍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며, 처음이자 나중인 완전무결함을 뜻한다. 이러한 여호와께서 이긴자에게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당연히 말씀 그대로 영에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

해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제공하는 것이 이긴자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비둘기나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부분적으로나마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주께서 피를 흘려 산 제물이 되신 후로는 이런 제물을 마련하지 않고, 그러니까 값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따라서 생명수도 값없이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슌14:8)는 말씀 그대로 이긴자는 이 생명수를 여호와로부터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21:8)

마귀의 편에 서서 움직이던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들어 있다. 세상에 두려움을 모르는 자, 즉 두려워하지 않는 자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호와를 두렵게 섬기라(대하19:7)고 하였으며, “너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약4:9)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란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여호와도 부인하며, 또 박해나 고난이 두려워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 율법에서는 우상 숭배도 된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받들 때, 가령 돈이나 명예, 애인, 자식 등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여호와를 믿지 않을 뿐더러,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게 믿어, 조그마한 시험을 당하여도 바로 믿음을 버리는 자들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살인자와 행음자 및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모세의 십계명의 중요한 부분에 저촉되는 자들이다.(계9:20-21, 22:15 참조)

둘째 사망이란, 한 번 죽었다가 심판에 의해 다시 영원한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20:6-14 참조)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불변의 규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

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21:9-14)

일곱 대접에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의 하나라는 이 천사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에서 미루어 보아 일곱째 천사임을 알 수 있다. (계15:1 참조) 이 천사가 주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 주겠다고 하더니,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신부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걸어서 가지 않고 뚱뚱 떠서 간 것을 의미한다. 만일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이상을 보는 중에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고는 잘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어린 양의 신부로 상징되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귀한 보석처럼 빛나고 맑다. 이 아름다운 영의 세계를 비유해서 육적으로 표현하면 이리하다. 이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이 에워싸고 있다. 성곽은 울타리를 가리킨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곁을 삼으시리로다.” (사26:1)고 말한 그대로, 이 성곽은

어린 양의 신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성곽에는 열두 문이 있고 그 문마다 천사를 시켜 지키게 하고(사62:6)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주께서는 여기서도 구약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요한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겔48:30-35 참조) 동, 서, 남, 북으로 각각 문이 셋씩 있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주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요한이 알기 쉽게 성으로 비유해 보인 것이라는 점이며, 문자 그대로 해석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열두 지파의 두령의 이름이나 12사도(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를 포함함 행1:26 참조)의 이름도 고정시켜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못되며, 여기서만 다만 직책을 표시하는 이름을 상징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長廣)이 같은 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21:15-17)

내게 말하는 자란 일곱 천사 중의 한 사람,(계21:9) 즉 마지막 일곱째 천사를 가리키며, 그가 금갈대로 성곽을 척량하는 것이다.

이 척량은 11장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한” (계11:1) 경우와 같이 의(義)의 비중, 즉 믿음의 정도를 헤아리는 것으로, 요컨대 성도의 자격이 얼마나 갖춰졌는가를 알아본다는 뜻이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가 일만 이천 스타디온으로, 이것을 미터로 풀이하자면 약 2,200킬로미터, 우리나라 치수로 치면 약 5,500리가 된다. 그런데 이 성은 길이와 폭과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이다. 이런 성이란 실제로 있을 수 없다. 하긴 바벨론이나 니느웨 성은 정사각형이고, 솔로몬의 성전에 마련된 지성소는 한쪽이 각각 20규빗으로 된 정육면체였다.(왕상6:20)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랍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육면체가 완전한 형태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은 완벽함을 뜻한다. 그래서 이 척량은 사람이 한 것과 천사가 한 것이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성곽의 두께는 144규빗이다. 1규빗은 45센티미터이므로 약 65m 가량 된다. 앞에서 말한 일만 이천 스타디온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해당되는 수와 같으며, 이 144규빗은 12에 12를 곱한 수로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精金)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

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紫晶)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1:18-21)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실제로 보여준 것은 성이었다. 이 성곽은 호화찬란한 열두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은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처음 제사장 아론의 예복과 방불하다. (출28:15-30 참조) 특히 이 중에서 여덟 개는 아론의 흉패에 있는 보석과 같다. “너는 흉패를 …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琥珀),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마노, 벽옥으로 다 금테를 물릴지니…” (출28:17) 그 열두 기초석의 보석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① 벽옥(碧玉) — 초록빛 투명한 수정석으로 광채가 난다. ② 남보석(藍寶石) — 황금 반점이 박힌 하늘색 보석 ③ 옥수(玉髓) — 영롱한 초록빛을 띠고 있다. ④ 녹보석(錄寶石) — 녹색 보석 중에서 제일 밝은 빛을 띠고 있다. ⑤ 홍마노(紅瑪瑙) — 흰색이 적색과 자줏빛 등으로 간간이 꿇긴 마노 ⑥ 홍보석(紅寶石) — 갈색을 띤 루비 ⑦ 황옥(黃玉) — 세로로 줄이 난 황색 보석 ⑧ 녹옥(綠玉) — 에메랄

드, 즉 녹색 보석 ⑨ 담황옥(淡黃玉) — 옅은 황색 보석 ⑩ 비취(翡翠) — 짙은 녹색으로 광채가 나며, 녹옥수라고도 한다. ⑪ 청옥(靑玉) — 푸른 투명한 빛을 띠고 六방으로 빛을 내는 사파이어 ⑫ 자정(紫晶) — 자줏빛 수정.

12성문은 일찍이 주께서 천국을 진주로 비유한(마13:46) 대로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즉, 그 나라는 그만큼 아름답고 풍족하다는 것이다.

이 보석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초대 제사장의 옷과 흡사하며, 주의 아내, 즉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고 있다. 주께서 영의 세계를 육적인 것으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다. 주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것은 곧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

이라.(21:22-27)

성전은 하나님과 주님 자신이다. 일찍이 주께서는 당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여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혈면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요2:19)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들이 이 성전을 에워싸고 울타리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주님을 보호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이와 같이 당신의 울타리로 삼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주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지금은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만국을(마4:8, 고전15:27 참조) 이때에 회복하여(행3:21) 그 빛 가운데 다니게 되며,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계14:3) 천년왕국의 임금(계20:6)들이 영광 속에 들어오게 된다. 어둠이 사라졌으므로 마귀의 세력, 즉 여호와의 적대 세력이 없어 성문을 닫아 둘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 비슷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한 적이 있다.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사60:10-11)

새 예루살렘 성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죄악의 근성이 뽑히지 않아 속되고 가증한 일

을 예사로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제외되며, 복 받은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모여든다. 그러나 이들 초청객은 그 나라에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주의 아내와는 서열을 달리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다)에 기록된 자들은 14만 4천 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 백성들 중 존귀한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되고, 여호와와 눈에 나서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는 그 백성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Chapter 22.

에덴의 회복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
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과실
이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蘇醒)하기 위해
있더라.(22:1-2)

이 장(章)에는 여호와께서 마귀를 소탕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
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에덴동산을 회복한 하늘나라의 모습
을 요한이 이상 중에 본 대로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여기서 일단
끝이 나는 것이다. 천사는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롯되어 길 가운데

로 흐르고 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찬란하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도 강이 흐르고 있었다.(창2:10) 그리고 스가라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슌14:8)고 하였으며, 계시록에는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요7:38)고 말씀하였다. 이것은 요한의 말대로, 주를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생명의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에서는 일 년 내내 달마다 열두 가지 과일이 맺힌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언제나 생명과일을 먹게 됨을 육적으로 비유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과일은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서의 신령한 과일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영의 양식인 생명과일은 죄짓기 전의 아담과 하와가 먹던 것처럼, 맛은 느끼지만 소화시키거나 배설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생기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일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위해, 즉 회복한 만국 백성들이 깨어 여호와를 공경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생명과일에 대해서는 에스겔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일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聖所)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겔47:12)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22:3-5)

하늘나라에는 저주나 슬픔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에워싸고 의로운 성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도 보게 된다. 따라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33:20)는 상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출33:23) 모세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하체를 보았을 때, 그 발아래는 청옥(靑玉)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던 것이다.(출24:10) 그러나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 노릇할 어린 양의 아내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인간이 영(靈)으로 화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게 된다. 그들은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계 7:3, 14:1 참조)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하여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다.(계5:10, 20:4, 히7:3 참조)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천년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하고, 천 년이 차면 큰 난리가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왕 노릇한다는 뜻이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22:6-9)

여기 기록된 말은 선지자들의 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하셨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며”(민12:6-7) 또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 하신다.”(욥33:15)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어느 때나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것이다.”

(암3:7)

요한이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이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나온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요한은 또 다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 그 천사(계 19:10)와 이 천사는 다른 것이다.

천사란 여호와와의 부리는 영으로 여호와와의 심부름을 드는 점에서는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직분에서 보면 천사가 훨씬 하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3)고 하였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22:10-13)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은 때가 가까우므로 인봉하지 말라고 했

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단8:26)고 다니엘에게 분부하신 것과는 정반대이다.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때가 가깝다고 하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후 2천 년이 가깝도록 오시지 않고 있다. 주께서 실언을 하신 것일까? 아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는 것이다. 그 조건이란 주의 아내의 수가 차는 것이다.(계 6:11) 즉,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주의 아내가 다 예비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계21:9-11) 그런데 이 주의 아내가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지연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의로운 사람은 끝까지 의롭고, 악한 자는 끝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에스겔도 비슷한 말을 전하였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겔3:27)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에게서 이와 같은 속성을 자주 찾아보게 된다.

그리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편에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시62:12)라고 했으며,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겔33:20)고 하였다. 또 주님도 당신께서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겠다.”(마16:17)고 말씀했으며, 바울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롬2:6)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 구약에서 일관된 가르침이라고 하겠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 이것은 다른 데(계1:17, 2:8, 21:6, 7:3)에도 나온 말씀으로, 완전성과 영원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22:14-16)

두루마기를 빼는 자, 곧 주의 피로 마음의 옷을 깨끗이 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고, 주를 섬기며,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힘쓰며, 주의 사업을 돕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두루마기를 빼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지 못하고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자들은 ‘성 밖’에 머물러 있게 마련이다.

주님은 당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다. 또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사11:1-2)라고 했으며, 민수기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민24:17)고 하였다. 주께서 이와 같이 당신을 새벽별로 자처했기 때문에, 일찍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고 하였던 것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22:17)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령과 신부의 초대를 받으면 누구나 가서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이 생명수는 생명과일과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요, 오늘날에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슌14:7-8)는 말씀이 응해지는 때이다. 이것이 되어져야 하며, 또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2:18-21)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다른 말을 더 첨가하면 이 책에 기록된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것이며, 또 이 예언의 말씀의 일부를 제거하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뜻을 박고 있다. 이것은 이 여호와와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그 말씀에 가감을 하여 여호와와의 권위를 손상케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와의 말씀의 신빙성을 존중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4:2)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純全)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30:5-6)고 하였다. 이것은 역시 고금을 통하여 일관된 건전한 성경관(聖經觀)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후세의 사람들이 적당히 가감을 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 이 계시록은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같이할 것을 기원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서신을 끝맺는 어조와 비슷하다. 이 계시록도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4:6)고 경고한 구약을 맺는 이 말씀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축복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